

여름

계간

사무직여성



- 맛있는 동지
고희를 넘긴 여성운동가 이효재
- 기획
뒤집어보는 결혼이야기!
- 특집
용모제한의 전제를
해부한다

- 생활속의 여성학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 역사속의 그여자
버지니아 울프
- 느낌이 있는 여행
동해안 나들이



사·무·직·여·성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전화 269-5763~5 팩스 269-5766

1994년 7월 20일 발행 · 여름호 · 통권 제16호 · 등록번호 바 1523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권 4,900원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김혜련 서울 풍문여고 교사

여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닮고 싶어하지 않으며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지독한 남녀차별주의자라서 고생을 무지했다고 하시면서도 엄마도 똑같다. 우리 집이 딸 넷에 막내로 아들 하나라면 알만 하지 않은가? 은근히 차별이 심한데, 자신은 아들 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런 엄마가 참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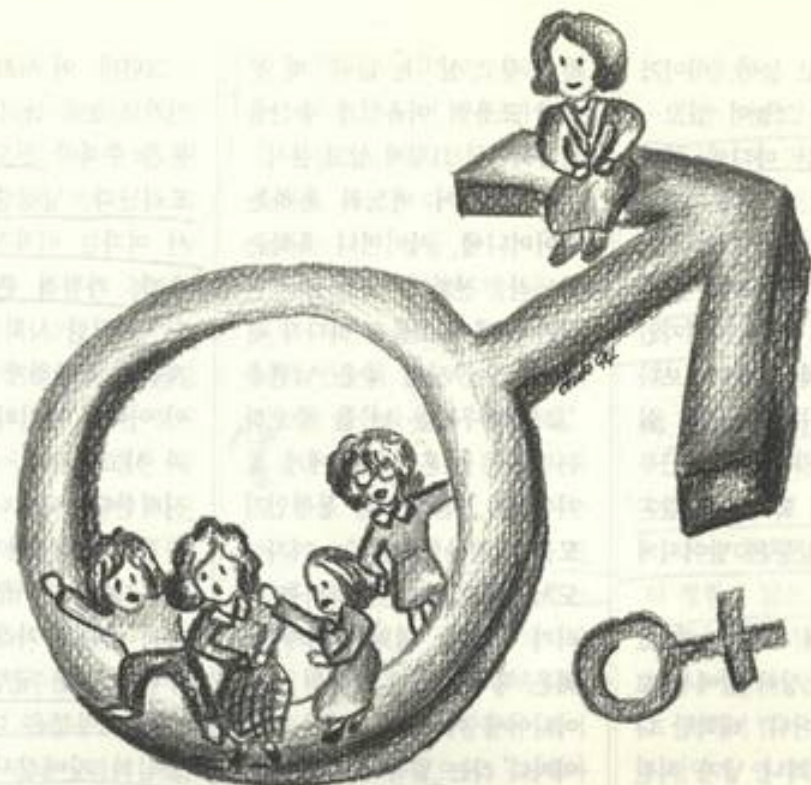
“난 말도 크게 하지만 웃을 땐 더 크게 웃는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나 친척 아줌마들은 질색을 하신다. 여자애가 그게 뭐냐며, 시집가긴 글렀단다. 모여서 하시는 이야기를 살짝

엿들으면 결혼한 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말끝마다 시집타령인지 알 수가 없다. 시집 못간다는 게 큰 험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크게 떠들고 웃지 못할 시집 같은 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날 구속하고 여자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건 언제나 여자들이다. 심지어 전철에서도 아줌마들이 ‘여자애들이...’하고 더 눈살을 찌푸린다. 남자애들이 떠들면 괜찮고 여자애들이 떠들면 안 괜찮은 이유가 뭐가? 난 그러는 여자들이 싫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이야기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토로했다. 그런데 그 불만의 구체적 상대는 대부분 엄마나 주위의 아줌마들이다.

여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닮고 싶어하지 않으며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집에 들어앉아 있는 여자들



은 이해할 수 없어. 뭐야, 게으른 고양이처럼 몸단장이나 하고, 애편지 뭘지 야옹거리다가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카드나 펍펍 긁어대고, 백화점에서 몇 십만원 짜리 옷을 사 제끼는 여자치고 지가 돈 벌어본 여자없더라. 돈 아까운 게 뭘지, 돈 버는 게 어떤 일인지 해봤어야 알지”

“그뿐이야? 고액과외니, 뭐니, 다 집에 들어앉아 있는 여자들이 주도해서 하는 일 아

냐? 어디 생산적인 구석이 있어야지”

점심시간 식당에서 직장 여성들의 집에 들어앉아 있는 여자들을 향한 성토가 치열하다. 그런가 하면 집에 있는 여자는 직장 나가는 친구나 이웃이 걱정이다.

“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자식 아니니? 아이한테 엄마가 최고라는 거, 너 모르니? 너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

를 맡겨서 제대로 잘 자랄 것 같니? 그까짓 돈 몇 푼 벌자고 애를 남의 손에 맡기다니... 너 잘 생각해라 애. 요즘 청소년 비행이 얼마나 심각하니? 어머니, 미안하다 애... 니네 애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여자가 선생인데, 남의 애 가르치겠다고 자기 애는 버려두다니. 앞뒤가 안맞지 않니? 놀이터에서 보면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데리고 노는데 그 집 애는 피죄죄한 과출부

멋있는 동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효재 공동대표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고희를 넘긴 여성운동의 현역



이 여름 한복판에 만난 멋있는 동지는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젊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바쁜
이효재 선생님이다.

지난 90년 이화여대 교수직을 퇴임한 이래
실천하는 삶으로 뛰어든 그는
'몸은 바쁘고 고달프지만 마음은 기쁘다'고 한다.

이 여름 한복판에 만난 멋있는 동지는 고희(古稀)의 나이, 일흔을 넘기신 이효재 선생님이다. 보통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그는 젊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바쁜 '현역'이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여성사회교육원원장, 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자주민주통일 민족회의 공동의장 등이 현재 그가 맡은 일이다.

지난 90년 이화여대 교수직을 퇴임한 이래 연구하는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뛰어든 그는 '몸은 바쁘고 고달프지만 마음은 기쁘다'고 한다.

'말로 뛰는 사회학자', '지칠 줄 모르는 청년', '못 말리는 추진력', '멋쟁이', '행동파', '감격시대'

그와 함께 일하는 후배들은 그를 그렇게 말한다.

민족교육가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

그는 1924년 경남 마산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일본 식민지시대 그리고 조부모 때부터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온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 민족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기도 속에서 자랐다. 보수적이면서도 민족신앙에 뿌리를 둔 기독교가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던 그의 마음엔 '깨우치지 못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교육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차 있었다.

목사인 아버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본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만주로 피신해갔는데, 그 후로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한

다.

간호사 출신의 고모 역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쫓겨 20대 처녀의 몸으로 미성 두대를 들고 할머니로 변장한 채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는데, 그곳 독립군 군관학교에서 생도들의 군복도 만들고 간호도 하며 해방전까지 그 곳에서 활동을 했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었어. 늘 불안하고 침울했지. 항상 형사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집안에 드나들고 감시했으니까"

그의 가족사에 깊숙히 침투한 일본제국주의는 그에게 어둠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그의 삶의 가운데로 끌어들이 준 계기가 되었다.

그는 경남 동래여고를 다녔는데,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학교가 폐교되자 원주 루씨여고로 전학하였다. 워낙 삼엄한 때여



1993. 8. 13. 제 82차 수요정기시위 때 그는 몸소 체험했던 일제시대의 아픈 기억인 정신대문제를 발췌하고 나서고 있다.

서 기차를 타면 어김없이 경찰로부터 가방수색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 그는 학교에서 신사참배 시간이 되면 늘 아프다고 피병을 부려 기숙사에 혼자 남아 있곤 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던 여고 2학년 때 그는 한 달간 정학을 받은 적이 있다. 일본천황의 아들 생일을 기념한 신사참배에 빠지고 기숙사에 혼자 남아서 쓴 시가 발각된 것이다.

식민지 민족의 설움을 개탄한 그의 시를 일기장에 베껴 적은 학교 후배가 지하씨클에 가담한

혐의로 책과 노트를 경찰에 압수 당하면서 그가 드러난 것이다.

그 사건은 재학생과 졸업생 30여명을 연행, 조사한 작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학교로 그를 찾아온 경찰은 "어린 학생이 누구에게 사상지도를 받았느냐"며 그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고 애국신앙을 갖게 되었노라며 버텼다. 그 일로 그는 정학의 '전과'를 남겼고, 졸업식에서 그가 받아야 할 도지사상은 다른 학생에게 넘겨졌다.

정신대와 결혼을 피해 공무원으로 취직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41년에 여고를 졸업한 그가 맞닥뜨린 것은 처녀공출, 즉 정신대의 위협이었다. 당시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처녀들은 10만-20만 명을 헤아렸다.

그래도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공출을 면할 수 있었으므로 집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서둘렀다. 그러나 어릴적부터 교육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키워온 그에게 '결혼은 주주간에 끌려가는 소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결혼이란 인생의 '막다른 종착역'일거라고 생각한 열아홉살의 그는 약혼이 다 성사될 즈음 천척집으로 도망갔다.

부모님 체면이나 상대에 대한 미안함도 모두 접어버렸다. 당시로서는 결혼해서 애키우며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 것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천척의 소개로 마산시청 공무원으로 취직해 2년간 일했는데, 이로써 그는 정신대와 결혼 모두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어머니이야기를 하였다.

마산의 대지주이며, 일찌기

딸자식들을 미국과 중국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 '개화된 집'의 딸인 그의 어머니는 살림살이 보다는 늘 "인재를 길러야 나라가 산다"고 하시며 안살림보다는 바깥일에 열성이셨다. 집에는 늘 과부나 소박 맞은 아주머니, 고아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느라 바쁜 어머니에게 그는 어릴 적에도 어리광을 부려본 기억이 없다고 한다. 6남매를 둔 주부였지만 안사람이기보다는 '바깥 사람'으로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해방 후 고아원을 세워 사회사업가로 그리고 교육자로 바르게 사셨다.

결혼을 피해 집을 나가 취직까지 한 그의 뱃심!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당시로서는 평범치 않았던 고모와 어머니의 삶에서 받았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잊고 학문의 상아탑에

해방이 되자 그는 그 해 9월에 이화여대 문과에 입학했다.

수년동안 공부에 대한 열의를 미워두었던 그는 대학문이 열리자 주저없이 입학을 한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우울함과 어두움을 고스란히 겪은 그는 마냥

'심각한 학생'이었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

당시로서는 과년한 스물둘의 나이에 헌책방을 누비며 책 속에다 자신을 묻고 지냈다. 바깥세상은 좌우대립이니, 찬탁반탁이니 떠들석했지만, 그는 세상



결혼을 피해 집을 나가 취직까지 한 그의 뱃심!
그건 아마 고모와 어머니의 삶에서 받은 영향이 아닐까?

에 무관심한 채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등 유럽 실존주의 철학과 러시아 문학에 푹 빠져있었다.

공부에만 몰입하며 대학생활을 하던 그에게 우연한 계기로 미국유학의 길이 열렸다. 영어를 잘하시는 아버지가 알게된

교수출신의 미군 문정관이 그와 음악을 전공하던 그의 여동생, 두 자매의 유학을 주선한 것이었다.

실천적 인식에 눈뜨게 된 미국유학

47년 12월 그는 인천항에서 미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보름만인 다음해 정월 초하루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감이 안 잡히는 미국, 불안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그저 고향할 각오 하나만으로 미국에 당도한 그는 그저 '놀란 시골닭'이었다. 서부에서 일주일간 기차를 타고서 동부에 도착, 알라바마 주립대학에 입학한 그가 처음 미국을 보고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고민이 없는 부와 희망에 찬 거대한 땅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뷰티풀', '원더풀'을 연발하는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캠퍼스에서 자유분방하게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남녀학생들의 모습이었다. '미국은 매춘의 나라



1993. 6.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여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한 모습.

인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치닫
게 했던 미국은 아무튼 놀라운
나라였다.

비록 몸은 가난과 혼돈에 가
득 찬 나라를 떠났지만, 식민지
하에서 우울했던 기억들을 고스
란이 담고 온 그는 미국이 준
문화충격에서 헤어나는데에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유학 전부터 실존주의 철학에
빠졌던 그는 철학과를 지망했으
나, 교수는 영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게 가정과를
권하였다. 애당초 가정과에 마
음이 없던 그는 사회학이 철학
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회학을 선택하였다. 사회학을

공부하며 철학을 접할 수 있으
리라고 생각한, 사실과는 매우
달랐던 자신의 순진한 선택을
이야기하며 그는 큰소리로 '하
하하' 웃는다.

얼마 후 그는 6.25소식을 접
했다.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 비
친 전쟁 속의 한반도는 지친 피
난 행렬, 고아들과 가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
이었다. 당시 미국은 매카시 선
풍이 몰아쳤고, 미국 언론은 한
국을 자신들이 도와주어야 할
미개한 후진국 정도로만 생각했
다. 그는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심각해졌다. 그럴수록 종교와
철학의 관념 세계로 점점 빠져

들어갔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신
학대학에 진학하여 인간의 실존
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신학은 그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를 지배해온 보수적인 기독
교,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
시로만 해석해오던 기존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갈 수 있
었다. '역사는 신의 계시와 예
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진보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발
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고
를 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사
회학 공부로 돌아왔다. 그즈음
실존주의 철학과도 결별하게 된
다.

폐병으로 2년 여간 요양을 해
야 했던 그는 55년 콜럼비아대
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당
시 미국의 지역사회의 조직활동
과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
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 내나라의 근대
화, 민주화를 이루는데 힘써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 동시에 여
성의 사회적 역할과 의식이 변
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주화와 분단문제를 여성문제와 엮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58년 서른다섯살에 이화여대 사
회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
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90년
퇴임하기까지 해직되었던 4년간
을 제외하면 28년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보냈다.

그는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유학시절 미국학생으로부터 프
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딱
히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삶
의 다른 목적이 상대적으로 너
무 강해서'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교단에 있으면서도 늘
우리사회의 격변 속에서 여성들
을 어떻게 깨우치고 조직할 것
인가, 여성이 어떻게 지역사회
의 주인으로, 민주시민으로 제
역할을 잘 해낼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지켜온
한 후배는 "선생님은 사고가 고
정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것, 새로운 문제에 대한 호기심
이 남다르지요. 그 점에서 선생
님은 진정한 사회학자 입니다"

라고 말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지적
호기심'과 지칠 줄 모르는 '추
진력'은 그에게 학문과 현실 사
이를 이어주는 튼튼한 이음새
역할을 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만난 이스라엘



● ● ●
선생님은 사고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것,
새로운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르지요.
● ● ●

사람에게 민족통합을 위한 그
나라의 새로운 사회적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66년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협동적 공동체
의 생활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
다. 또한 미국의 제일 오래된
흑인대학에 교환교수를 자청하
여 '흑인사회학'을 접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굉장한 의식전환
즉 '제3세계적인 시각'을 정립
하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누구보다 먼저 분단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
여 우리사회 여성의 한이 분단
과 반공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
다는 것, 민족적인 과제와 결합
되지 않은 이론과 연구는 더이
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
었다. 이렇게 그의 학문세계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
이 변화하는 사회의 한가운데서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길을 만
들어왔다.

1970년에는 이화여대에 여성
자원개발연구소를 만들어 화곡
동 주택지역에서 공동구매, 놀
이터공동관리, 지역학교 등 지
역사회발전의 모델을 직접 시도
해 보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가족연구에 많은
열정을 보였는데, 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가 교수가 된
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여자
라는 것 그리고 사회민주화는
가정민주화가 되어야 가능하
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사회현상을 이론적
으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가족과
그 일원인 여성의 지위와 변화

를 함께 고민해왔다.

그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편견이 없는 눈을 갖고 있으며, 그런 만큼 한번 옳다고 결론지으면 때론 '막무가내'를 부려서라도 앞뒤 재지않고 해낸다. 주변에서는 그런 그의 성격을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순수함, 옳은 것은 굴절되어서는 안된다는 그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한다.

78년 유신말기 일부교수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려던 일, 즉 '교육현장' 사건이 있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송기숙교수가, 서울에서는 연세대 성내운교수가 주축이 되었다.

유신정권이 만든 교육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에 그는 주위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었는데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교수님 두분은 구속이 되었고 가뜰이나 당시 유명했던 동일방직노동조합사건을 돕느라고 동료 교수들에게 모금을 해서 감시를 받아왔던 그는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다. 잠도 안재우며 이틀간 꼬박 협박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유신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항변하며 곳곳하게 견뎌냈다.

민우회의 초대회장 시절, 그는 민우회를 통해 여성운동에 첫발을 댔게 된다.



발로 뛰는 사회학자, 환갑 넘어 여성운동가로

80년 서울의 봄, 그는 시국성명서에 여자교수들을 참여케 한 것을 계기로 당시 해직된 80여명 교수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유신 때부터 정부는 김옥길총장에게 그를 해임시키라고 압력을 넣어왔는데, 5공화국은 제엄령을 선포하면서 국가를 혼란시키려 했다는 죄로 그를 대학에서 내쫓았다.

그는 '사건을 만들고 뛰는데 재주가 있는 그것들(정부 수사기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대면하기가 싫어서' 친구집에서 몇달간 은신해 있었다.

해직기간은 행복했다고 한다.

그는 80년 봄부터 복직되던 84년까지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책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여러 권 냈다. 『가족과 사회 개정판』, 『사회학개론』, 86년 한국일보출판상을 받은 『분단시대의 사회학』 등이 다 해직 당시 펴낸 것이다.

그는 몇차례 출판상, 여성상을 수상한 일에 대해 "별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상을 받아 창피스럽다"고 말한다.

해직기간 중 해직교수협의회를 조직해 활동을 하였는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 '행복한' 연구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선생님의 출입을 꺼려하는 대학도서관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84년 그의 제자들과 동창들은 돈을 모아 아현동에 자그마한 연구실을 내고 '여성한국사회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그 곳은 그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토론하는 귀한 공간이 되었다.

여성민우회 초대회장.

그가 제자들의 성화로 말게 된, 87년에 창립된 민우회의 회장자리는 그가 여성운동단체에 첫 발을 디딘 시작이었다. '연구'의 대상, 글과 말로서의 여성운동이 이젠 그의 삶이고 '실천'의 영역이 된 것이다.

그는 환갑이 넘어 민우회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여성운동의 조직적인 운영, 대중의 민주적인 참여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90~91년 여성단체연합회장을 맡았고, 90년 이래로 지금까지 정신대문제에 열

정을 쏟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은 민족적 분노뿐만 아니라, 역사를 경험했던 개인적 분노 때문이라도 더욱 발벗고 나서서 뛰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은
민족적 분노뿐만 아니라,
역사를 경험했던 개인적 분노
때문이라도 더욱 발벗고
나서서 뛰고 있다.

한과 일본여성들의 토론회에서 그는 정신대는 '일본군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선의 부녀자를 강제연행하여 성노예로 삼은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집단적 강간행위일뿐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려는 범죄'라고 열변을

토했다. 92년 그는 미국에 건너가 정신대 문제를 유엔에 접수, 조사·해결하라고 요구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직접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자상한 배려를 잊지않는 스승

"아프다, 피곤하다 하셔도 일 보시려 외국에 나가시면 기운이 펴릴 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생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을 못하시지요"라고 한 후배는 말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도 일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생활이 불규칙해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바쁘지 않느냐, 비타민제를 복용해 보라며 늘 자상한 배려의 말을 잊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는 그, 특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약자인 사람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씩씩하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던 제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한다고 한다. 둘째를 임신한 제자들은 그래서 눈치가

보여 배부른 모습이 그의 눈에 안띠게 하려고 애쓴다. "왜 꼭 하나도 아니고 두명씩이나 낄느냐?"고 책망어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이, 아이가 여자의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됨을 알고 있기에 그런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씀일게다. 그러다가도 제자들이 애를 낳으면 잊지 않고 축하카드를 보내주신다고 한다.

또한 후배를 챙기는 모습은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직접 복사해서 두루두루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쉽지 않을 그러한 배려는 몸에 뱀 그의 습관이기도 하다.

그는 건강관리에도 매우 철저해서 등산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도봉산 등산코스는 거의 다 섭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뚫이 산을 잘탄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스스로 일을 조절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는 경로증으로 무임승차권

을 받아 지하철을 애용한다. 자가용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안샀고, 택시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잘 안탄다. 그리곤 걷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는 말을 덧붙인다.

옷은 대부분 짙은 시장물건인데, 자신에 어울리는 목거리 등의 작은 장신구를 이용해 멋을 내기도 해서 그의 패션감각은 종종 젊은 후배들의 '유크한'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한다.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영원한 현역

여성운동의 대선배로 자주 보였지만 이 글을 위한 두번의 만남에서 비로소 필자는 주위 사람에 대한 그의 잔잔한 배려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가까이서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평생을 여성학자로 사회학자로, 여성운동가이며 통일운동가로 살아온 그가 차지하고 있는 스승이자 동지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도 느낄 수 있었다.

인간과 역사의 문제를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려는 진지함.

새로운 것을 향하여 머무르지 않고 늘 변화해 가려는 강한 의욕과 호기심.

고통받고 약한 인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집스러움.

바로 그러한 점이 그가 철십의 나이를 그처럼 일관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삶의 디딤돌일 것이다.

그는 "일선에서 은퇴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만 생겨서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이제 는 책도 보고 한국가족연구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싶다고 한다. 기계에 대한 약간의 부적응 심리 때문에 아직은 저항감을 느끼는 컴퓨터도 배울 계획이다.

멋있는 스승! 그리고 멋진 동지.

이효재 선생님!

그는 언제까지나 인간에 대한 애정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변화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인간과 역사의 문제를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려는 진지함.

새로운 것을 향하여 머무르지 않고 늘 변화해 가려는 강한 의욕과 호기심.

고통받고 약한 인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집스러움.

바로 그러한 점이 그가 철십의 나이를 그처럼 일관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삶의 디딤돌일 것이다.

신탁은행 연극반 '밀불'을 찾아서

계간「사무적여성」편집실



“ 자신들의 생활이야기니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아닌 극중의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갑 자기 몰아다친 더위에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벅찬 7
월의 어느날, 전득전득한 더위
를 뚫고 신탁은행 연극반 '밀
불'을 찾아나섰다.

신설동의 '우리·굿·사랑' 모
임방에 도착하니, 딸딸이 선풍
기 하나로는 막아 내기 어려운
푹푹 찌는 실내 공기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대여섯명의 선남선
녀들이 즐거운 수다를 떨고 있
었다.

93년 11월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하니, 이제서야 겨우 7개월
정도를 넘어섰다.

7개월 된 그래서 아직 햇병아
리에 불과한 연극반 '밀불'은
지난 6월에 노동조합 창립 34주
년 기념 문화대동제에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노래패 그리고
풍물패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연
극을 올렸다고 한다.

연극반원들 중에서 연극무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인천 도
당동지점의 모정신씨뿐이라고
하니, 연극반의 활동과 뒷얘기
들이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

었다.

'밀불'을 통해 건전한 노동자문화 널리 알릴터

'밀불' 사람들은 많지 않은
수로 많은 사람들 뒀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13~14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결혼 등
으로 빠진 사람들을 빼고 7명
정도로 운영된다고 한다. 대표
를 맡고 있는 유일하게 기혼인
윤정씨, 자칭 회장 심부름을 한
다는 간사 이학순씨, 보는 것만
좋아하다 배우가 됐다는 장평규
씨, 개한테 물려 연극반에 들었
다는 이은아씨(이은아씨는 장식
규 총무부장의 권유로 연극반에
들게 되었는데, 총무부장이 58
년 개띠라나!), 연극반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
다는 모정신씨, 연습하다 옮기
도 많이 했다는 연극반의 막내
이자 기동인 정윤교씨 등, 그리
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들 모두의 선생님
인 '우리·굿·사랑'의 이현옥씨
이다.

'우리·굿·사랑'은 문화운동단
체로 각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
동조합활동에서 문화패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던 노동조합과
'우리·굿·사랑'은 노동자들이
건전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
자는 목적을 가지고 연극반을
함께 만들었다. 연극반이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이현옥씨는
'밀불' 사람들이 연극의 전문적
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사로서 함께 참여해 왔
다.

"거의 모든 반원들은 6개월전
까지는 다 연극의 문외한이었습
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게 의
미가 있을 것 같고, 노조에서
이런 것을 권유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그 모임 자체에서도
뜻있고 올바른 이야기와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
작했지요" 윤정 대표는 '우음으
음' 심한 헛기침을 하며(목소
리가 실릴 것도 아닌데라는 반

원들의 야유를 들으며!) 연극반
의 의미를 정리해준다.

'밀불' 사람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신설동으로 집결한다. 아
지트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
이란? 강사가 준비한 교육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촌극, 즉흥극 등
연극의 기초를 다져 왔으며, 좋
은 연극이 있을 때는 주머니를
털어서 남의 무대를 훑쳐보기도
했고, MT를 가기도 했다. 올
4월부터는 대동제에 참가할 연
극연습에 돌입해 오늘에 이르렀
다.

6월에 그들이 올린 연극은 자
신들의 일상적 직장이야기로 짜
여져 있다. 은행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손님과 여행원간에 갈
등이 일어나고 손님이 본부에
민원을 하면서 여행원은 느닷없
이 대기발령을 받게 된다. 문제
의 여행원의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직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직원이 나서서 합심
해서 다시 그 여직원을 그 자리
에 오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관객이 얼마나 왔었냐고 물
자, 윤정 대표는 10만명을 웃돌
았다고 한다. 그리고 KBS 방
송국에서도 왔었다는데... '과연



노조 창립 34주년 기념 문화대동제 때
연극반 '밀불' 사람들이 열연하는 모습을 찰카.

믿을 수 있는 사실일까' 하고 고
개를 가우동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웃음소리가 '킁킁' 터
져 나온다. 필자는 순간 속앓음
을 알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
하자,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사
실을 실토했다.

풍물패, 노래패 등 노조 산하
각 문화패들이 그간에 닦아온
실력을 보여준 대동제는 노조에
서 하는 문화행사에 그렇게 많
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도 상당한 성과였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그들은 거기다가 관객들로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연극공연에 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인다.

올면서 새벽별 보기

다른 활동도 그렇지만, 연극
은 특히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밀불 사
람들은 광화문지점에서부터 인
천 도당동지점, 대방동지점, 오
금동지점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
다. 게다가 은행은 업무의 특성
상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퇴
근시간이 한없이 늘어난다. 그
런 상황에서 그들이 모두 모이
는 시간은 주로 8~9시.

은행에 다니면서 연극연습을
하고 무대에 자신들의 극을 올린
이들, 이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4월에 대본이 나오면
서부터 이들의 지옥훈련은 시작

되었다. 은행이 늦어져 못오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날을 다시 잡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면 그날 연습은 땀, 자신들의 생활이야기니까 어느 누구못지 않게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각각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개성을 살릴려고 하니깐 '내가 아닌 극중 인물'이었기에 어려웠다고 한다.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연극이라는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책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 닦지 않으면서 닦는 시늉을 해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매번 하는 일인데 연극이라고 생각하니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거예요" 주인공 민숙의 역할을 맡았던 이학순씨의 고백이다.

울기도 많이 했다는 연극반의 막내인 정운교씨는 "생각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하는데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관객을 위주로 어느 발이 나가야 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 발이 나가고 싶은데 관객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혼나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못한다고 혼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혼

나야 하는 건지, 너무 서러운 거예요"라고 서러움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노래패나 풍물패와는 달리 연극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들은 연습 막바지에는 며칠씩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달고서 회사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 순간 강사가 '밤을 샌전 3~4일 정도로 몇번 되지 않는다'고 하자, 모두들 아우성을 쳤다. 그들에게는 3~4일이 마치 3~4년 같았다고, 강사는 뒤뚱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라며 서운한 기색이다. 찡찡...

이렇게도 힘들었던 연극공연, 공연 끝나면서 모두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던가? "정말 극을 올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극을 끝내놓고는 안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또다시 찍는 데위에 찡통 연습실에 모였는지?

삶과 사랑을 배운 무명배우들

누군가 극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운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만 두지도 못할 것도 같구,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한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농담도 못했던 사람들끼리 막바지 공연연습을 할 때는 새벽 3~4시까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친형제나 가족들처럼 너무나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달려가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막내 정운교씨는 연극을 하고 나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지점에서 사람들이 '직장일이 바쁜데도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구나' 하며 부러워한다고 한다. 무명배우지만, 그 어떤 스타보다도 행복한 모습이다.

또한 연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모정신씨는 평소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뽀스만 입고 뛰어 보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여도 술이나 먹으

그들은 아직은 아마추어에 아마추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 건강한 노동자문화라는 항구를 향해 계속 항해할 생각인 듯하다.

면서 하소연이나 험담이나 하다가 그냥 가게 되는데, 연극반이 새로운 문화를 우리 은행에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야무진 생각을 털어놓았다. 연극에서처럼 모두들 자신 아닌 그 누군가가 되어 상대편을 그냥 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한참 열에 들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 이은아씨의 "개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연극반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강석규 총무부장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인가 보다.

은행생활에 18년을 보낸 58년 개띠. 그는 그 18년 중 노조 풍물패 터울림에서 14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 활동을 통해 문화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그것을 통해 경험을 쌓게 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얻게 되었기에 연극반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다고, 그가 연극반

에 바라는 것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연극을 통해서 전투적인 조합원들이 됐으면"하는 것 이란다. 연극과 전투적 조합원이라 어찌된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어찌보면, 연극이 인생의 모든 요소들-갈등, 모순 등을 펼치는 장이라면 그의 말은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자꾸만 길어진다. 6개월동안 한몸이나 다름없이 땀 흘렸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방인(필자와 사진기자)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마구마구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 참인가 보다. 아니, 어찌면 우리들이 그들의 활기찬 분위기에 더위도 잊고 계속 눌러앉고 싶었는지도. 이 참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밤새 눌러앉고 싶어질 것 같아 기념사진을 찍자며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들은 아직은 아마추어에 아마추어일지 모른다. 노동조합 활동과 연극공연을 접목시켜 좀 더 건강한 노동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좀더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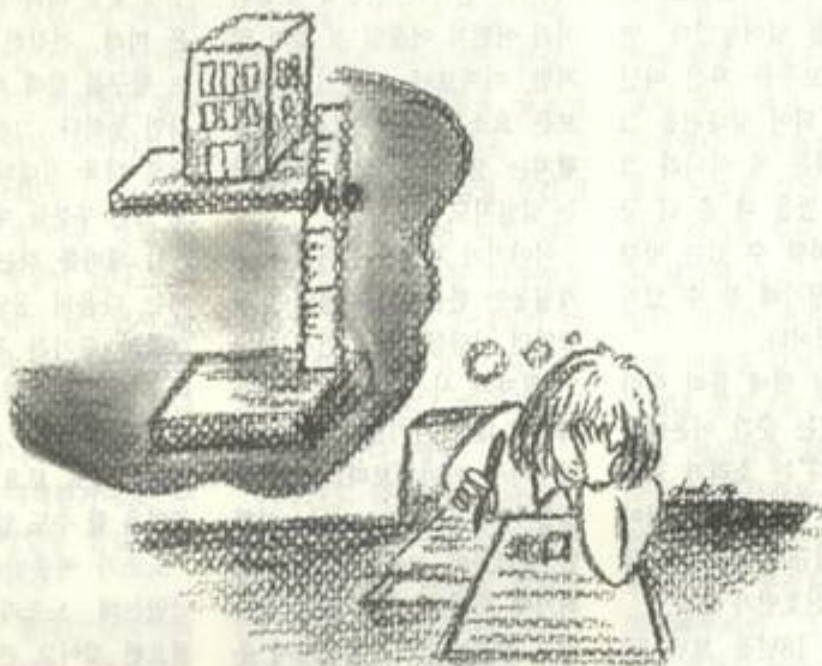
적이고 날카로운 인식의 날을 갈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 건강한 노동자문화라는 항구를 향해 계속 항해할 생각인 듯하다. 그들의 모습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일 것이다.

갈 준비를 하는 우리들의 귀에는 다음의 공연일정을 잡는 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지점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했으면 좋겠어. 굳이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조가 싸움만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노조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모정신씨, 대사와 행동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극에 몰입했던 이은아, 이학순, 정운교씨 등등. 조만간 그들의 모습을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용모제한의 전제를 해부한다



I 누구를 위한 학교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고용차별에 명드는 교육현장
상업고 여학생의 직업교육현실

II 용모제한 심증탐구

남녀차별인가, 여여차별인가?(철학)

몸의 소리

김혜숙

우유 마시고
멸치 씹는
마네킹을 보셨나요?

허기져 구부러진 허리
물로 세우는
조화(造花)를 보셨나요?

자격증 주렁주렁
근수로 나가는
악세사리를 보셨나요?

이제는 말하렵니다
자와 저울의 형틀 풀어달라고
너른 하늘 숨쉬게 해달라고

외부효과보다 능력 우선시할 때(경제학)
용모제한, 그 경제적 전제의 허구(여성학)
용모제한, 평등법 위반(법학)
용모제한에 깔린 문화적 전제(문화인류학)

III 모집채용차별의 다양한 스펙트럼

용모제한의 전제를 해부한다

누구를 위한 학교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학교가, 그리고 학생이 기업이 휘두르는 채용상의 성차별로 흔들리고 있다.
 상업학교의 목표는 '기능인 양성'이다.
 그러나 현재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그 목표와는 무관한
 '금수따기'와 '살빼기'에 여념이 없다.
 상고재학생, 졸업생의 글과 선생님의 글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용모단정', '금수따기'의 허상과 굴레를 짚어보자.
 그리고 상업고등학교 여학생의 취업교육 실태를 살펴보자.
 <편집자주>



●●● 사회에 바란다 ●●●

예쁘고 키 큰 로봇보다는

인격을 갖춘 인간을 요구했으면...

회사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취업조건을 보면
 흘러나오는 한숨.

정말 꼭 성적과 자격증의 급수가 필요한 지
 모르겠다. 이것 말고도 회사의 특성에 따라 각
 각 맞는 조건들이 있을텐데... 너, 나 할 것 없
 이 테두리 안에 박힌듯 성적과 급수요구. 이왕
 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고 싶은 회사측 입
 장도 이해한다. 또 성적과 급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 성적, 급수가
 높다고 사회생활도 100% 잘 할 수 있다는 보장
 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사회에서는 실력있는 자를 원하고 택
 하겠다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이제는 성적, 급
 수는 물론이고 외모도 많이 따지질 않는가!

실력이 있다해도 막상 면접을 보면 '키가 작
 다'고 떨어뜨리고, '뚱뚱하다'고 떨어뜨리고
 '인상이 좋지 않다'고 떨어뜨리고...

TV에서, 혹은 어른들은 우리 사회가 능력위
 주의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너무나 앞뒤
 가 안맞게 모순되는 이러한 현실이 무섭고 답답
 하기까지 하다. 또 학창시절 그 사람의 성실도
 를 본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많이 원하는데, 상
 과쪽에 적성이 맞지않아 급수가 없는 사람들은
 남들은 자격증 따기 위해 공부할 때 놀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꼭 그런것만은 아닌데...
 영어회화를 배웠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배웠을
 수도 있고...

자꾸 들어가는 성형수술 또한 그렇다. 부모님
 이 주신 얼굴 그 생김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
 아도 될텐데, 물론 예뻐지고 싶은 욕구도 있겠
 지만, 왜 더 예뻐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끝내
 그 고운 얼굴에 칼을 대야만 하는 걸까?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
 서? 아니다. 누군가 원하고 있기 때문만은 확실
 한데... 사회... 이런 딱딱하고 차가운 사회에 발
 을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
 산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똑똑하고 이쁘고 키
 크고 날씬한 로봇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얼
 마나 많은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중요하답시
 고 내놓은 것들이 기껏 급수·성적·키·몸무게·시
 력들인가?

성적과 급수, 또는 용모에 그렇게 많이 치우
 치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과 대인관계, 용모가
 단정하고 결석이 없는, 활발하고 인내성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한 사람을 취업조건으
 로 내세우는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상 자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열심히 살려는 모
 습들을 볼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밝고 정
 의로운 학교, 사회, 나라가 되지 않을까...

(조여삼 3학년 최선미)

고용차별에 멎드는 교육현장

○○여상 3학년 담임교사

우리 학교에 취업 추천의뢰를 한 약 20여개 회사 중 추천자격에
키나 용모단정이란 제한을 붙이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기업들은 매년 용모와 관련된 자격요건의 정도를 점점 강화시켜왔다.
따라서 상고 졸업반 여학생들에게 용모단정은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올 3월부터 5월 25일 여직원 채용에 용모제한을 명시하여 44개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 위반으로 고발되기 전까지, 우리 학교에 취업 추천의뢰를 한 약 20여개 회사 중 추천자격에 키나 용모단정이란 제한을 붙이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기업들은 매년 용모와 관련된 자격요건의 정도를 점점 강화시켜왔다. 따라서 상고 졸업반 여학생들에게 용모단정은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기업의 인사관행에 휘둘리는 학교 교육
이런 기업들의 횡포를 빗대어 어느 교사가 농

담을 했다. '마치 과일가게에 가서 예쁜 사과를 고르는 식'이라고.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기업이라는 손님은 과일가게인 학교에 일찍 갈수록 예쁜 사과가 많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추천장을 보내온다. 늦게 가면 '떨어용 사과'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고학생들은 3학년에 갓 올라온 3월말이면 벌써 원서 쓰고, 접수하고, 면접을 보는 등등 끊임없이 교실의 자리를 비우게 된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학급의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마음이 들뜨게 된다. 그리고 조기취업이 확정된

2.2.3.3'의 굴레와 허상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상업고등학교(이하 상고)에 들어왔고, 취업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학 갈 형편이 안되었기에 진학한 상고에서는 등록금 마련하기에도 벅찬 가운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까지 다녀야 했다.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 딸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교공부만으로는 어렵다. 비록 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3학년 초부터 기업체의 추천을 받기 시작하는데 학교 수업만으로 2년안에 따는 것은 무리이다.

나는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 남들보다 자격증을 빨리 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다. 한 번은 꼭 따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타자 시험을 보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 만약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무사히 시험을 끝냈을텐데... 결국 나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시 도전했고 그리하여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했다. 2학년 말 나의 자격증은 주산 2급, 부기 2급, 한·영타 각 2급씩 해서 모두 2급이었다. 자격증을 땀을 때 나는 벌써 취업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쁨을 느꼈다.

상위권의 성적과 올 2급의 자격증으로 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사무실에는 주산 대신에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차변과 대변만 구별할 줄 알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 경리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 보았더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부기의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은 학창시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렸던 자격증은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졸업 이후, 나는 주산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내가 배운 부기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다. '타자 대신 컴퓨터를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고 생각한 적도 많다. 결국 자격증이란,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리한 학원비와 학원에서 보냈던 시간들과 노력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내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노력과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을 후배들이다. 차라리 학창시절 자격증 취득에 쏟았던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다른 지식을 얻는데 투자했으면, 직장생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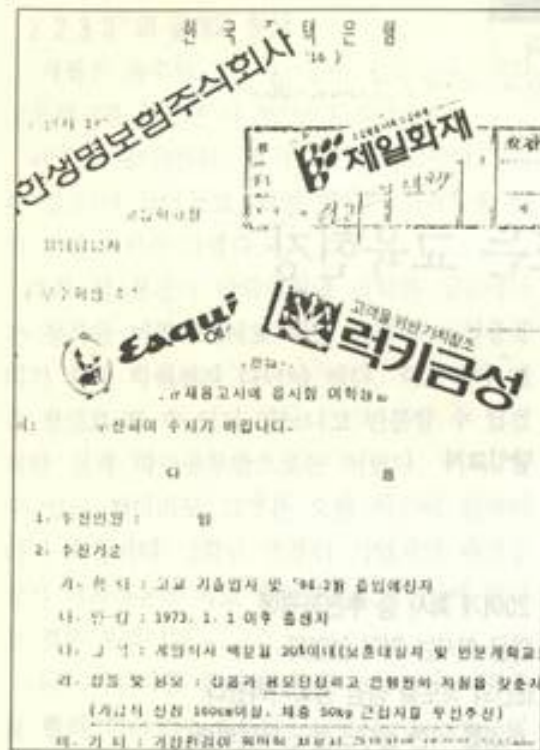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다. 그렇다면 쓰이지 않을 것들을 위해 낭비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인재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부추기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후배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현재 모 기업에 근무하는 여상 졸업생)

주)취업의 필수 조건인 2.2.3.3은 부기·주산 각각 2급, 한·영타 각각 3급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갖게되는 자만심과 게으름, 취업이 안된 학생들의 걱정과 고민으로 상고에서 3학년 수업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체 인사담당 직원들이 학교에 직접 나와서 '가면접'이라는 것을 하고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2학년 인사과 직원들이 학교에 와서 3학년 각 반에서 1명씩을 뽑아 면접을 보고 마음에 안든다면 다시 각 반에서 1명씩을 더 뽑아 결국 30명이나 면접을 보는 통에 학교 수업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 5명을 뽑아 회사로 데려가서 다시 2차 면접을 하여 최종 3명만을 합격시켰다.

8중권에서는 인사과 직원들이 와서 각 반 1

명씩 십여명을 가면접 하더니 그 중 3명을 뽑아 데려가서는 아예 1명도 합격시키지 않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가면접 제도는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판을 기업체에게만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적 현상에 긴밀하게 적응하여 오히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먼저 취업담당교사가 이와 같은 가면접을 실시하고 난 후, 아이들을 선발하여 기업체 면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서 좀더 나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0상고의 경우에는 한 회사의 취업추천이 들어오면 그에 참여할 각 반의 대표 학생들이 자기 반의 번호표를 들고 교장실에 쫓 들어갔다가 나오면 교장이 나중에 몇번, 몇번...하고 지적인 번호의 학생이 그 회사의 면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사무직 고졸여직원을 뽑는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매년 인사과 직원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원서접수시 키를 실측할테니 160cm미만 학생은 절대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다니며, 또 실제로 원서 접수시 키가 1cm 모자라서 접수를 못하고 그냥 온 학생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지원서 양식을 보면 부모의 학력이나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상태를 표기하는 난이 있어 가난한 학생, 부모의 학력이 낮은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본의 아니게 학생들 동의하여

학생들은 약국에서 개당 100원씩에 쉽게 살 수 있는 '이노제'를 사먹는다.

이것은 먹다가 중단하면 소변을 못보고 몸이 붓는다.

그밖에 손발이 저리거나 발에 쥐가 나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거짓으로 그 난을 메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어떤 기업은 우선으로 "양부모들 중 한쪽이 없는 학생은 배제해달라"든지 아니면 "특정지역 사람 배제" 등을 요구하기도 하여 교사들을 쓸쓸하게 한다.

취업을 위한 다이어트 1,095일 작전

1,2학년 때 자신보다 성실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해왔다고 생각되는 아이가 단지 자신보다 용모가 낫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좋은 직장에 추천받고 합격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갈등과 시기가 교차된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취업조건으로 학생들은 교사, 학교를 포함해서 가정인과 사회 전체에 대해 두려움과 배신감,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에어로빅을 하거나 살빼는 차를 마시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취업기준에 맞추려 애쓴다. 즉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안먹고 잔다든지 1,2학년 때 안경을 쓰고 다니던 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콘택트렌즈를 끼고 다닌다든지 또 방학이 끝나면 여가저기 쌍꺼풀 수술한 아이들이 눈에 띈다. 그중엔 수술이 잘못돼 오히려 얼굴이 이상하게 되어 볼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학생도 있다. 아침마다 매점에서 체질에도 맞지 않는 우유를 사먹는 학생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심신수련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먹고 물만 마시는 학생도 보았다. 그리고 특히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 학생은 어머니를 졸라 한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피부과에 다니기도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아 어디에선가 이야기를 듣고는 알로에를 삶아서 피부 마사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되어 여드름이 더욱 많아지고 피부를 긁으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서 고민하기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약국에서 개당 100원씩 밖에 안되어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노제를 사먹는 것이다. 이것은 먹다가 중단하면 습관성이 되어 소변을 못보고 몸이 붓는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밖에 손발이 저리거나 발에 쥐가 나기도 하고, 어지럽고 빈혈이 생기며 나아가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설사약(비코사이드, 돌코락스)을 먹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가격이 100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복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사약은 효과가 강해서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설사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속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외에도 한약, 야채효소, 구기자차를 먹거나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 피부에 무엇이 난 학생도 있고, 잠이 안오는 약을 먹거나 일부



러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무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돈을 절약하거나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돈을 타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님들 역시 취업걱정이 크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을 사주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과연 한 반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살 빼기 위해, 키 크기 위해, 예뻐지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노력을 했는가를 알아보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하며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한 반에 10~20명 정도 되었다.

거짓말쟁이 선생님의 고민

상고 학생들은 어찌되었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또는 성적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상고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학기 초 1학년 수업을 보강할 때이다.

새 교복에다 아직은 친구들과 학교가 낯설던 학생들에게 보강용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수업 중에 졸업 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너희들은 비록 명문도 아닌 상고에 입학하였지만, 이제 과거는 지나갔

상고생들 중 80%를 차지하는 여학생들이 용모제한으로 명들고 있다.
정부와 교육계,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물음이다.

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다 취득하면 너희들도 그런 언니들처럼 멋진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그맣고 새까만 그리고 뚱뚱한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내 이야기를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내 마음이 덜컥 내려 앉았다.

'저 아이는 아닌데...'

저 아이는 앞으로 밤잠 안자고 노력해서 전교 1등을 한다면, 모든 자격증을 다 취득한다면 안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문계에 입학한 아이들이 일류대학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듯, 상고 아이들도 대기업 취업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렇다면 나는 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과연 저 아이들에게 고교 3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노력하라고 말해야 하는가? 착한 인간이 되라고?

나는 교사로서 심한 좌절감과 갈등에 빠져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고발, 그 후의 이야기

고발 사건이 TV, 신문에 보도된 다음, 기업체에선 공문에는 키 제한 등을 표기하지 않지만 별도의 전화 등을 통해 제한을 요구해오는 경향이 있어 기업체들의 성차별 관행이 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직종에서는 용모제한이 어쩔 수 없다느니, 남녀 차별이 아닌 '여여 차별'이라거나 "자기 돈 주고 부릴 직원, 자기 맘에 드는 사람 뽑아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등의 그럴듯한(?) 괴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재벌이 자기 돈 가지고 우리 나라 땅을 다 사든, 쌀을 다 사든 자기 돈 가지고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율과 도덕이 있다. 인간의 가치와 창조성과 소질을 한낱 몇 눈금의 줄자와 체중계 바늘과 속된 외형적 모습에만 두는 관습은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얼마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올해부터 대학본고사 폐지를 건의했으며 그에 대해 대통령과 교육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반대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과연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개선이 인간을 참되게 만드는데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중요한가? 우리나라 고교생 중 상고학생들은 전국에 40여만 명이 있고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수의 비율은 6:4라고 하며 98년까지는 5:5로 만든다고 한다.

상고생들 중 80%를 차지하는 여학생들이 용모제한으로 명들고 있다. 정부와 교육계,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물음이다.◆

상업고 여학생의 취업교육 현실*

이 제 진 한국여성연구회 회원

흔히 상업고등학교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상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고생들 모두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이 나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공부 해도 대학 못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 못가고 지방대학이나 갈 거면, 아예 돈벌어 혼자 자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고 왔어요. 상고에 오면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상업계냐, 인문계냐’를 따지기에 앞서 ‘대학이냐, 취업이냐’를 먼저 고려

하고, 크게 승산이 없을 듯한 입시게임에 매달려 ‘돌러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경제전선에 뛰어들기를 선택하는 상고생들이 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남들 다 가니까 으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일면 훨씬 용감하거나 개척정신을 가졌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어쨌든 이들은 어느 정도의 취업의지를 가지고 상고에 진학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취업준비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의지나 자기 앞가림을 하려는 개척정신은 취업의 관문에서부터 두꺼운 벽에 부딪친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취업의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

는 부기, 주산, 타자 등의 온갖 자격증을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따고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려 할 때, ‘용모제한’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력보다는 용모를 중시하는 취업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과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과연 학교는 3년동안 어떠한 직업교육을 시켜 왔는가? 기업이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없이 용모를 기준으로 단기적 인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는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왔는가?

상업고 여학생들은 사무직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교육 실태를 통해 사무직여성의 직업준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장래의 사무직 여성들이 학교에서 받는 직업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의 여성직업인, 직업교육의 부재(不在)

상업고등학교는 실업교육을 통한 ‘기능인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능교육이란 곧 급수취득을 일컫는 것이며, 부족한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과외로 학원을 다니면서 급수취득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사무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된 사무노동에서 부기, 주산 등의 급수는 ‘기능’의 의미 보다는 ‘성실성’의 척도로 요구된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상업학교는 일단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학교를 평가 받는 척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학생

들이 ‘취업 후에 무슨 일을 하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상업학교의 목표는 ‘기능인 양성’이 아니라 ‘취업률 올리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학교측의 태도는 취업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용모단정’이라는 기업측의 요구에 순응하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업무에 불필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취업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파낸 급수도 사실상 취업에 임박해서는 외모라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밀려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어떤 항변을 제시하기는 커녕 3학년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좌를 실시하기도 하며, 쌍꺼풀 수술을 권유하고, 한명이라도 조건에 맞는 여학생들을 찾아서 기업에 보내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학교 학생이 뽑혀가기 전에 일단은 자기 학교 학생을 한명이라도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적 좋은 놈 보낼려는 건 학교 입장이고, 기업에선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실제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한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이 글은 글쓴이의 석사학위 논문인 ‘상업고 여학생들의 노동준비과정을 통해본 적응과 소외’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요약, 재구성한 것이다.

“○○선생님이 취업시켜준대요, 키만 더 크래요”

급수의 불필요성과 취업조건으로서의 외모는 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맞추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여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태도를 배운다.

직장인이 되는 것, 꽃이 되는 것

한편 직업인양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학교에서 급수취득 이외에 학생들을 직업인으로 훈련시키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며, 오히려 학교에서는 짬짬이 직장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태도를 이야기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성다운 몸가짐이나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요구받는다.

“여자답게 되라고 강조해요. 앉는 자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찍와서 책상 닦아 놓고, 자기가 맡은 일은 정확히 하고 퇴근도 늦게 하라구요. 어떤 언니는 딱히 할 일이 없어 화장실 청소를 했다가 높은 사람 눈에 띄어서 잘 풀렸대요”

학교에서의 직장예절교육은 직장에서 주어지는 업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과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한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태도 또한 학교의 취업전략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데, 선배들이 잘해줘야(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다음 해에 또 원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측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졸업생들의 태도를 격려하기는 커녕 그들의 노력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서며, 재학생들에게는

미리 순종적인 태도를 주입시킨다.

그동안 상고생의 증가는 여학생수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는 또한 단순사무직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직업인양성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고는 여학생들을 ‘예비주부’로 인식하고, 결혼하면 그만둘 임시 노동자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여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커녕 ‘직장의 꽃’으로 존재하기 위한 예절을 강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는 하지만 교사들 스스로 예쁜 여학생들에 주목하고, ‘다홍치마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얼굴 이쁜 것도 돈 버는 거예요”, “공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면 인물이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서글서글하고 말 잘하던가 그런 것도 주어진 것이거든”

“우리들 스스로도 대기업에는 남학생이 더 많이 취업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박힌거죠. 여자는요, 아무데나 쫓이고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많아요. 여학생들한테는 어지간하면 거기 가서 경리나 봐줘라 그런 식으로, 왜? 맘에 안들면 시집 가면 그만이거든”

또한 미래에 여학생들이 담당할 업무가 단순 보조적인 것이고, 여학생들은 결혼하면 그뿐이라는 인식은 교사들로 하여금 여학생들의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소홀히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여학생들은 스스로를 ‘결격자’로 인정함으로써 열등감에 빠지고, 이를 근거로한 불이익에 무기력해지게 된다. 따라서 담당교사에게 정보

이거나 쌍꺼풀수술 등을 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조건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열등감, 직업의식 약화

한편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업고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상고생으로서의 열등감을 갖는다. 상고생으로서의 열등감은 딱히 인문고생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마치 인생의 승패가 대입에 달려있는 듯이 몰아부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정말 공부 안하는’, ‘그래서 이제는 머리가 굳어버린’ 상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착잡함을 느낀다. 입학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의지를 가졌던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 애써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지만 ‘목표없는 상고생’으로의 규정에 동의하고, 스스로 열등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상업고 여학생들은 특히 교사들의 상고생에 대한 무성의나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느슨한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한층 직접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얘기할때 보면요, 무슨 어려운 말이 나오면 아이고, 애네들이 알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선생님들도 자존심이 상한대요. 상고에서 가르치는게”

그러지 않아도 이미 대학생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조차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된다는 느낌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한층 낮추어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여학생들은 학력차를 건너뛰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킴으로써 취업당시나 직장생활 속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조건이나 처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소극적인 불만감을 표현할 뿐이다.

또한 그와 같은 취업과정을 통해 애초에 성별로 분리된 업무와 직급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상업고 여학생들은 아예 남성을 제쳐둔 채로 여성들만을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선배나 언니, 그리고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취업 후 자신이 담당할 업무가 그다지 가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평생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영부영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노동현실에 대한 정보나 문제의식 없이 단순 임시노동자로서 직장의 문턱을 넘는다.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뜻있는 교사들, 여성단체 등에서 용모제한이 불법적이고 성차별적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상업고등학교들, 그리고 교육부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당장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행여나 불뚝이 튀지는 않을까 한껏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용모제한 심층탐구

지난 5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직원 채용에 용모제한을 명시한 44개 기업체를 고발했다.
용모제한의 위법성을 근거로 한 이번 고발사건은 여직원 모집채용상의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사자인 상업고 여학생들, 학부모들의 격려전화도 많았으며, 이를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지향하는 교수들의 의견발표회도 있었다. 다음에는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모집채용고발사건대책교수모임'에서 주최한 의견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실는다.
아래 글은 철학, 경제학, 여성학, 법학, 인류학 등 각 분과학문별로 용모제한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편집자주>



용모제한, '남녀차별'인가, '여여차별'인가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철학과



1994년도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해 기업이 추천의뢰서에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현대, 한 일간지는 이와 관련한 기사에 "남녀차별인가, 여성간의 차별인가"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이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만일 이번 사건이 소위 '여여차별'인 경우, 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 글에서는 '여여차별'이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며, 모집채용에 있어 여상고졸업자들에 대한 용모제한은 명백한 남녀차별임을 논하고자 한다.

차별과 차등의 혼동

헌법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 (discrimination)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나 언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 모두 성이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을 매개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차별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출신지에 의한 차별, 용모에 의한 차별, 부(富)에 의한 차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간의 차별, 혹은 법조계 일각에서 이를 붙이는 소위 '여여차별'의 경우는 어떠한가?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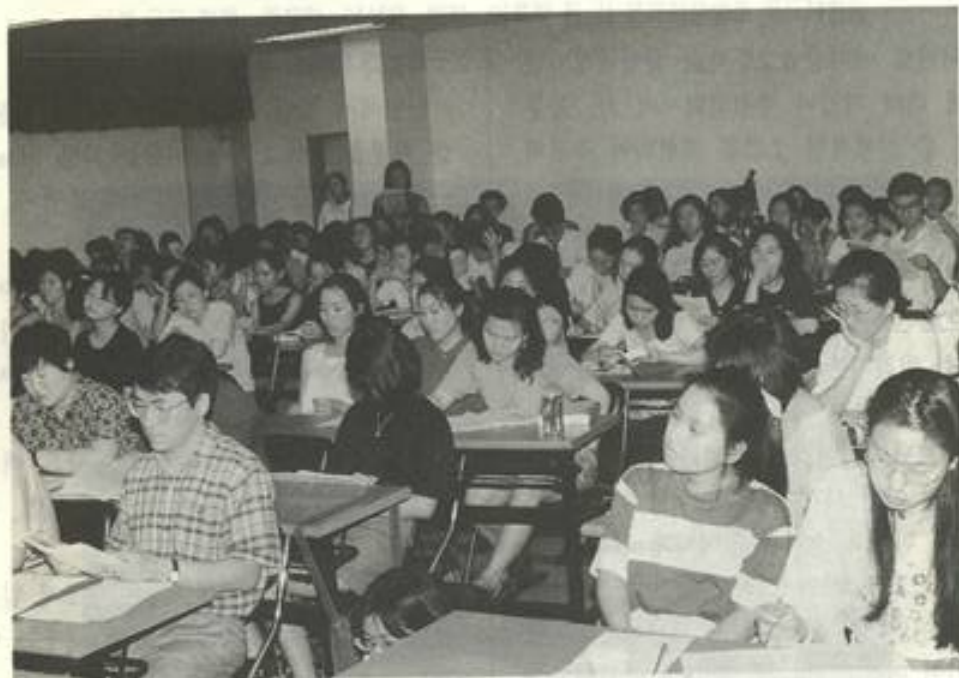
리적 일관성이다. '여여차별'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것이 다른 종류의 차별에서처럼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혹자는 '용모를 매개로 한 여성들 간의 차별'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용모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용모에 의한 차별이 되려면 남녀 모두에게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이 채용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채용에 있어 용모조건이 남녀 모두에게 제시되었다면, 초점은 용모에 의한 인간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가의 여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 사이의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등화이다. 이제껏 남

성에게는 제시된 바 없는 cm와 kg의 구체적 단위로 명시된 신체조건을 여성들에게만 채용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들의 신체조건을 남성들의 편의대로 불필요하게 세부적으로 차등화한 남녀차별이다.

그것이 남성들의 편의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용모제한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날씬한 여성을 표상화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160cm이상의 키에 50kg이하의 몸무게를 가진다는 것은 한창 식욕이 왕성하고 발육이 활발한 건강한 여고생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여차별'이란 우리가 '차별' 개념을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은 고졸여성뿐만 아니라, 대졸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수의건발표회에 많은 여대생들의 눈이 쏠린다.

사용하는 논리와는 다른 논리에서 쓰여진 것이며, 인간의 권리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하여 법적 차원에서 주의깊게 사용되어야 할 차별의 개념을 '차등' (classification) 개념과 혼동하여 부주의하게 마구 사용한 데에서 잘못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는 다음의 가상의 예들을 통해 '여여차별' 개념이 갖는 불합리성을 보다 잘 볼 수 있다.

〈예 1〉 일제시대 때 만일 일본인들이 일본인은 천성적으로 청결함과 위생을 중시하고 한국인은 그렇지 못하므로, 비위생적인 쓰레기를 다루는 일에는 한국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청소원을 모집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채용조건으로 친척 중 반일투쟁을 한 사람은 일본인이거나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거주지 공무원에게서 받아오게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신분보장증명서는 다른 직종의 일본인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요구된다고 하자. 이것이 민족차별인가, 아니면 한(韓)차별인가?

〈예 2〉 흑인들이 백인 보다 낮은 대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음감이 좋고 춤을 잘 춘다는 판단하에 흑인들로만 현대 무용수를 채용한다고 하자. 이 때 무용을 관람하는 사람들 중에는 백인들이 많으니까 백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백인들이 좋아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백인과의 혼혈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고 하자. 어차피 흑인들의 춤이란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므로(여성들의 능력의 차이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듯이), 이로 인해 무용수가 되고자 하는 흑인들은 머리를 누렇게 염색을 하고 피부를 표백하는가 하면 성형수술까지 감행한다고 하자. 이것이 인종차별인가, 흑흑(黑黑)차별인가?

여자상고 졸업생들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용모제한은 직종구분의 형식을 가장하고 있는 남녀차별의 예이다. 외국의 경우, 연공서열에 따른 해고에 있어 과거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적었던 관계로 연장자들의 대부분이 남자라고 한다면 연공서열이 낮은 순서에 따른 해고대상에 남자가 끼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적인 남녀차별의 경우로 보고 있다. 즉 형식적 조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조건이 과거 또는 현재의 유형, 무형의 제도로 인하여 특정한 성에 집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성을 매개로 한 제도적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교원원 조기정년퇴직제를 남녀차별에 근거한 직종 구분에서 생긴 불합리한 제도임을 판시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자교원원 3명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차원에서 남녀차별이 아니라 할지라도 43세 정년이라는 조건이 특정 성에 집중되어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녀차별을 금하는 헌법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자와 저울을 든 자가 누구인가?

모집, 채용 상의 용모조건은 여성들만을 대상

외부효과보다 능력 우선시할 때

김애실

한국의국어대 교수, 경제학



U 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WTO체제가 출범하여 세계의 무역질서와 규범을 관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곳곳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만이 한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자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모집,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관행은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성차별 의

식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염려스럽다.

이 글은 최근에 발생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사건을 계기로 고용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효율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성차별적 관행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사람'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만이 할 수 있는 일(목욕탕 근무, 유모 등)이나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을 용서자격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의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여차별'이라고 한다면,
그 야만적 중립성을 위장하고 있는 얼굴의 주인은 여자라는 말인가?

50kg이 훌쩍 넘는 그 술하게 많은
여자들의 질투가 만들어낸 심술의 결과인가?
자와 저울을 든 자가 누구인가?

화시켜 키와 몸무게로 차등짓는 남성본위적 사고에서 나온 불합리한 조건이다.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남성들이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남성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키가 작고 뚱뚱하며, 배가 나왔으며, 안경을 쓰고 있고, 대머리가 저있나를 생각해 보면, 직장여성에 대한 신체조건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설정된 것인지를 묻게 한다. 심지어 용모가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되는 TV앵커의 경우에도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앵커들에 비해 불쾌한 인상까지도 주는 남자앵커들을 보면 용모조건이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으로도 어쩔 수 없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용모에 의한 차별은 그것이 남성에 대해서이건 여성에 대해서이건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차별의 문제가 된다.

차별의 개념은 인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특정 조건을 매개로 그 가치를 특정 집단 내에서의 차등화한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정 하위 집단 내에 이 개념이 쓰이게 되면 그 보편적 가치지향성은 상실되어 버려, 성차별, 민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개념들이 쓸모없게 되

어버리고 만다.

'여여차별'이란 개념이 허용되면 성차별 개념은 무의미해져 버리며,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받아들이려 하는 차별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칙상 막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성차별은 '여여차별'로 환원시켜 말할 수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민족차별을 '한한차별'로, 인종차별을 '흑흑차별'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개념들을 무화(無化)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여차별'과 같은 것을 더 세분화하여 모든 차별을 '개인간 차별'로 환원하여 말하게 되는 불합리함도 원칙상 막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여성들을 키와 몸무게로 차등짓는 것에 남성의 주관성도 배제되어 있고, 남성본위적 사고방식도 배제되어 있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라서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여차별'이라고 한다면, 그 야만적 중립성을 위장하고 있는 얼굴의 주인은 여자라는 말인가?

이 모든 논쟁이 160cm도 못되면서 50kg이 훌쩍 넘는 그 술하게 많은 여자들의 질투가 만들어낸 심술의 결과인가?

여성을 여성들에 대해 차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와 저울을 든 자가 누구인가?◆

채용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여성들의 미모를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는 구태여 성역할 분담이나 직업분리현상 등이 근거한 이론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기업주들은 여성의 미모는 고객의 만족을 높여주고, 함께 일하는 남성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름다움이 주는 외부효과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노동력 고용의 기준은 직접적인 생산과 서비스의 기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지, 간접적인 외부효과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인력이건, 남성인력이건간에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능력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기업과 능력은 뒤져도 신체조건이 좋은 여성을 선호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분석할 수만 있다면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뿌리는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다시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엄밀하게 말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WTO체제하의 시대는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단일화된 세계시장 안에서 기업과 기업, 산업과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능력의 제고, 혹은 총체적 경제효율의 제고를 통해 우리의 경쟁 입지를 강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이 합심하여야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알고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야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산업구조의 개편속도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체들도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거의 연공서열적 인사관리제도에서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양성과 효율적 배분이야말로 세계경제전쟁에서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한국기업이 국제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디자인능력, 기술능력, 경영관리능력, 품질관리능력, 연구개발능력 등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도 이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능력있는 여성들에게 취업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성차별 의식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용모제한, 그 경제적 전제의 허구

조 순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이 글에서는 키,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기업의 모집채용 원칙이
실제상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모집, 채용상의 차별은
채용 이후의 다른 형태의 차별을 은폐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80년대 후반 이래 사무 및 판매, 영업직 여직원의 모집채용 조건으로 키,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제한이 점차 강화되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키,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기업의 모집채용 원칙이 실제상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모집, 채용상의 차별은 채용 이후의 다른 형태의 차별(업무배치, 교육, 임금, 승진, 승급 등)을 은폐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용모제한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능력에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의 인간 사이에는 능력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법적 취급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절대적,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승강기 안내 업무내용 중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다.

승강기 내 단추 조작을 위해 키가 160cm 이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50kg 이상의 체중을 승강기가 감당할 수 없어

승강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합리적 차별'은 (1)차별의 수단이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어야 하고, (2)그 차별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체들의 채용상의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모집대상 여성들의 직종은 주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 승강기 안내원, 도소매업의 판매원 및 판매안내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의 사무직 및 서비스직 등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고객들이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과연 판매원이나 직원들의 외모 혹은 신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즉 업무 수행상 이들 자격요건이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아래에서 직종별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승강기 안내원

조흥은행의 승강기 안내원 채용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신장 162~167cm, 체중 50kg 이하, 시력 1.0이상인 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 안내 업무내용 중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다. 승강기 내 단추 조작을 위해 키가 160cm 이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50kg 이상의 체중을 승강기가 감당할 수 없어 승강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더더

욱 아니다.

▶일반 사무직

사무직의 경우는 그 어떤 직종보다 뚜렷하게 키나 몸무게, 용모 등이 업무수행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혹자는 일반 사무직업무에 종사할 여성들의 모집채용과정에서 키, 몸무게 등 용모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의 하나로 '다홍치마론(論)'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이왕이면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다.

사무직 여사원의 채용에 용모제한을 두는 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깔고 있는 이 논리는 동일한 사업장의 남성노동자들이 여자 패션모델의 외양적 미의 기준에 맞는 키 크고 날씬한 여성들 옆에서 일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증대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남성 노동자의 채용시에도 남자 패션모델의 체격조건과 유사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판매직원 및 금융업의 창구업무직

최근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백화점의 경우 판매원의 판매실적은 경력, 근속년수, 그리고 작업속달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지 용모나 키,



노동자의 키를 카운터의 높이에 맞추기 위해 채용과정에서부터 신장제한을 해야 하는가?

몸무게 등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고객들은 판매원이나 창구담당 직원의 외모보다는 서비스의 질(친절, 정확함, 신속함, 성실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은 위법한 고용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규정으로, "특정의 사무 또는 사업의 통상활동을 위하여...상당한 정도의 '진정한 직업자격요건'의 필요상 '종교, 성,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고용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진정한 직업자격요건'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사용자측 또는 고객의 기호를 이유로 채용상의 차별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디아즈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디아즈라는 남성은 여자승무원만을 채용하고 있는 펜 아메리칸 항공사에 대하여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를 주장하며 민권법 제7편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사측은 승객들이 여자안내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객실 봉사업무에 여자승무원이 더 적합하고 편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 직종이 여성이어야만 할 이유, 또는 남성 고용이 사업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고객의 기호 정도로는 사용자측의 '진정한 직업자격요건'이 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규정이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고객들이 키 크고 날씬한 여성판매원이나 창구직원, 승강기 안내원 등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체조건을 제한을 두어 채

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업 창구직 업무의 경우, 일부 피고발 기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물리적 작업환경이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은행창구의 카운터 높이를 조정해야지 노동자들의 키를 카운터 높이에 맞출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모집대상 직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능력은 키, 몸무게 등의 외양적 신체 조건이 아니라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능력, 지구력, 위기대처능력, 판단력 및 대인관계 형성능력, 협외력, 표현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보통 하루 10~12시간)을 서서 일을 해야하는 백화점 판매직원의 경우, 업무수행상 건강한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채용과정부터 채용 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 노동과정에서 기업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 왜곡된 미의식을 각인시킨 결과, 적지않은 수의 판매직 여성노동자들은 빈혈과 영양실조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병으로 인해 잦은 결근과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력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업의 고객확보와 경쟁력제고에 용모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피고발인들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구의 논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피고발인들이 이러한 채용관행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기본적으로 모집직종의 업무수행상 키, 몸무게, 용모의

조건들이 노동과정상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이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발 기업체들 내에서 이들 직종에 키나 몸무게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성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중대 요소임을 밝혀야 할 것이며, 동시에 키와 체중이 기업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낼 수 없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입증해야 할 것이다.

차별의 사슬: 또 다른 차별의 정당화

용모제한과 같은 성차별적 채용방식은 채용 이후의 성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용모나 키,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 제한에 의해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여성인력일지라도 모집, 채용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되게 된다. 이같이 모집, 채용과정에서 수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채용 이후의 임금, 승진, 승급과정에서 여성사무원들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게 된다. 이같이 모집, 채용상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바탕으로 또다른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차별의 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성차별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용관행은 최근 대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는 능력주의 인사관리제도에 의해 또한번 여성들에

기업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

왜곡된 미의식을 각인시킨다.

그 결과 적지않은 수의 판매직 여성노동자들은 빈혈과 영양실조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대한 차별을 은폐하고 정당화된다. 한편으로는 능력주의 인사관리제도 아래 노동자의 '능력'을 창조력, 판단력, 기획력, 협외력 등에 의해 측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에게는 그 능력과는 무관한 용모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된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모집, 채용관행은 채용 후 여성들에 대한 성적 희롱으로 이어지게 되는 점이다.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업무와는 상관없는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모집함으로써 남성들은 동료 여성노동자나 부하직원을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된다.

여성의 능력보다는 용모를 중요시하는 모집, 채용관행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이 별다른 지식이나 숙련,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발 기업체 중 전체 성적 30%이내에 들어있는 여학생을 추천받는 주택은행의 인사기획부 직원은 "30%안에 포함된 여성들이면 일등이거나 30등이거나 은행쪽에서 보면 똑같다"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말에는 '여성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며 따라서 지적 능력 등에 따라 일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

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성의 일'은 과연 단순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절대적 의미에서 '단순한 일'은 없다. 실제로 구체적인 노동과정을 살펴볼 때, 통념적으로 '단순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과 작업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별분업관념은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일'로 규정한다.

여성이 수행하는 업무와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의 모집, 채용시 여성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아닌 체격이나 용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계속 허용될 때, 업무의 성격과는 별도로 '여성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도 않은 일'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단지 여성이 수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일은 단순한 일로 규정되어 그 직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고, 나아가 성차별적 저임금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다시 여성의 일을 '단순한 일'로 규정하게 되어 모집, 채용시에 능력보다는 외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용모제한, 평등법 위반

김 엘 립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법학



모든 인간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할 기회를 가지며,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남녀평등한 근로권의 보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권보장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체들의 모집,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행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에 있어 남녀격차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여성의 용모제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 여성의 용모와 관련한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남녀차별관계소송은 그 차별방법의

원시성으로 인해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1970년대에 미국에서의 간접적 성차별과 일본에서의 계약갱신거절권 남용에 관한 판례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그 후 여성의 용모와 관련한 고용차별판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용모요건에 용모를 제시하는 경우도 없었다.

●미국의 판례(도타드 대 롤린스사건, 1977)

앨라배마 주의 교도소는 교도관직을 모집하면서 성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교도관 규칙에 따라 신장 5.2피트(158cm)이상, 체중 120파운드(54.5kg)이상의 자격요건을 제시하였다. 대학에서 교정심리학을 전공한 22세의 여성은 이 교정직에 응모하려 했으나 체중이 115파운드로서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응시가 거부되자, 이 교도관 규칙이 신체적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여성의 고용을 배제하여 고용상의 성차별

을 금지하는 공민권법 제7편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지방법원과 미국 대법원은 교도관 규칙의 자격요건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 그러한 신체적 조건에 미달되어 배제되는 미국여성은 41.3%나 되는 반면, 남자는 단지 1%만이 배제되는 점에서 이 자격요건은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남녀간 현저히 불균등한 비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이 입증된 이상, 차별적 성향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 역시 문제가 된 자격요건이 교도관으로서의 직책수행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그 교도관 규칙이 공민권법 제7편 위반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판례(에어프랑스 항공사 사건판결, 1974)

에어프랑스 항공사의 취업규칙은 일본인 스튜어디스에 대해 정년은 35세로 하지만 본사 승무원본부가 개인의 전반적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한 40세가 될 때까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 스튜어디스가 2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지만, 신장 158cm에 체중이 60kg이 넘자 근무평정에서 "실루엣, 걷는 자세, 동작이 둔하므로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 때문에 거듭되는 상사의 조언으로 피로와하며 약을 복용하였다.

그 후 체중을 57kg까지 감량했는데도 항공사

측은 비대해진 용모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3회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그 스튜어디스는 지위보전의 가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항공사측은 '객실승무원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스튜어디스의 몸매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년연장의 결정적 요인은 스튜어디스의 이미지에 맞는 용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동경지방법재판소는 항공사측이 계약갱신의 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경우에 준하여 자의적으로 권리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됨을 전제하고 모든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의 용모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37세인 신청인의 용모가 스튜어디스 근무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히 일그러진 것은 아니며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여전히 용모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계약갱신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동향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의 2). 다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와 같이 모성보호와 잠정적인 여성우대조치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동법 제6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경제적 자립과 일의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면서 평생 일할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2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제23조 2항).

평등법 제2조의 2에서 규정된 차별의 정의규정에 의해 대체로 여성개인의 능력과 자질, 적성을 기초로 판단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형적인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모집, 채용과정에서 여성에게 남성보다 불리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또한 여성에게만 혼인상태나 임신여부를 문제삼아 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무처리규정의 성차별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법무처리규정」은 평등법에 따라 노동부가 1992년 2월에 예규로서 마련한 것이

다.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공무원의 남녀고용평등업무 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재판부가 성차별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차별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당해 직무의 성질·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1항).

따라서 생래적이고 속인적인 성격이 강한 키나 몸무게 등의 요건들을 여성에게만 적용하여 채용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노동부 예규 제209호 4조 2항에서 규정한 차별의 유형 중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조건

을 부과하는 경우(2항의 3)"와 "채용의 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23항의 7)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판단된다.⁹⁾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에 관한 판례

평등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모집, 채용에 관한 성차별을 둘러싸고 발생한 판례는 2건이고 모두 형사판례이다. 이들 판례에서 법원이 성차별이라고 인정한 기준은 당해 직무가 여성이 수행하기가 부적합한가의 여부였다.

●서울지역 여대생협의회 등의 사원모집광고 고발사건(1989년)

신도리코(주), 동아제약, 대한교육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등 8개 회사가 사원모집시 지원자격을 남자로 한정하여 모집광고를 낸 것에 대하여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당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평등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1989년 11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지검 형사 2부는 이들 기업체들이 신규채용하고자 한 직종이 영업직,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부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원모집대상을 남자로 한정하는 회사의 조치는 평등법 제6조에 위반되는 성차별조치임을 인정하고 1990년 3월 24일 4개 기업체 법인과 그 대표 4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0년 5월 26일에 당해 회사와 그 대표들에게 검찰의 의견대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특히 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사업주가 성차별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이면서 구직자에 의해 제기된 첫번째 고발사건이다.

●전주예수병원의 인턴채용차별사건(1990년)

전주예수병원은 1989년 12월에 인턴과정 전공의(專攻醫) 15명을 모집하면서 여성인턴 합격자를 4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남성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게 된 여성응시자가 평등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위 병원을 1990년 5월에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기소장에서 전공의 임용시험에서 남녀차별 없이 성적순에 의해 합격자를 사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33명 가운데 9위를 차지하여 합격권안에 충분히 든 여성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성차별이며, "외과 등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레지던트 과정에서 외과인력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병원경영상 여성을 달리 취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형사지방법원은 1991년 8월 19일 당해 병원 원장에게 평등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1백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주)「남녀고용평등법무처리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계간「사무직여성」92년 가을호를 참조할 것.

여성용모제한: 인권침해와 평등법 위반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고발된 기업체의 여성 용모제한 모집관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평등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고발된 기업체가 모집하는 직종은 금융계, 대기업에 종사할 사무직, 백화점과 항공사에서 근무할 판매직, 서비스직 등이다. 이러한 직종에서의 직무수행과 응시자격요건으로서 158~160cm의 키와 50~60kg이하의 몸무게는 상호 필요불가피하거나 실질적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고객의 기호, 기업이미지의 제고, 경쟁업체인 타사와의 비교' 등은 기업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하고도 정당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고발된 44개 기업체 중 27개업체(61.4%)가 키 160cm이상을 요구하고 13개업체(19.5%)가 158cm이상의 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키 160cm이상, 몸무게 50kg이하 또는 키 162~167cm, 몸무게 50kg이하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었다. 그런데 1994년 한국여성의 평균키는 158cm, 몸무게는 53kg(1992년도 학생의 표본신체검사현황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17세) 여학생의 평균키는 158.59cm, 체중은 53.98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측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자격요건은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한국 여성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키를 제시한 경우라도 그 키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 기준 또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고발된 기업체가 사원모집 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여성에게만 적용하였고 그 기준이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이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결국 이것은 여성에게 고용상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수이상의 여성에게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기회조차 봉쇄한다.

이것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기초위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고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진 성에 의한 구별, 배제, 제한'인 여성차별에 해당된다.

넷째, 기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익과 제한함으로써 유지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익형량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여성에게만 용모를 제한요건으로 부과하는 사업주의 모집, 채용 차별은 명백히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남녀평등권(제11조, 제34조 4항)과 근로권(제3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고 위반한 조치이다.◆

특집 II

용모제한
심층탐구

용모제한에 깔린 문화적 전제

조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문화인류학



근대초기 엄격한 남녀유별의 사회구조가 무너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져 왔다. 여성은 더 이상 '三從之道', 곧 가정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권을 행사하고, 폭넓은 문화생활을 하고, 장기간 학교를 다니고 직업훈련을 받으며, 또 직장생활을 한다. 이제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가정'과 '사회'라는 두 영역에 걸쳐서 일할 권리, 삶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그렇다.

현상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이제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직장진출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근대 초기에 직장을 가진 이들은 소수의 선각자들이거나, 공장노동이라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여성들로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양극화는 최근까지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이유로 취업을 원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일의 경험과 일터에서의 인간적 상호작용이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자아실현'과 같은 꿈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삶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의 욕구는 근대 100여년을 지나 오면서 달라졌고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것은 대중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적 변화상황을 보면 여성이 평생 일할 권리를 갖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행적인 움직임들이 보인다. 왜 그럴까? 이 글에서는 여성취업에 있어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들

“ 점심시간에 멋있는 아가씨들이 정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과
 뚱뚱하고 뚱뚱한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회사의 기분에,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상 별로 좋지않죠
 멋있는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면 현대적이고 생동감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세대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

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파행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모집채용차별에서 용모제한을 둔 현상을 문화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키 크고 예쁜 여자를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

기업측에서 용모를 중시하는 이유를 간단히 들어보자. 모집, 채용차별사건과 관련하여 텔레비전에 나온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사무보조 업무니까 웬만한 고졸이면 일은 해 내지요. 오히려 대외적인 이미지를 따지게 됩니다. 키도 훤칠하고 용모가 좋으면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라고 말한다.

서비스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상냥하고 말씨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늘씬한 여성”을 뽑는 것은 당연하며,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1~2년 후에 대학진학을 위해 기업을 떠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예쁜 여성은 빨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어 비용절감이 된다”라는 말도 하였다. 기업 나름대로 젊고 예쁜 여자를 잠시 쓰다가 내 보내는 것에 대한 계산이 서 있는 것이다.

기업의 단기적 이익만을 생각할 때 이런 결론

은 아주 합리적인 것일지 모른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대로 길러 내지 못하고, 똑똑한 여사무원들은 학력중심사회에서 대학에 가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은 이왕이면 잘생긴 용모를 가진 여성들로 분위기를 잡아서 장사를 좀더 잘해보겠다는 것이다.

경영학 전문과정에 있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점심시간에 멋있는 아가씨들이 정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과 뚱뚱하고 뚱뚱한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회사의 기분에,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상 별로 좋지않죠. 멋있는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면 현대적이고 생동감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세대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볍게 만나 질문을 던져본 경우나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온 경우 모두, 응답자 남성들은 한결같이 “공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용모가 채용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누구를 뽑아도 그런 수준의 단순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고 멋있는 여자가 낫다”는 식으로 답하고 있다.

엠비에이 과정에 있는 젊은 남성들과 이 문제

를 토론하는 중에 “키제한이 기능적으로 신장조건이 중요한 스텝어디스 채용기준에서 시작되었을텐데 그만 너무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렸다. 누군가는 이어서 “노가다들이 많은 현장에서는 용모가 좋지 않은 여성을 일부러 뽑는다”고 했다. 여기서 누가 ‘키 크고 이쁜 여자’를 보는 주체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무실은 손님들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키 크고 이쁜 여자’들이 필요하고, ‘노가다’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이쁘지 않은 여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인가? 또 손님들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점잖은’ 일반 남성 직원들을 위해 이왕이면 날씬하고 이쁜 여자를 뽑는다는 것인가?

그런데 은행에 ‘미녀’들이 있어서, 또 백화점에 ‘미녀’들이 깊숙히 절을 하고 로버트처럼 팔다리를 움직이며 승강기 안내를 하고 있어서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하지만 사무직원의 용모가 중요하다면 남성들 역시 잘 생기고 키 큰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회사에 가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 이는 결국 남녀 사이의 역학관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아가씨/아줌마의 이분법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기업측의 태도와 기본적인 전제를 읽어 보도록 하자.

먼저, 키를 제한하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 것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문화 풍토, 즉 “여자에게는 막 대해서도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을 읽을 수



강남에 위치한 어느 성형외과 광고전단그림. 미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있다. 또한 “그냥 키로 팔라버리지. 그 많은 사람 면접하기 귀찮은데...”라는 식의 인사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들도 일반 사무직에 키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집없이’ 그런 공적인 문서를 만들고 각 학교에 돌렸다는 것은 이들이 ‘헌법은 여자에게는 적용되는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남자사원을 채용할 때도 외모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남자사원 모집에 키 제한 공고를 낼 생각을 그들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측,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적어도 여자에 관련한 ‘공식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을 '모성적인 착한여자'와 '이기적인 나쁜여자'로 구분하던 것에 더하여 데리고 놀 수 있는 '아가씨'와 그렇지 못한 '아줌마'의 이분법이 생겼다. 그 이분법에 따라 '배불러서도 계속 직장'에 나오는 아줌마는 꼴불견'이 되고, 아가씨들 중에서도 더욱 '아가씨'적인 여성들을 뽑으려다 보니 키와 몸무게와 생김새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회박하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다는 정도의 사회의식은 가져야 하는데, 여성에 관한 한 그 기준마저 흐려질 정도이다. 우리 기업담당자들의 준법정신이 이런 수준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

다음으로 여성의 직업활동을 보는 전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들을 남녀유별적인 직종분리로 묶어놓은 관행으로 인하여 지금의 취업구조는 여성들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여성 사무직의 경우에 경쟁이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양질의 인력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때 그 기준은 고용주측에서 정하게 된다. 최근에 여성취업에서 용모가 중요해진 것도 이러한 상황적 특성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여성에게 '외모'의 잣대를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시키게 된 이면에는 여성의 직업활동을 보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다. 먼저 사무직 여성의 일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보조적인 일로, 단지 '아가씨'가 하는 일이라는 전제를 읽어낼 수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가씨'들이 잠시 밖에서 경험을 쌓다가 '아줌마'가 되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대판 '미풍양속'이 되고 있다. 안채/사랑채로 나뉘어온 남녀유별의 원리가 20세기에 들어서서 가정/사회'의 이분법으로 굳어

지게 되고, 직업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모성'을 저버린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다가 21세기를 바라보는 마당에는 아가씨/아줌마의 이분법의 구도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여성을 '모성적인 착한여자'와 '이기적인 나쁜여자'로 구분하던 것에 더하여 데리고 놀 수 있는 '아가씨'와 그렇지 못한 '아줌마'로 구분짓는다. 그 이분법에 따라 '배불러서도 계속 직장'에 나오는 아줌마는 꼴불견'이 되고, 아가씨들 중에서도 더욱 '아가씨'적인 여성들을 뽑으려다 보니 키와 몸무게와 생김새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움으로 이익을 챙긴다

여성 자신들도 이러한 이분법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맞추어 가고 있다. 아가씨/아줌마의 이분법은 실은 소비자본주의사회가 만들어낸 모형일 것인데, 모든 여성들은 이런 구도에서 텔레비전 광고모델 아가씨와 비슷해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우리는 은행이나 병원 창구에서 한결같이 같은 방식으로 화장을 한 '아가씨'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이러한 아가씨의 모습이 미화되면 될수록 '아줌마'의 자리는 하락하고, 그래서 주부들 사이에서도 '아가씨같은 애엄마'라는 '미시족'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여성들에게 '모성적인 여성'이 아니라 '아가씨'같은 여성이 되는 것이 목표

가 되었다.

이 현상은 이제 여성이 '모성적 존재'로서 보다 '성적인 존재'로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직장 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임자있는 물건'인 '아줌마'를 데리고 노는 것은 불문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남자간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임자가 없는' 아가씨들은 데리고 놀아도 좋고, 그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다. 60대 이후의 남성들이 다방이나 술집에서 '아가씨'를 찾아왔듯이, 지금 많은 남성들은 직장에서 손쉽게 얻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사무실내 '아가씨'들을 데리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내 여사원을 이제는 공식석상에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그동안 호칭에 관한 여성들의 투쟁을 통한 변화이다- 일상적 대화 속에서도 여자의 몸매를 눈요기감으로 쳐다보는 시선에서 아직도 내심 그런 범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을 여전히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시선이다. 남녀의 억압관계는 결국 '남성적 주체'가 여성을 대상화해온 것에서 찾아질 수 있다. 지금 길게 내다볼 줄 모르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앞장서서 여성들을 주체적인 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거꾸로 여성의 대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용모가 중요하다면, 소비자의 대부분인 여자들에게 남자의 용모가 중요한 것이라는 계산

역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일관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으로 고착된 남성주체의 시선을 본다.

그리고 그 시선에 아주 쉽게 말려들고 있는 여성들을 본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성자들의 자아정체성이 이 틀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있다. 외모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 채용된 경우, 채용된 여성 자신도 암암리에 자신의 신체가 '중요한 자원'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성적 존재로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낯선하고 예뻐지기'에 더 주력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여학생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도 여학생들이 끊임없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외모가꾸기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본주의사회가 부추기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소극적 적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에게는 '젊음과 미모'가 최우선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을 고급인력으로 기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주체적인 몸가꾸기가 필요한 때

고용평등은 단순한 이념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이상적 개념이 아니다. 경제발전과 포괄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산업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사회원리이다. 채용을 결정하는



사실상 채용시의 외모차별은
고용차별 이상의 심각성을 지닌다.
한 성(여성)이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방조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물화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리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남녀유별적이고 남존여비적인 고정관념을 현대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치열한 경쟁사회가 오더라도 우리나라만은 남자들만으로 너끈하게 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회발전을 꾀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도 않고, 기업의 이윤을 장기적으로 계산해 낼 저력을 가질 정도로 안정되어 있지도 않음을 볼 수 있다. 대기업 회장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합리적 채용을 정착해달만한 문화적 수준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전히 생존의 차원에서 허덕이며 누구를 밀쳐버릴까만을 생각해야 하는, 독점적 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키가 작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또 하나의 '장애자' 집단을 만들어 놓고 회회낙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실력'보다 '백'이 더 중요하고, '학력'이 더 중요하고, '나이'가 더 중요하고, '출신지역'이 더 중요하고, '외모'가 더 중요한 사회에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

외모와 성적 매력이라는 문제가 사회전면에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현상은 또한 무엇을 시사하는가? 사실상 채용시의 외모차별은 고용차별 이상의 심각성을 지닌다. 한 성(여성)이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방조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물화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구성원을 성적존재화시키는 초기 단계에 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조하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내고 흐름을 돌리려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온 교사들의 당혹함, 입사원서도 내지 못하는 키작은 딸을 둔 부모의 미안함, 싸구려 성형수술의원을 찾아 다니고 빈혈로 쓰러지는 학생들의 아픔을 직시하는 것은

많은 젊은 여성들은 상업주의 광고모델들이 부추기는 모습에 가까이 가면서 그것이 바로 개성시대의 자기표출이자 자아실현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신이 진정 성적 대상물이 되지 않으려 면,
여성들은 이러한 자기 분열적인 의식 속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단지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막아내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계속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젊은 여성 모두가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리개감으로서의 자아 정체감 속에 갇혀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곧 남성들도 외모와 성적 매력으로 규정당하게 되어 사회는 실력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정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는 지킬 수 있으면 한다.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여전히 농경적인 발상에서 '인력'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인력을 기르기 위해 기업이 불합리한 문화적 전제들을 과감하게 깨뜨려가야 하는 시기에 그런 전제들을 오히려 지속시키고, 편승하여 풍돈을 버는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기업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기업은 먼저 상업계 학교에서 질 높은 산업역군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출선해서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결국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주체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

는 것을 뜻한다. 여성들이 그러한 시선을 가지려는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의 의미를 알아가야 한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상업주의 광고모델들이 부추기는 모습에 가까이 가면서 그것이 바로 개성시대의 자기표출이자 자아실현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신이 진정 성적 대상물이 되지 않으려면, 여성들은 이러한 자기 분열적인 의식 속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실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외모에서도 뒤지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가씨'도 '아줌마'도 아닌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함으로써 그 이분법을 깨뜨려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위기상황에 대한 불감증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이다. 이제 세삼스럽지만 공공의 원리를 세우고 법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회운동을 일으켜 가야 한다. 딸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람'을 길러가야 한다.

‘딸’을, 자신의 학생을, 직장동료를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시선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소외 즉, 인간의 몸을 대상화시키는 것을 막는 길이다. ◆

모집채용차별의 다양한 스펙트럼

정 양 회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 부장

이 장에서는 옹모제한을 통한 모집채용차별뿐만 아니라, 채용방식, 눈에 보이지 않는 면접차별, 신종 차별인 직능차별, 고용형태차별 등의 다양한 모집채용차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고민해보자.

〈 편집자주 〉

고졸여성 모집채용상의 차별문제로 집단 고발이 있고 난 후 면접시 차별을 경험했다며 상담을 청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모집채용 추천장에 명시된 가시적인 차별보다는 면접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고도 기혼,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집단고발 이후 오히려 그동안 공문 등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던 차별이 감추어지지 않겠느냐, 집단고발의 형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한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은 더

욱 드러나기 어렵기에 가장 노골적인 옹모제한의 문제를 모집, 채용상의 모든 차별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집, 채용상의 남녀차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채용방식과 고용형태상의 차별, 직종·직급·직무에서의 차별, 군복무를 한 남자에게 가산점 부여, 여성채용비율을 남자에 비해 낮게 제한하는 것, 옹모단정·미혼·저연령 등 여성에게 부가기준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남성, 여성으로 분리된 직종군을 형성하게 한다. 여성개발원의 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최근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학교를 돌며 '가면접'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취업담당교사들이 이를 요청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사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 섬유, 금융업에 여성들이 집중되는 성별 분업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모집채용상의 차별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여사원 채용방식-비공개, 연고, 현지채용

우선 기업체의 여사원 채용방식을 살펴보자. 고졸여성들의 주된 취업경로는 비공개채용, 연고채용, 현지채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991년 2월 여성민우회가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집채용방식에 있어서 고졸여성은 학교추천(46.2%), 공채(27.7%), 연고자소개(23.1%) 순서이고, 대졸여성은 공채(36.1%), 학교추천(34.4%), 연고자소개(24.6%) 순서로 나타났다. 고졸남성은 공채(42.4%), 학교추천(33.9%), 연고자소개(13.6%) 순서이고, 대졸남성은 공채(65.5%), 학교추천(24.1%), 연고자소개(6.9%)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채비율이 낮으며 고졸은 대졸에 비해 공채비율이 현저히 낮다.

고졸여성 채용방식의 50%를 차지하는 학교추천방식은 학교추천—(가면접)—서류전형—본면접—신체검사(적성검사, 인성검사)—채용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고졸여성 채용방식에서 학교추천방식은 특히

기업체의 학교교육 종속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생명보험사는 추천의뢰서에 '용모에 중점을 두어 면접할 예정이니 주지하시라'는 주문을 하는가 하면, 「생명보험사는 '합격 후에도 학교측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입사 후 적응 및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적 사정(진학, 건강)에 의해 조기퇴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단계에서 선별해 줄 것'을 특별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취업담당교사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또 그 기업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요구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학교를 돌며 '가면접'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취업담당교사들이 이를 요청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사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기업체의 요구를 무시 못하고 있다.

여사원 채용방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지채용이다. 남성들은 본사에서 채용하여 지방으로 발령(물론 연고지 배치가 원칙)받게 되는데 반해 여성들은 지역단위로 채용된다. 현지채용은 여성의 단기고용, 단순보조업무, 승진상의 불이익을 예정하는 것이다. 「보험에서는 실제로 현지채용된 여성들에게 승진을 하면 지방발령을 내렸으며 승진을 포기하면 연고지근무를 계속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집채용방식의 차별은 임금 및 승진



지난 5월 25일 전교조와 민우회에서 경충 앞에서 용모제한 건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의 차별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민우회의 위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기업체의 경우, 모집채용방식이 동일한 곳(공채이든 비공채이든 남녀가 같은 경우)의 고졸남녀간 임금격차는 남자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임금이 85~100인 반면 모집채용방식이 다른 곳(남자는 공채, 여자는 비공채인 경우)은 78~83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종종 여성이 공개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및 업무배치상, 승진상의 불이익을 준다. 남녀분리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사용자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채용되었으므로 남녀 동일직급, 동일호봉 부여가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모집채용상의 차별이 채용 이후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집채용차별의 유형

모집채용차별의 다양한 유형을 각각 살펴보자.

명시적 차별: 용모제한, 자격제한, 직종제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집직종에 관계없이 고졸 여성 추천의뢰서에 키 몇cm 이상, 몸무게, 몇kg 이하, 시력, 용모단정, 안경착용불가, 주산·부기·타자 몇급 이상, 미혼일 것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여성채용비율을 남자보다 낮게 책정하고, 군복무를 한 남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여성에게는 특히 낮은 연령을 요구한다. 이는 모두 공식적인 추천의뢰서나 채용조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명시적인 차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집채용시의 직종차별, 직종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신체제한, 자격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에서는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예쁘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의류는 판매직, 경리직 모두에게 같은 신체조건(신장 160이상, 용모단정)을 요구하였고, 자유용은 계산직, 사무직, 매표직 등 그 분야가 다른 업무에 사람을 뽑으면서 동일한 신체조건(신장155이상, 용모단정, 안경착용불가)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특정한 모집직종과 용모제한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필기시험을 보는 8전자도 신체조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며, 8물산은 입사서류에 신장, 체중, 비교정시력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직무수행과 거의 관계가 없는 자격증 요구나 여자에게만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성차별이다. 2여상을 졸업하고 현재 은행에 근무중인 한 여성은 '학원비가 없어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원을 다녀 주산, 부기, 한글타자, 영문타자 모두 2급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이 거의 쓸모가 없으며, 약간 사용하는 주산도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직종, 직무에만 여성을 주로 채용하는 것도 성차별이며, 이것은 여성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업주들이 용모제한이나 자격제한을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고졸여성들은 대부분 사무보조직, 경리직,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채용된다. 2백화점의 경우

여자는 판매직, 안내직, 사무직으로 남자는 관리직으로 모집하면서 남자의 자격조건은 전학년 성적 30%이내와 용모단정을 요구하고 여자는 용모단정과 신장 158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의 성적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모집채용시의 직종차별, 직종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신체제한, 자격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에서는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예쁘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비가시적 차별: 면접차별

은밀하게 진행되어 규명하기 어렵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이 면접차별이다. 국가기관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기뻐했던 한 기혼여성은 면접에서 탈락되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면접시험관은 '남편이 뭐 하길래 이제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며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원서접수를 따로 하여 여자원서는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거나, 인턴제로 채용한다면 여자 예겐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기업들보다는 면접기회라도 주는게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럴바에야 처음부터 면접에 부르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분노를 토로한다.

면접시의 차별은 여자들에게 던져지는 특정한 질문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결혼 후 계속근무를 할 것인가?(결혼퇴직제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 가정과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기혼, 임신여성을 지방발령 낸 적이 있는 기업)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가?(가전회사, 통신, 개발리스, 생명 등), 노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여성들이 중심인 노조를 성공적으로 탄압한 적이 있는 증권, 생명보험 등)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여성은 결혼하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여성에게는 일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여성은 단기 보조적인 인력이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지금도 결혼퇴직종용이 지속되는 것,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여성 출신들을 기피하는 것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는 여성의 자기개발과 지속적인 사회노동에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사원 면접시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남사원들과는 달리 가정환경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인사담당자들은 '여직원 채용시에만 적용하는 선발기준'의 첫번째가 가정환경, 두번째가 용모 및 인상이라고 답변하였다. 35개 기업의 신입여사원 면접 채용내용을 보면 71%인 25개 기업이 아버지의 직업을 질문하였다. 가정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한 졸업생은 모은행 면접시험에서 아버지가 없는 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한다. 이는 아버지가 무직이거나 결혼가정에서도 좋은 품성을 기르며

성실하게 살아 온 많은 학생들에게는 사회가 주는 또 하나의 소외일뿐 아니라 주체적인 사회인으로서 한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신종차별: 직능차별, 고용형태차별

직능차별, 고용형태차별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시작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신종 차별이다.

직군을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저임금, 승진제한, 보조업무로의 고착을 특징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는 기업측에서는 합리적인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직군구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지 이동여부를 직군구분의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변경이 여의치 않는 여성들의 현실을 악용하는, 결국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 간접적 성차별이다. 은행은 고졸여성의 모집직종을 일반직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대졸여성에게는 종합직 추천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직군구분이 성차별을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만을 시간제, 계약직, 촉탁직, 파견사원으로 대체하는 고용형태차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부 유희노동력 활용이라는 차원으로 얘기되던 시간제를 졸업예정자이며 미혼인 여성들을 모집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은행은 1993년 11월 고등학교 졸업이상 만 25세미만의 여성 83명을 시간제로 채용하였다. 은행도 정규직 여성과 함께 동시에 같은 학력의 여성들을 시간제로 채용하였고 15개 은행의 시간제여성들은 3년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하였다. 노동부지침에서 규정한 30.8시간 이하의 실

여사원 모집, 채용상 차별은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 구조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가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인식도 바꾸어 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인 단축근로를 하는 시간제가 거의 없으므로(은행의 시간제노동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7.5시간) 이것은 또하나의 성차별이다.

예비취업자가 항의의 힘을 모을 때

여사원 모집, 채용상 차별은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 구조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가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인식도 바꾸어 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집, 채용차별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 최고 25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칙은 이것이 의외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모제한의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고용상의 차별이 결합된 문제이고 직능차별이나 고용형태차별은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열등하며 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여기에 여성실업률의 증가와 여성의 저임금 유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최근에는 불법 인력파견업체의 마수가 학원가로부터 고등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 인력파견업체는 파견인원 중 20%를 학교측에 의뢰한다고 한다. 추천의뢰서에는 인력파견업체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파견업체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다. 교사도 속고 학생도 속아

입사하게 되는 것이다. 신인사제도에 의한 직능차별, 고용형태차별과 함께 이러한 신종차별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간접차별도 위법적인 성차별임을 분명히 하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모집채용방식에서의 남녀차별은 기업체의 요구에 의한 학교교육의 종속과 성차별임금, 승진상의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집채용방식은 남녀 모두의 공개채용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상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추천이 곧 취직을 의미했던 예전과는 달리 학교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시험을 보거나 각 학교에서 3내지 5배수의 학생을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경쟁이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추천방식이 예전에는 특정학교의 취업률을 높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차피 난전(亂戰) — 무차별적 경쟁상태 — 인데 이러한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모집, 채용상의 다양한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비취업자인 당사자들의 항의와 폭로가 일차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실질적인 차별규제를 위한 정책, 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등), 노동조합의 노력(적정인원 유지를 위한 노력, 공개채용원칙의 확립 등), 직업훈련기관의 활성화,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국가정책적 규제 필요

이 수 연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 간사

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기혼여성인데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7급 공무원으로 2살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30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동사무소로 이곳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발령 받은 곳입니다.

저는 업무상 행사를 기획하고 인원을 동원하느라 동사무소의 행정 차량편으로 운전기사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차량으로 함께 움직이는 기사(30대 중반의 기혼자, 기능직)와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러저러한 고민을 들어 주기도 하면서 직장 동료로서의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 ○월 ○일 주부백일장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운전기사가 어느 집 앞에서 차를 멈추더니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의 인간관계상 아무런 의심없이 그 기사에게 '택시인가 보죠? 들어가서 사모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죠' 라고 하고는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런 기척이 없어 '사모님이 안 계시냐?' 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러 가겠다고 해서 방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어느새 그가 옷을 벗었는지 팬티 하나만 입은 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씨' 하고는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뿌리치자 그는 저의 반

팔뚝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고 그 상태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이 안보이게 마이를 걸치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는 동사무소로 돌아와 사무소 앞의 쉼터에 앉아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차를 마시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시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계속 가슴이 떨려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 날은 부득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 기사는 언제 동사무소로 돌아왔는지, 제가 집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찾아와서는 '아무에게도 얘기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남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저에게도 예의바른 편이었으며, 평소에 사회적인 문제, 혹은 부부간의 관계나 성문제 등 이것 저것 물어와 저는 성의껏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고는 하였습니다.

답)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일반 직장이나 대학에 이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발생했다는 점, 미혼이 아닌 기혼 여성에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여성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귀하의 동료였던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귀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즉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상담을 청하신 귀하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는 저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의중을 떠보고 관심을 돌려보려는 알뜰한 수작이 아니었나 싶군요. 그 일이 있던 그 날에도 그는 '우리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라고 강조하였고 다른 직원이 차를 함께 타려고 하자 '○○씨만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내가 총각만 같으면 ○○씨에게 프로포즈 하겠는데...' 라고 한말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차량으로 함께 움직이며 마주 대한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고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로 저의 인생이 그냥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는 인간으로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성희롱을 경험하신 귀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귀하는 그 날 입고 있었던 찢어진 블라우스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비닐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해 두십시오.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억이 선명할 때 그 날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이 기록 또한 귀하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직장내 성희롱문제는 피해자 혼자서 싸안고 넘어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성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할 때는 피해를 당한 장소, 시간, 날짜와 그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당신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귀하의 느낌(분노, 모욕감 등)은 어땠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내 여직원모임에서 혹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일어난 사건의 내용과 귀하의 피해와 분노를 귀하의 동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귀하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귀하의 동료들도 소극적으로 그냥 덮어두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귀하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억울함을 걸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인 동시에 대응책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문제는 피해자 혼자서 싸안고 넘어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성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 직원과 함께 그 가해자를 다시

만나서 그날 성폭력 사건이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나 혹은 이야기의 녹음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함께 만나는 동료직원이 그 사람이 안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녹음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 혹은 이 문제에 대한 동료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최고 인사책임자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정도에 따라서 각서쓰기, 감봉, 부서이동, 대기발령,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경미한 성희롱이 아니라 강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아 해임과 파면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총무처에 이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띄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행정부내의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로 정신적으로 힘겨우시더라도 귀하의 적극적인 행동이 많은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차근차근 해결하고 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상담, 그 후

몇차례의 상담 후 내담자 이모씨는 가해자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은 시인하였으나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만을 반복하였다. 이모씨는 가까운 동료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주겠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이모씨는 그 후 직장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이번 일을 알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사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그 기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모씨의 피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이모씨가 입을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징계위에 회부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해임, 파면 등)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성희롱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모씨는 어떤 방식으로 이번 일을 매듭 지을지 계속 고민하였고 이 와중에 가해자는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표는 곧 수리되었고 이미 사표수리가 끝난 일이라 징계위에 회부하기도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다.◆

참 관 만

직장내 성폭력 관련 법 조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10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추행이라고 함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예, 상대방을 나체가 되게 하거나 음부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 등)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피보호 감독 부녀 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최 명 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부 간사

사용자는 촉탁, 계약직 등 단기계약의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 기간의 경과 후에도 반복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을 쓰므로써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박탈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반 복되는 계약갱신, 그 갱신기간이 되면 계약직 노동자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회사측 마음대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이와 같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계약직, 촉탁직 등 임시직 형태의 고용은 최근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탄력적 인력활용을 내걸고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는 촉탁, 계약직 등 단기계약의 형

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 기간의 경과 후에도 반복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을 쓰므로써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박탈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저는 87년부터 영남대학교 부속시설인 보건진료소에서 촉탁으로 근무해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92년 9월 25일 학교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허○○ 간호사입니다. 처음엔 촉탁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수습이라고 생

각하고 열심히 일해왔었죠. 그러나 그럴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학교측 또한 이사회에서 제 문제가 제기되어 직제 개편시에 정식사원으로 처우해준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측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온 겁니다. 거기다 선심쓰듯이 제가 원할 경우 시간제로는 계속 근무해도 좋다는 내용을 첨가했던군요. 저는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년전 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에 접수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단기로 계약된 임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허○○ 간호사의 경우, 학교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면담과 건의를 통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다가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신청인은 1985년 3월 1일 영남대학교 부속시설인 보건진료소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년 9월 21일 연속적으로 재임용되어 1992년 9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한 인사발령을 받고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동 진료소는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 등의 사업을 하는 점으로 볼 때 현시적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이 해고된 시기를 전후로 그 사업규모나 경영형태상 특별히 축소 등의 변화된 것이 없다는 사실과 신청인을 해고시킨 이후 간호조무사 1명을 파트타임

제로 신규채용한 점 및 신청인이 92년 8월 3일 공고된 특별채용시험의 무시험 해당자이므로 시험에 응시만 했다면 기능직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케 하였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의 근무부서가 감원의 대상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동 진료소 근무자는 반드시 정관에 의한 일반직원이어야만 한다고 규정된 사실도 없이 신청인이 촉탁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90년 3월 1일 ‘촉탁직원 임용지침’이 폐기되었다 하나, 지침 폐기 이후에도 신청인은 달리 인사명령을 받은 사실 없이 동일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정관에 의한 정원의 한계 등의 이유로 임시직원 모두를 일반직원으로 신규채용하지 못하여 현재도 일부 근로자들이 동 특별채용시험 실시 전과 같은 임시직원으로 계속 근무 중에 있다는 사실 등으로 종합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계속 고용시킬 수 없다는 것에 특별히 정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92년 11월 9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계약기간 만료되어 일방적 해고 안돼

또 하나,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교육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던 유명희 외 7인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94년 1월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주목해보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해오던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시간강사들은 1986년 3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월 3일부터 시행된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에 의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행상으로는 이러한 절차 없이 기간 만료 후 3월 20일경 배포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을 함으로써 계약갱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91년 3월 21일경 학교측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13명의 재계약 탈락자를 발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연단위계약의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시행세칙상의 규정은 단지 계약갱신과 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갱신의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들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에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93다17843, 1994년 1월 11일 판결).

위의 두 판결은 노동자를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그 기간의 경과 후에도 반복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을 씌으로써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에 일단은 쐬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등의 제한」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기계약의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반드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계약을 통해 상용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정규직 노동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동등한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우회 한가족 만남의 장 — 회원 정기 월례회

민우회 사무직여성부 회원들은 매달 두번째 수요일에 서로를 확인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월례회’.
이 만남에서는 좋은 내용의 강의도 듣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듣지요.
그러다보면 어느덧 밤11시가 넘어버려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허둥지둥 집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달 월례회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삶을 점검하는 우리 민우회 회원들!
지금 당신도 회원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7월 월례회가 끝나고 회원들과 강사님이 '힐끔...' 웃으며 '찰칵'

“이제보니 오래 전부터 결혼준비를 해왔구나!”

김 미 영 자유기고가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결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 이전과 이후는 개인의 삶을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다.

그 변화의 의미와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결혼을 거리를 두고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랫동안 결혼준비를 해온 30대 초반의 한 여성의 글을 실는다.

일기, 소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씌여진 그녀의 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결혼준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편집자주〉



“넌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거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거지.

넌 좀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하나

“넌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거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거지. 넌 좀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상기된 얼굴로 말하고 있는 한 여자 앞에 나머지 두 여자는 가만히 듣고 있다. 그 중 한 여자는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나머지 한 여자는 친구의 강변에서 그의 아픔을 읽었기에 지루한 여성학 강의(?)를 참아주었다.

“난 그런 사랑병에 빠진 게 아냐. 미영아, 니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외롭고, 멋있는 남자를 사귀고 싶다는 건 니가 말한 그런 의미에서가 아냐. 그냥, 그런 사랑이라도 있으면 사는 게 훨씬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야”

나는 선영이의 눈 속에서 건너기 어려운 강을 보았다. 나의 애절함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다니. 그토록 절박하게, 그토록 온 맘을 다해 그의 삶에 충만함이 찾아들도록 원하는 심정으로 말했건만 선영이는 나를 내치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서 멀리, 멀리...

29세된 독립녀(독립녀라는 말에는 독신녀에서 느껴지는 청순맛음이 느껴지지 않아 좋다) 셋이 보냈던 춘천에서의 짧은 휴가. 이날 우리 마음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인지 뭔지 하는 지랄맞은 것 때문에 금이 가버렸다.

얼마 후 선영이, 나, 그리고 미라 이렇게 셋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나는 술찍 그 날의 마음상함

을 되돌려보려 했으나 선영이는 완고했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애긴 그만하자”며 화제를 돌려버렸으니, 난 더이상 어쩔 수 없음을,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선영의 마음이 열릴 것임을 느꼈다. 그래서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영이와 미라는 아직도 독립녀로 살아가고 있고, 난 결혼했다. 내가 위선자였나?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하려 한다. 나의 절박함에 대해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강변해야 했던 나의 갑갑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결혼이란 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두울

결혼한 지 석달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맛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시간이 좀더 부산할 뿐 난 여느 신혼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한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고, 시장도 본다. 이 일상이 바로 결혼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겁먹었던 결혼이란 게 바로 이거였나? 혼자 자문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사무실 동료인 연희씨가 뜻밖에도 이 물음에 답을 해주었다.

이삼일 전에 연희씨와 난 서로 상대방의 일기를 교환해서 읽었다. 내 지난 시절의 기록을 보

고 연희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보니 미영씨는 오래 전부터 결혼준비를 해왔구나"

뭐라구? 내가 결혼 준비를 해왔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난 결혼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이다.

난 두려웠다. 8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사랑이라는 게 족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족쇄에 발목이 잡히게 될까봐 노심초사한 건지도 모르겠다.

미라와 선영이는 직장여성이었고 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갓 들어가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하느라, 난리를 떨고 있었던 시절. 그때 세상이 날 배반해왔다고 믿었다. 약속할 수 없는 시간들, 사람들, 마음들... 무엇보다 난 나 자신에게 아무런 맹세도, 약속도 할 수 없었다.

세엿

하지만 절망에도 끝이 있었는지 뭔가 바닥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자 다시 뿔겨오르고 싶어졌다. 살고 싶다. 살아 있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고, 그래서 대학원엘 갔는지도 모르겠다. 돈도 없는 주제에, 부모가 밀어주지도 않는 주제에 새벽에 과외를 하러 속셈학원에 다니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모았다.

이때 학교는 그 이전의 학교와는 의미가 달랐다. 그냥 공부 잘하면 가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소리가 들렸다. '너의 길이야, 네가 갈 길이야, 가야해'

나는 당분간 '남자를 꿔고'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리라 다짐했다. 과제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세미나, 수업... 몸은 고되지만 정신은 아주 맑은

그런 시간들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진 절대 연애나 결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게 당시의 원칙이었다.

나의 자원들-시간, 약간의 돈, 에너지, 인간관계 등등-은 모두 나만의 것이었다. 주말엔 북한산엘 오르고 간간이 영화도 보고, 거리를 걷다가 맛있는 음식도 사먹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다. 울적하기도 하고 외로웠다. 친구를 빼앗겼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허술한 구석이 없었나 따져대기도 했다. 친구들이 "어디, 니 결혼식장에서 보자. 계란세례를 퍼부어 줄테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내 대학원 생활을 연희씨는 "결혼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연희씨 말인즉 "현실적인 뿌리를 든든히 마련하는 시기로 읽혀졌다"고, 이 대답에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늦깎이였지만 아주 착실하게 현실에 발 딛고 설 준비를 해나간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아마 내 뒤늦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단련시켜왔을 것이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하고, 인간이 일을 한다는 건 당연하고도 기본적이며, 그것들을 피하려고 잔피를 부려봤자 나중에 더 큰 장애가 되어 덮쳐온다는 걸 깨달았다. 나이 서른에야...

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을 했다.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받는다.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끊길까봐 걱정하면서 생계를 염려해야 했는데, 적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정말 살맛이 났다. 그리

하지만 절망에도 끝이 있었는지
뭔가 바닥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자 다시 뿔겨오르고 싶어졌다.
살고 싶다. 살아 있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고 나이 서른이 넘어 결혼도 했다.

네엿

결혼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지금의 남편과는 선을 본 것도 아니요, 소개를 받은 사이도 아니다. 그저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한 일년 넘게 편하게 만나다가 결혼한 것이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무난하게 결혼한 셈이다. 그런데 내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다.

당시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엇치락 뒤치락, 나이 서른이 넘어 얻은 직장(나만의 돈, 나만의 생활)을 결혼이라는 굴레(?)와 바꿀 것이냐, 아니면 결혼이라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에 발을 디딜 것이냐?'

92년 12월 20일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한 남자는 가슴 따뜻한 성의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손길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아주 오랫동안 닫혀서 열릴 것 같지 않던 마음의 문에서 빗장이 내려지고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를 전화로 얘기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아직 더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날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다.

내가 이런 작은 평정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활의 힘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삶이다. 나는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누군가를 만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갈라져야 하는 길목에서 제 갈길을 가야만 한다면 그대로 또 가던 길을 가는 거다.

우연과 만남, 그리고 그것의 이어짐 속에서 변화를 확인하는 것. 사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바람을 투영하는 것일 뿐.

93년 1월 17일

한쪽으로는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이 또 다른 쪽에는 결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 30대의 시작에 서서 나는 막연한 내 삶의 자투리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결혼은 그저 생활이라고, 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에 와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아닌 필요성이 더 커진 지금에 와서,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는 사실에 망연하다.

93년 2월 5일

밤이야. 10시 30분. 너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싫어. 네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웃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번 주에 만나게 될까? 아마 널 만나서 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될거야.

나와 결혼하는 것을 확신하냐고, 결심하고 있느냐고 묻게 될거야. 나와 결혼해줄래? 아니.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를 같이 해쳐나가보자. 내가 먼저 청혼하고 싶어. 니가 아직 말하지 않고 있으니깐. 왜 너는 아직 말하지 않는걸까?

93년 3월 1일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문제를 꿰뚫게 된 것 같은 후련함을 느낀다. 동승동 거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긴장' 해야겠다고 되뇌었다. 미라하고 '그대안의 불무'를 봤다. 지금 이 시점에 그 영화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일과 결혼, 여자의 자의식과 사랑, 그 끈질긴 힘에 대해서. 물론 그 영화가 일과 결혼을 양분시키는 극단적인 대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내겐 그 극단적 대비라는 것이 즉효약이 돼주었다.

결혼이라는 것에 마법이 걸려 있는걸까? 나는 왜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 그 사람이 내게 감정적으로 소홀하거나 뭔가 확신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땐 초조하고 자신 없어지고 그랬어. 빨리 붙들어 매놓고 싶고.

그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인가? 결혼하는 것만이 그 사람이 성실성을 보장해주는 것일까? 그 사람이 점차 초기에 보이던 급박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원상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모르게 붙들어 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결혼이라는 결론이 아니라면 주위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지. 특히 엄마, 아빠. 남자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까봐, 배반당했다는 패배감을 갖게 될까봐.

그러나 결혼이 해답은 아니잖니? 결혼함으로써 더 이용당할 수도 있잖니? 상대방의 허위를 교묘히 이용하고 덮을 놓고 적당히 긴장시키고, 붙들어 매놓고, 그러면서 서서히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와 자려고 하고 또 잤어. 물론 내가 원하던 순간도 있었지. 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아내나 된 것처럼 응해주었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거절해야 할 순간에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나를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어. 문제를 일으켜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지금 이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직도 날 필요로 하는지, 혹시 날 이용해먹고 적당히 채면상하지 않을 만한 때 관계를 끝낼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기도 해.

아니,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날 이용해먹고 아니고가 아니야. 오늘 내가 느낀 것은 바로 그거야. 사람의 행동과 말은 누구도 절대적인 진실을 담을 수는 없어. 그 사람의 감정도 파장 그 자체일 것이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야. 상황은 되어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미리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을 꾸며내지는 않아. 문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내 안의

아줌마와 독립녀는 아직도 잘 만나서 잘 논다.

수다도 여전히 편다.

독립녀와 아줌마는 화제가 달라서 친구사이가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짓말로 만들고 싶다.

색깔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 인생은 너의 것이야. 모든 것은 네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야. 너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의 의미가 될거야. 네가 네 색깔을 버리려 하면 아무도 그것을 지켜줄 수 없어. 아무도 너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

김 미 영. 운명은 너의 것이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잘해왔어. 그러나 무너지는 것도 한 순간이야.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면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는 건 쉬웠지.

자, 이제 네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 다시 좌절하고 상처입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헤어짐이 곧 상처는 아니잖니?

인간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상호적인 거야. 서로 그렇게 만든거야.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야. 니가 네 끈을 놓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려는 자세만을 갖는다면 너는 어떤 관계에서도 상처만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네가 너의 운명과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면 비록 헤어지는 결과가 있더라도 네가 안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존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일거야.

그리고 ... 다섯

그래서...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된 나는 겁나

게 두려웠던 결혼이란 걸 하고나서 겁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요란한 결혼식이 끝나자 생활이 남았고, 그 일상이 나의 변화를 다스려주었고. 그렇다. 언제나 남는 것은 생활이었다. 누구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기쁨도 느끼지만 그보다 더 길게 남는 건 생활이다.

결혼한 여자로서의 일상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또다른 변화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난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내 삶의 즐거움을 마련하기 위해 서른살까지 버텨야 했을까? 지나친 미화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른까지 몸살을 앓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이 평범하고도 귀한 진리 "남는 것은 일상이다"속에서 결혼도 고민하시고 지금의 직장생활도 잘 영위하시길...

P.S.)

일주일 전, 선영이와 미라를 만났다. 그들은 아직도 독립녀다. 아줌마와 독립녀는 아직도 잘 만나서 잘 논다. 수다도 여전히 편다. 독립녀와 아줌마는 화제가 달라서 친구사이가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짓말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아줌마가 되셔도 힘내서 삼시다! 아줌마가 되지 않아도 재밌게 삼시다!◆

퇴근 후 무엇을 하십니까? (4)

— ‘퇴근 후’가 즐거운 사람들

지운정 계간 「사무직여성」 편집위원

이번 호에는 지금까지의 “퇴근 후 무엇을 하십니까?” 연재의 마지막 정리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싣고자 한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주말에는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잠을 꼭 자기도 하는건 우리 모두에게 흔한 일이고 이들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같은 모습 속에서도 보다 뜻있게, 더 나아가 한두 가지쯤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한다면 생활 속에서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이들의 평소생활과 여가활동 방안, 그리고 여가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편집자주>

휴가철이다. 장마와 찌는 더위로부터의 대탈출을 꿈꾸는, 어느 정도는 들뜨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일하는 틈틈이, 또는 하루 하루의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취미활동을 살리는 여가와와는 달리, 휴가는 그냥 쉬기보다는 일정한 계획 속에서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가는 휴가든 쉼터여진 일상의 틈바구니를 벗어나 한숨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공통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휴가철에 시원하게 여가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을 만나러 나섰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유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 복잡한 사

회의 더운 여름날에 아주 시원한 소나기가 될 것이다.

책을 연인삼아 기쁨의 삶

문정숙(25.여)씨는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난 독서광인 만큼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한다. 본인도 자신의 여가생활 중 가장 마음에 들고 널리 권장할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

서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명덕여고 교사로 이제 근무년수가 1년 밖에 안된 햇병아리 선생님이다. 학교는 야간고등학교이지만 수업을 주간에 하기 때문에 귀가 후 저녁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정숙씨는 독서하는 시간 외에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경우가 많고 주말엔 친구와 만나거나 쇼핑을 하는,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 미혼여성이다. 그는 책을 하루에 1시간~1시간 30분 가량, 보통 1주일에는 2권 정도를 읽는 셈이고, 주로 읽는 책의 종류는 신간의 소설이나 수필류라고 한다. 워낙 많은 독서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소설, 시집 등 가리지 않고 읽지만 올해엔 담임교사가 되어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게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흥미있게 읽은 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일본 바로알기 열풍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힌 전여옥씨의 「일본은 없다」를 꼽았다.

독서를 즐기는 직장여성들에게 권장 만한 책을 묻자 더운 여름에는 많은 노력을 요하는 심자



한 책보다는 더워 속의 짜증을 식혀줄 소설류가 독서를 훨씬 즐겁게 해준다고 김진명씨의 3권 짜리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들었다. 문정숙씨는 베스트셀러라도 단순멜로나 추리물보다는 사회현상들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책을 주로 읽는다고 한다.

독서광으로서 현재 여가생활에 있어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묻자 독서정보를 주로 신문이나 친구들을 통해 얻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언기에 늘 갈증을 느낀다. 여가 활용으로 특히 독서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책읽는 것 자체가 좋고 그것이 직업과 정서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여가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여가란 “살을 즐기는 방식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취미를 묻는 질문에 주로 독서를 답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정숙씨의 독서생활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들었다.

지금의 여가활동 외에도 하고는 싶지만 못하고 있는 여가활동

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수영이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아직은 초보 담임선생님으로 과중한 업무로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몇년 후면 '배낭 하나 달랑 댄' 문정숙씨를 만날 수 있을 듯 싶다.

수다만 떠는 친구들? 천만의 말씀!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주위나 우리 자신의 생활을 보면, 근무 외의 시간에 친구나 동료들과 만나는 모임은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민우회의 조사결과로도 직장여성들이 주로 가지는 모임은 여직원회(33.6%)와 개인적 모임(26.6%)이었으며, 남성들의 경우는 2위를 차지한 사내 취미씨클(24.7%)의 거의 2배가 친한 이들과의 개인적인 모임(48.0%)에 참여하고 있었다.

(주)대교의 눈높이 교사인 이지연(26, 여)씨도 역시 퇴근 후엔 주로 회사동료들과 저녁을 하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주말엔 그간 못 만난 선후배 및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독특한 정기적인 모임을 나가

고 있는데, 학교 동창 8명끼리의 계모임이 그것이다.

남자 5명, 여자 3명으로 이루어진 이 계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주말에 정기모임을 갖고 1년 단위로 겨울이면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를 위해 1박2일의 여행까지 떠난다. 연락과 계원의 근황을 파악하는 회장과 잭돈과 회비를 걷는, 일명 '수금원'이라는 총무는 계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맡아 모임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또 모임이 호지부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물론 임원과 일정만 확실하다고 해서 계모임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다들 사회에 발을 내딛은 지 2~3년밖에 안되는 사회 초년생인 사무직과 교사, 대학원생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주말정도는 쉼과 쉬고 싶은 유혹에 계모임을 빼먹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이지연씨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모임의 내용이라고 한다.

우선 반드시 계원들의 생일엔 함께 모여 축하한다. 술집에서 만나 회비로 작은 선물을 해주는 적도 있지만, 생일인 사람의 집에 모여 앨범도 보고 그 사람에게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둘째로 5분 스피치를 통해

서로의 생활과 고민을 파악한다. 못난 기간동안의 생활과 고민을 각자 5분동안 말하는데 어찌보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몇번 지나다보니 이제는 안하면 금금해서 못견디겠다고, 서로가 힘들고 생활의 장이 달라질수록 같이 나눌 이야기가 적어지는데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과정을 짧게 거치고 나면 이후의 대화에서 서로의 고민을 같이 하는 폭이 훨씬 깊어진단다.

또한 자주는 아니지만 시사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지금까지 기업체의 '신인사제도'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본 것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 일본 문화개방문제를,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지연씨는 모임의 내용 중에서도 "각자 바쁘게 살다보니 사회흐름에 둔해질 수 있는 단점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메워줄 수 있는 점이 좋다"라고 한다.

언뜻 보면, 이들의 모임은 꽤나 독특하고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친구 만나 술마시고 차마시다 돌아서는 발걸음에서 웬지 서

“여기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일 외에도 몰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을 알차게 해주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여가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요”

운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모임이다. 그런 식으로 친해지다 보니 정기 모임 외에도 자주 만나 불령도치고 모교의 스포츠클럽 응원도 가게 된다.

이렇게 모임을 통한 것 외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이지연씨는 "외국어나 컴퓨터 등 무언가 전문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학습지 교사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에 몸이 쉽게 지쳐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꼭 추진해 볼 예정이란다. 그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편안함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 안정감이나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가활동을 통해 몸은 좀 힘들더라도 자기만족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겠지요"라는 자신의 여가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여가도 투자의 시간이다

이지연씨가 피곤에 쫓겨 선물

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힘들지만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주)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김능집(27, 남)씨.

그는 퇴근 후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불령을 치러가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한다. 특별히 시험을 앞뒀다거나 학생도 아니면서 일만 하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세상에 '웬 공부?'라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밤공부와 주말의 도서관 외에도 시간을 쪼개어 학원까지 다닌다면 더욱 그럴만 하다.

그는 어학원에서 토익(TOEIC) 종합영어를 듣는다.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반에서 문법, 독해, 청취 등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며, 정해진 교재없이 매일의 프린트물로 하루하루 정리한다는 그는, 일과에 쫓기다 보니 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강의를 하나정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다.

신입사원으로, 저는 더위속에 서도 자동차영업을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기에 밤이면 온몸이 쑤실 지경이지만 점심시간까지 아껴가며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실력을 쌓아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여가시간이 완벽하게 투자의 시간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는 가끔은 대기업입사시험을 보기도 한다. 웬 돈키호테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입사를 할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젊을 때일수록 도전과 전전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에게 학원수강 외에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불령을 자주 치고 싶은데 워낙에 불령비가 만만치 않고, 집 근처엔 마땅한 시설도 없는데다가 회사내에 같이 칠만한 사람들이 없어 자주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잔뜩 기대했던 눈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카메라가 얼어붙어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세찬 바람만이 우리를 반겼다.
그래도 내려오는 길에서 —스키를 타며 동심의 세계에서 회회낙락하였다.

못치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가의 의미와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가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자신만의 시간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일 외에도 몰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을 알차게 해 주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여가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요”

공부와 단체활동, 남자만 하냐?

정경숙(28, 여)씨는 통신개발 연구원에서 7년을 보낸 직장여성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소모임 ‘공부하는 산악회’ 회원이기도 하다.

소모임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마치 자연과 산에 관해 연구하고 동반하는 모임 같지만 그건 약간 빗나간 추측이다. 한달에 2~3회 가량을 민우회 사무실에 모여 공부를 하는데 내용은 주로

시사적인 것이다. 정치현안이나 여성문제, 경제 등을 주제로한 토론이 주류를 이루며, 얼마전엔 조선일보의 보수성에 대한 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등산은 월 1회 정도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근교로 다녀 북한산, 인왕산, 강화도 마니산 등을 다녀왔다.

학습이나 등산으로 거의 매주 1회는 시간을 내는 셈이다. 특히 공부하는 주에는 주내내 공부할 자료를 틈틈이 읽어야 한다. 이러다 보면 직장일 마치고 모인 세미나모임이 늦게 끝나 다음날의 피곤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경숙씨는 현재 학생이기도 하다. 재학생만도 20만명을 넘는다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2학년 학생이다. 무척 바쁘고 힘들 것이라는 예상대로 그는 업무에 쫓겨 시험을 못본 적도 있었고 독학의 어려움으로 고생도 많이 한다. 하지만 대학생살이라는

것이 학업 외의 플러스 알파가 많은 곳이라, 정경숙씨 역시 ‘구통도가’라는 동아리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점화주는 동아리냐고 묻자 무식한 소리라며, 역학동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학문적 연구와 세미나, 그리고 기훈련 등을 배운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MT 등을 통해 서로 공동체 의식도 다지고 마음을 나누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많이 남는다고 한다.

학교공부나 단체에 가입해 소모임 활동을 하는 것 외에 퇴근 후와 주말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자, 가끔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주중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며 폭신하다고 답했다. 그의 여가는 자기계발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인 셈이다. 그 외에도 주위의 여가활동 모습 중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경숙씨는 주말에 근교산으로 가족들이 함께 약속물을 뜨러 가거나 운동하러 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

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정신적인 만족과 아울러 육체적 피로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는 독서나 스포츠도 좋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모임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이 잘 조성되어 소모임도 시원하게 그런 곳에서 하고, 공동 체육시설도 무료나 싼 가격으로 많이 보급됐으면 해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특별한 장소를 찾아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니 그건 또 하나의 ‘일’인 셈이지요”

정직을 가르쳐주는 산

이러한 개인적인 여가활용을 넘어 함께 즐기는 여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최동수(41, 남)씨의 경우는 특히 사내 취미씨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그는 (주)웅진코웨이에 근무하는 근무년수 16년의 과장이다. 퇴근시간이 거의 9시를 넘어서기 때문에 평일 퇴근 후에는 주로 곧장 집으로 들어가고 주말에야 시간을 낼 수 있다. 최동수씨는 월 2회의 정기 등산모임을 꼭

참석하는데 모임이 없는 주의 주말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용산공원으로 나들이를 간다. 한가로이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배드민턴도 들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해 보였다.

정기산행은 두번. 한번은 산을 좋아하는 동료산악모임이고 다른 한번은 40~50여명의 대가족이 등산하는 ‘곰돌이’라는 사내 취미씨클과 함께한다. 곰돌이 산악회는 87년 사내 산악동우회로 발족한 이래, 그룹내 9개 계열사 임직원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국 직원까지 참여하여 매월 1회의 정기산행을 해왔다. 아래 글은 최동수씨가 산행 중에 고생스러웠지만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91년 1월 1박2일 동안의 소백산 산행 때 있었던 일이다. 여직원 한 명이 산행시작 후 30분 만에 심한 복통을 호소해 왔는데 아침식사가 급히 체한 것 같아 응급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의 산행은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무와 함께 하산시키고 나머지 일행은 계



속해서 산행을 진행하였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잔뜩 기대했던 눈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카메라가 얼어붙어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세찬 바람만이 우리를 반겼다. 그래도 내려오는 길에 힙-스키(HIP-SKI: 엉덩이로 미끄러지며 산을 내려왔다는 소리)를 타며 모두들 동심의 세계에서 회회낙락하였다.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 회원이 미끄러움을 즐기며 내려가다가 급경사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나무사이로 뿔겨나가 아래로 곤두박질을 친 것이다. 눈 앞

66

“월말이나 사내의 각종
증강운동으로 업무량이 많은 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
모임에 못나가게 될 때가
가장 아쉽지요.
그리고 우리 노래패엔 남자회원이
단 두명 뿐이거든요.
부족한 점은
바로 이게 아닐런지...”

99

이 캄캄해져 모두 뛰어내려가 보니 옷이 찢어지고 다리는 선홍색으로 물들었으나 다행히도 타박상에 그침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동심에 젖었던 모두의 해맑은 웃음과 어려운 일이 닳았을 때 서로의 마음씀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었다. 그래도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그 전주일에 점봉에서 지낸 시산재 덕분에 곰돌이 산악회원의 산행을 산신께서 보호하신 것이었다.

산행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이로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이 늘고 있고 성인병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등산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최동수씨는 강조한다.



노래패 「그루터기」의 '이제 우리의 노래를' 공연 장면

“일상의 복잡한 곳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경쟁의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산이지요. 정상을 향한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요구되고 땀방울, 인내, 협동, 물한방울이라도 아꼈을 아는 근면함을 터득해 해주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직장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깊은 산 계곡을 누비다가 만나게 되는 싱그러운 계곡풍은 가슴 속에 가득찬 답답함과 생활 속의 권태를 씻어주고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주며,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든요”

정말로 산을 사랑하고 산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최동수씨는 경제적인 부담과 직장

인으로서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알프스같은 외국의 명산을 다녀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래를 통한 삶의 재창조

서울신탁은행에 근무하는 서정혜(25, 여)씨는 근무년수 5년의 미혼여성이다.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사진술을 배워보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그는, 퇴근 후에 주 3일은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주 1회는 은행내 모임인 노래패 활동을 한다.

신탁은행 노동조합에는 연극반, 문학반과 노래반 등의 소모임이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성원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래패는 회원들에게 노래를 지도

해주는 외부 전문강사 한명과 열명 정도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갖는다. 노래는 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투쟁을 그리는 노동가요, 민중가요를 배우며, 모임시간은 즐거운 뒷풀이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정도라고.

“우선 모이는 구성원들은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화제가 많은 사람들이라 좋아요. 기분 나쁜 일이나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일상과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마다 애착이 가서 노래패활동이 즐겁지요” 시간을 쪼개가며 노조 산하 소모임활동에 열심인 이유에 대한 서정혜씨의 대답이다. 그는 여가란 일상활동의 의욕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주말에는 그동안 못읽은 책을 읽거나 피곤을 풀기 위해 잠을 잔다는 그는 노래패활동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월말이나 사내의 각종 증강운동으로 업무량이 많은 날에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 모임에 못나가게 될 때가 가장 아쉽지요. 그리고 우리 노래패엔 남자회원이 단 두명 뿐이거든요. 부족한 점은 바로 이게 아닐런지...”

신탁은행 선남 여러분, 노래패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합시다!

여백과 행간의 미학

소모임, 학원, 학교 등 많은 이들이 그나마 작은 여가 시간을 쪼개어, 서정혜씨의 말처럼 ‘자신의 가치 재창조’에 노력하는 때에도 여가라는 말이 무색하리 만치 바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 중의 한사람인 김혜형(30, 여)씨의 여가이야기와 자신이 바라보고, 또한 권하는 여가방법을 들어보자.

김혜형씨는 심지출판사 기획부에서 5년을 넘긴 과장이자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노동조합 회의와 동아리활동 참여로 보내기 때문에 매우 늦게 퇴근하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회사업무

관련자료를 검토한다.

주말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가끔씩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산행을 한다는 김혜형씨는 “주말엔 밀린 빨래, 장보기, 반찬만들기, 청소 등 주로 평일의 늦은 귀가로 인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해치웁니다. 그런 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신문스크랩하고, 다음 주 계획짜고, 컴퓨터통신도 하고, 책도 읽고... 하지만 주말도 언제나 빠듯하고 부족하긴 마찬가지지요” 라고 아쉬워 한다.

자신의 여가시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 몸담고 있는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의 동아리인 ‘출판비평모임’에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 모임은 우선 출판노동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창조적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한다.

‘출판비평모임’은 월 1회의 주제별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별로 만나 자료도 조사하고 함께 공부도 하는데, 각 출판사의 편집자, 기획자, 영업자들이 그 구성원이며 12명에서 15명 안팎이라고 한다. 첫 출발부터 ‘일생애 보탬

옥에도 티가 있는 법. 김혜형씨는 사람들이 술을 안마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임처럼 모임이 끝나면 술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속이야기도 털어놓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구열에 불타는 것인지!

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만큼, 뻔한 이야기나 주장의 반복이 아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공부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왔던 세미나의 내용은 '정보입수방법과 활용', '편집자의 자세', '출판광고와 홍보마케팅', '수능시험이 단행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고 'DTP(타입출판)', '멀티미디어와 출판(CD-ROM)' 등이 앞으로 할 내용이다. 그는 "모임의 대표자는 없고 구성원들의 성실한 참여만으로도 진행은 원활한 편이지요"라고 자랑섞인 소개를 한다.

옥에도 티가 있는 법. 김혜형씨는 사람들이 술을 안마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임처럼 모임이 끝나면 술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속이야기도 털어놓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구열에 불타는 것인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욕심껏 사다놓고 읽지도 못한 책들이 언제나 못다한 숙제처럼 가슴에 얹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여가가 난다면 집에 들어가 쉴지도 않고 밥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죽은 듯이 잠만 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꼭 짚어진 일상을 보는 듯 싶었다. 그에 게 여가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주위에서 느낀 권할만한 여가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지요. 누구나... 8시간 노동을 끝내고 남는 시간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개인이 행복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저 '쉬는 것'이건, 공동체활동을 하건, 무엇을 배우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이자 '재생산'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가활동이라는 말이 낯설 정도로 저는 여유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안할 만한 것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색의 시간'인데,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 앞의 필요성만 보며 살다보면 삶의 깊이나 자기가 선 자리를 돌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뻘뻘한 활자만 가득차 있다면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책에 여백과 행간이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지요"

일상에 바쁜 모든 이들이 수첩에 소중히 적어 놓아야 할 만큼 가슴에 남는 이야기였다.

여가는 삶의 중요한 쉼표!

선량한 욕심으로 오밀조밀 즐겁고 보람있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에서 건강한 빛을 낸다. 어느날 전철에서 한번쯤은 부딪쳤을지도 모를만큼 흔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빛을 내며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 7인의 모습.

이들의 바람 역시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다. 설문조사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은

여가란 삶 속에서 바쁜 일과에 쫓기는 이들에게 반가운 쉼표일 수 있다. 하지만 긴 문장도 적절한 쉼표에 따라 그 감칠 맛과 느낌이 틀려지듯이 여가라는 쉼표 역시 그 사용에 따라 삶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 자신이 꾸려가고 만들어 나가는 삶 속의 여가를 위해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었으나 제반조건의 부족으로 업무를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으나 화장하고 한가로운 날에도 집에서 TV와 씨름이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변에 맑은 공기를 벗삼아 산책이라도 할만한 공원시설이 부족하고, 또 웬만한 체육시설은 마음먹고 투자해야 할만큼 비싼데다가 그 역시도 쉽게 다닐 수 있을만큼 근처에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위주의 체육교육에 치중해 온 사회 현실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정경숙씨의 바람처럼 근처에 싸거나 무료인 체육시설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월요일을 보다 더 상쾌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1년에 걸쳐 연재되었던 <최근 후 무엇을 하십니까?> 4회분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여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애초에 사무직여성들의 생활 전반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던 설문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렇다면 남성들과의 비교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 속에 비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조언과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무미건조하게 일상에 쫓기는 모습들도 많았고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게 자기자신을 꾸려나가는 활기찬 모습들도 많았던,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으로서 그리고 노력의 시간으로서의 여가에 대해, 얼마나 자기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지내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굳이 여가시간까지 계획을 세우며 지내야 하는가' 하는 무거움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여가시간을 재충전의 시간과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위의 7인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극구 강조하시던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한다'의 철학을 실천한다고 할까? 바쁜 삶에 쫓기다보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혜형씨의 말과, 오늘로써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는 김능집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여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여가란 삶속에서 바쁜 일과에 쫓기는 이들에게 반가운 쉼표일 수 있다. 하지만 긴 문장도 적절한 쉼표에 따라 그 감칠 맛과 느낌이 틀려지듯이 여가라는 쉼표 역시 그 사용에 따라 삶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 꾸려가는 삶이 아닌 자신이 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삶 속의 여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므로써 자신의 쉼표가 적절히 찍혀 있는지 살펴보자. 쉼표가 알맞게 제구실을 하는 문장이라야 마침표도 공허하지 않는 법이다.◆

바람난 여자들의 동해안 나들이

조 정 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문득 일상이 짜증날 때 우리는 목적도 없이 길을 떠나고 싶어진다.
목요일의 아이처럼 램프 하나 달랑 들고 혼자서
또는 오랫동안 마음을 맞춰 온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운치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는 여행' 시리즈를 준비하려 한다.
매 철마다 특색있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곳곳을
여행자들의 느낌과 함께 만나려 한다.
떠들썩하게 휴가계획을 짜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괜히 마음이 들떠
일이 손에 안잡히는 휴가철이다.
자, 이럴 때 여름철에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바닷가의 멋을
느낌과 함께 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편집자주)



장호·용화 관광랜드

비라도 시원히 내렸으면... 후덥지근한 날씨와 또 그만큼 답답한 일상에 지쳐가던 우리들은 드디어 바다를 보러 가자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모두 가벼운 월급봉투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모아 몇 달에 한번 씩 여행 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20대 후반의 '신세대' 직장여성들이다.

우리의 목적지, 부산! 그건 단지 교통편이 동해나 서해에 비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택한 것이었다. 파업으로 막힌 기차 길을 갠 수를 다해 뚫고서 도착한 부산.

그러나 그 실망이란!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은 꼭 그 유

명세만큼 사람이 붐비고 콘크리트가 둘러쳐져 있어 서울 한복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도무지 바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굳이 설명하자면, '아수라장'인 것이다. 더구나 아직 본격적인 바캉스 철도 아닌 6월의 주말인데, 바닷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많은 여관이나 호텔에는 방이 거의 없었다. 너무나 실망한 우리는 한적하고 바다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동해안으로 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부산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주저없이 삼척행 버스를 잡아탔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하지만 만약 삼척까지 6시간

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부산까지 5시간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6시간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모르고 탄 그 버스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해 주었다.

부산에 내려올 때 차안에 사람이 가득 붐비던 것과는 달리 삼척행 버스안에는 단지 7명의 젊은이들만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방학을 맞아 설악산에 가는 학생들과 삼척이 고향인 듯한 체격 좋은 젊은이들이 승객의 전부였다. 우리는 괜히 그들만큼 젊어진 듯한 기분에 피곤과 짜증을 잊고 들뜨기 시작했



용화해수욕장에서

다. 차창 밖으로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실증나도록 보면서 가다가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내리기로 했다.

차표부터 숙소까지 계획대로 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실수 투성이의 여행에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계획대로 안된 여행이니 아예 이 기회에 마치 '날 아가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바다를 보다가 자다가 하면서 술술 긴 버스여행에 지쳐가던 우리가 일제히 감탄의 탄성을 내지른 것은 울진을 지나 삼척에 거의 다와서였다. 여태까지 바다를 수평으로 보며 달리던 도로가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

더니 저 아래 절벽 밑으로 푸른 바다가 거친 바위의 뿔뿔아리를 향해 철썩대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슬아슬하게 굽이굽이 도는 도로 사이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파도와 모래사장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고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제일의 경치라고 감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계획에 그쳤다는 '야사'가 전해지기도 한단다. 그러니 그 경관 알만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숙소였다. 동해안을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어느 바닷가를 가든지 숙소가 마땅치 않다. 동해안의 숙소란 대개 북적거리는 해안가의 후진 여관 아니면 값비싼 호텔이고,

조용한 바닷가에는 아예 숙박시설이 없고 민박뿐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마침 열좌석에 앉은 삼척이 고향이라는 청년이 장호해수욕장에 새로 지은 호텔이 있는데, 값도 싸고 경치도 매우 아름답다는 귀뜸을 해주었다. 그는 동해안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숙박시설일 거라며 강력히 추천을 했다. 삼척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친절할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 삼척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울진방면 시외버스를 타고 장호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장호와 용화 해수욕장의 양해안을 낀 가운데 언덕에 얹힌 하계 자리잡은 호텔은(사실은 고급 장급여관 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다) 시설과 가격 면에서 우리 마음에 꼭 들었다.

이번에 '장호-용화 관광랜드'로 개장을 했다는데, 무엇보다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단조롭기보다는 거친, 그러면서도 한적한 바닷가의 분위기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아직 휴가철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사람이 없었다. 마을의 인심도 좋아 무엇을 물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 보지 않고, 번잡한 소음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휴양지였다!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에게 친구 한명이 굶이 회를 먹으러 가야 한다고 우겼다. 어떻게 동해안에 와서 회를 먹지 않겠느냐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오징어회는 먹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근처의 횡집을 찾는 우리에게 호텔 직원이 동해안에서 가장 횡집이 싸다는 '임원항'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 숙소에서 울진방향으로 한 30분 가량 가면 나오는 곳이었다. 그곳은 정말 횡집과 각종 건어물상들의 집합장이었다. 저 멀리 부산이나 포항 등에서 온 차들도 많았다. 세명이 배부르게 회를 먹었는데 비용은 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아우!! 그곳의 특징은 주인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남은 회로 회덮밥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날 우리 셋 사이에 작은 내분이 일어났다. 관광할 곳을 묻는 우리에게 호텔직원은 두타산에 있는 무릉계곡과 덕구온천을 추천했는데 의견이 갈렸던 것이다. 결국 한명은 무릉계곡

으로, 나머지 두명은 덕구온천으로 행진. 나는 그 나머지 두명에 속했다. 덕구온천은 울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울진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들어가는 곳으로, 우리 숙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었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곳이라는데 온양온천 등 몇개의 유명한 온천의 이름만 들어온 우리에게 그 곳은 또다른 신선한, 아니 뜨거운 즐거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입장료가 2,000원에 불과해 주머니가 가벼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저렴한 입장료에 비해 시설이나 수질은 다른 어떤 유명한 온천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근처에 적절한 숙박시설이 콘도 외에는 없었고, 울진까지 나와도 역시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은 미흡했다.

무릉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너희는 모를 거라며 혀를 내두르는 친구와 다시 합친 우리는 깨끗한 이불을 덮고 파도 소리와 바다내음과 함께 단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배

불리 먹고, 뜨거운 온천에서 목욕까지 한 우리들은 이번에는 뭔가 의미있는 관광지를 찾아야 한다며 양양의 낙산사를 향했다. 장호 관광랜드에서 한 시간 반 거리였다. 수학여행 이후 처음 가본 것이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가 고2 때 함께 왔던 곳을 거의 7년만에 다시 함께 온 것이다.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 다시 찾은 낙산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니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일까?

아직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 시기여서인지, 그 고즈넉함이 우리에게 숙연함을 느끼게 했



무릉계곡

다. 백두산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수십개의 불상이 새로 건립되었는데, 그것이 또 장관이었다. 특히 바닷가 절벽위에 걸쳐 지은 홍련암과 언덕위의 부처상, 멀리 반짝반짝 보이던 설악산의 울산바위 또한 잊지 못할 정경이다. 장호 해수욕장의 바다가 아름답고 포근한 느낌이라면, 홍련암에서 보는 바다는 뭔가 장엄하고 비장함까지 주는 모습이었다.

고은 선생은 "동해 낙산사"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감탄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는다. ... 장엄망망한 동해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그 파도 속에 싸여서 살아온 낙산사를 어찌 감탄부 없이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까지 했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불 만한 유물이 거의 없는 낙산사임에도 의상대사가 관음신앙의 근본도량으로 창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은 선생의 "동해 낙산사"에 동의한다고 했었지.

그래, 거기에 덧붙여 우리도 그 모든 것의 의미로 "동해 낙산사"라고 할란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



리는 정신없이 잤다. 뭐니뭐니 해도 2박 3일동안 버스와 기차만 19시간을 타고다녔으니, 우리의 체력에도 한계가 온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어떤 여행보다도 '행복한' 여행이었다.

숙소의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 한적한 해변가, 아름다운 해안의 절벽, 역사의 숨결을 느꼈던 고적, 잠결에 들리는 파도의 철썩이는 소리, 친절할 사람들... 그리고 썩 숙박비와 맛있는 회, 무엇보다 셋이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사소한 일에도 '와르르' 웃고 떠들게 된 웬지 모르는 해방감! 이 약기운으로 한동안은 황홀할 것이다. 약기운이 멀어질 때면 또 다시 어딘가로 훌쩍 떠나야겠지. 처음부터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느낌이 있는 여행이었다. ◆

장호·용화랜드 관광랜드

교통편

①삼척행 고속버스, 삼척에서 하차. 소요시간 6시간.

운임 7,600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울진방면(남쪽으로 가는 것은 다됨)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장호 정류장에서 내린다. 수시로 차가 있고, 소요시간은 약 25분이다.

요금 1,100원

②청량리 역에서 영동선 기차를 타고 동해역에서 하차.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울진행 버스를 타서 장호정류장에서 내리면 됨.

연락처 0397)73-7764, 7765

호 텔 0397)73-6321-3

(낮에 통화하는 것이 좋음)

숙박료 25,000(성수기 7월말~8월초는 가격이 약간 오른다고 함)

임원항

수시로 다니는 버스 이용.

덕구온천

교통편 울진에서 하차.

덕구행 시내버스

입장료 2,000원

변비, 설사 등 소화기계의 질병



고 광 순 홍명당 한의원, 「아름다운 여성한방 101」 저자

변비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변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등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편식을 하는 사람, 신경과민인 사람은 변비에 걸리기 쉽고, 여행이나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또는 만성적인 변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배변을 했던 사람이 아기를 낳고 아기의 생활리듬을 쫓아가다보니 배변시간조차 여유가 없어 변비가 된 경우도 있고, 오래 전 이야기지만 제주도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밑에 돼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을 보고 놀라서 변비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속에 열이 있을 때, 또는 아랫배가 허한(虛寒)하여 장의 운동이 제대로 안될 때 변비가 된다고 봅니다. 대장에 열이 있으면 진액이 마르게 되므로 변이 굳어져서 배설하기 힘들게 되며, 또 혈허(穴虛)로 몸안의 진액이 부족하거나 대장이 허한(虛寒)하여 대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면 변이 오래 정체되어 변비가 되는 것이지요. 육부(六府)에 속하는 대장은 오행 중 금(金)에 해당하며, 오장(五藏) 중 금(金)에 속하는 폐와 한 쌍이 되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폐주피모(肺主皮毛)라 하여 폐는 피부와 모발, 손톱, 발톱의 건강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폐의 짝이 되는 대장의 기능이 원활치 못하면 자연히 피부와 모발, 손톱, 발톱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흔히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등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탁한 기운이 체내에 배설되지 못하고 피부로 내뿜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탁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 머리가 무겁고 상쾌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하나의 연결된 통로인데 뒷 부분에서 막히면 원활한 소통이 안되어 자연히 입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변비가 오래 되면 치질, 치핵 등의 항문질환이 생기게 되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생활치료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체내에 변을 보지 않으면 변이 굳어져 배설이 더욱 힘들어 지니까요. 변비가 있는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와 현미밥, 감자, 고구마, 팥콩, 과일, 식초 등을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차가운 냉수를 먹는 것은 속을 차게하여 소화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리므로 차갑지 않은 생수나 우유 또는 다시마 우려낸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변비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등의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 신양(腎陽)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의 생리기능의 동력이며 인체의 열에너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얻은 생명력을 원활하게 발휘시켜주는 기운을 뜻합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봅시다.

아침과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두 손바닥으로 배꼽 주위를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누르면서 문지릅니다. 또는 부처님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들이키는 호흡법을 시행해 봅시다. 이 호흡법은 변을 보고 난 후에 장을 비운상태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인데 꾸준히 하면 장의 연동운동을 강화시켜 줍니다.

② 한방치료

만성적인 변비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은 대황감초탕, 월경불순이 있는 사람의 변비에는 계지복령환, 얼굴이 붉고 살이 찐 사람에게는 방풍통성산,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삼황사심탕, 몸이 허약한 회복기 환자에게는 가미사물탕이나 가미지황탕, 위장이 약해 복통이 오는 사람에게는 소견중탕, 항상 발이 차갑고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도핵송기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적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의사의 진찰을 우선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대변이 묽으며, 나오다가 멎다가 하는 것을 '설(泄)'이라 하며, 대변이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지는 것을 '사(瀉)'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풍(風), 한(寒), 습(濕), 열(熱) 등이 소화기

를 침범했을 경우, 혹은 부적절한 음식의 섭취, 비위기능의 약화, 신양(腎陽)의 쇠약 등을 그 발병원인으로 봅니다.

그 종류에 따라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이 없고 배가 심하게 아프지는 않으며, 소변이 적어지거나 색이 홍적색을 띠고 맥이 완만한 습사(濕瀉), 악취나는 변을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지며 배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고 배변 후에도 뒤가 구지룩하며 항문에 열감이 있고 입이 마르고 소변이 붉으며 땀이 나고 맥이 빠른 열사(熱瀉),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변이 묽게 나오며 배가 계속 아프고 소변이 맑으며 맥이 가라앉은 채 천천히 떠는 한사(寒瀉), 상한 음식의 섭취로 신트림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복통이 나면서 설사하는 식사(食瀉), 음식을 먹자마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설사하고 몸과 마음이 무력하며 안색이 창백하고 혀에 핏기가 없으며, 허리, 무릎, 손발이 차고 맥이 약한 허사(虛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오경설(五更泄)은 신설(晨泄), 신설(腎泄)이라고도 하는데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하면 매일 새벽에 배에서 소리가 나며 설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설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설사를 한다고 막연히 설사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본 뒤 그에 맞는 치료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③ 민간요법

가끔씩 배가 아프면서 형태없는 묽은 변이 계속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속을 달여 한, 두달걀 먹거나, 꿀, 인삼, 마늘을 혼합한 뒤 발효시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설사에는 마늘을 구어서 2~3쪽씩 하루 세번 식전에 먹으

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침 출근시간에 허둥대기가 쉽고 또 겹치는 피로로 식욕이 없어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점심을 분식으로 때우거나 인스턴트 식품 또는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지요. 더우기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기혼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일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까지 덧붙여져서)는 만성소화장애 또는 식욕부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후천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므로 음식의 섭취로부터 배설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은 후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므로 거르거나 질이 나쁜 것(인스턴트식품, 화학조미료, 화학처리된 것)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차가운 음식(청량음료, 빙과류 등)은 소화기능, 배설기능을 떨어뜨리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 위벽이 헐게 되면 속이 쓰리고 아픈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궤양이 커지고 다른 병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하도록 합니다.

●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게으르게 되고(기체: 氣滯) 기가 체하면 소화장애가 오게 되므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비나 설사 등의 배변장애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신인사제도는 위법이다

최근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드세어지고 있다.

이미 본지에서는 신인사제도에 대해 몇차례 검토해 왔으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오사카의 여성노동자들과 변호사들이 작성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한 대응보고서(1993. 11. 20)와

商工組合中央金庫 평등권쟁취회의 대응보고서(1993. 12. 12)를 발췌하여 실는다.

(편집자주)

일본 노동성의 1992년도 여자고용관리기본조
사에 의하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신인사
제도의 도입 비율이 높고(5천명이상 대기업의
49.3%가 시행), 은행과 보험부문에서도 24.2%
의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 다른 부문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990년도 국제 센서스에 의하
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은행과 보험업으로 54.2%를 점한다.

일본 시중은행들은 1990년에 종합직에 164명의
여성노동자를 신규고용하였다. 이는 종합직 전체
신규고용 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후 그 비율은 점차로 감소되어 92년도에는 2.

8%에 이르게 되었다. 도카이은행(Tokai Bank)
의 경우는 1993년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종합직
고용이 전혀 없었다. 일반사무직에서의 신규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 여성들로 충원되었다.

〈표1〉 시중은행 종합직 신규고용자수

구 분	1990		1991		1992		1993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수	4,434	164	4,403	139	3,798	122	3,142	92
(%)	96.4	3.6	96.9	3.1	96.9	3.1	97.2	2.8

資料: Nikkin지

1986년 도쿄 지방법원은 신인사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즉
'직무는 기본업무와 보조업무로 구분되며, 기본업
무는 남성에게 그리고 보조업무는 여성에게 할당
된다.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이러한 직무의 차이에
기인한 산물이지 성차별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업의 주장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기본업무와
보조업무간의 차이'라는 것이 오히려 모호하고, 더
불러 일련의 직무를 두가지 범주로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부자연스런 것'이라고 판시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에 기인한 어
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본헌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 신인사제도를 기업이
도입해야만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원고인 여성노동자가
승소한 경우였다.(일본 철강산업연합의 사례에 대

한 도쿄 지방법원의 판례, 1986. 12. 4)

신인사제도는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 간접차별이
다. 이 간접차별은 2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 하나는 여성이 부서의 전환배치에 따른 이동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고, 다른 하나는 연장근
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의 전담, 남성의 장시간노동은 이 두
가지의 수용을 어렵게 한다.

파트타임직(시간제 혹은 비상근직)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신인사제도를 단순히 종합직과 일반직
간의 직무의 구분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하 균등법)이 시행된 이래,
일하는 여성들의 파트타이머로의 전환은 더욱더
증가해 왔다. 따라서 파트타이머직이 고려되어야
만 비로소 신인사제도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금융계 잡지인 니킨(Nikkin)지는 1990년 9월,

(그림 1) 두 남녀 대학졸업자의 근속년수와 승진비교도(삼화은행)



〈그림 1〉은 대학을 졸업한
어떤 두 남녀의 계속근속년수
와 승진을 비교하고 있다. 근
속년수 3년까지 두 남녀는 3-
1직급을 부여받으면서 똑같이
승진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
시점부터 향후 9년동안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승진을 계속했다. 계
속근속 16년 후 여성이 3-2직
급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남성은
7-2직급까지 승진을 했고 그
부문의 차이가 되었다. 그
들의 임금격차는 연간 1천만
엔에 이른다. 또 다른 어떤
여성도 19년이상을 근속하여
2-4직급을 받고 있었다.

시중은행 여성노동자의 30%가 파트타이머이고, 이들 대부분이 40세 전후의 가정주부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총무성이 조사한 노동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여성노동자 중 파트타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의 22%에서 1991년에는 29.3%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삼화은행

1991년 삼화은행은 노동자 총수가 13,913명이었고, 그 중 27%에 해당하는 3,825명이 여성이었으며, 노동자 1인당 경상이익은 1천6백2십9만7천원이었다.

삼화은행이 신인사제도를 도입할 때, 남성을 종합직으로 여성을 일반사무직으로 유도하려는 은행측의 심한 압력이 있었다. 몇몇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관리직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그 이후로 종합직의 여성들은 동 직군의 남성들에 비해 두드러진 차별을 받아왔다.

다음의 표는 삼화은행의 종합직에 관해 몇몇 여성노동자들이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이 표는 근속년수가 24~31년 사이에 있는 노동자들의 연도

〈표2〉 삼화은행의 입사년도별 직급자수

입사년도	고문	고문서리	이사	이사대우	사무관	비관리직상비율
1962	남 8	남 38	남 84	남 33	남 68, 여 2	29.4%
1963	남 4	남 20	남 70	남 30	남 47, 여 3	27.5%
1964	남 6	남 39	남 62	남 31	남 34, 여 1	19.8%
1966		남 11	남 43	남 34	남 44, 여 1	33.3%
1968	남 3	남 17	남 65	남 48	남 49, 여 2	26.9%
1969	남 2	남 12	남 74	남 49	남 50, 여 1	26.7%

별, 직급별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학력(고졸), 동일근속의 남성에 대한 직급부여 상황을 보면 평균적인 남성이라도 직급사다리의 상위층에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어떤 남성이 사무관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임금수준은 보통 4번째 직급(부문의 長급)에 상당한다. 반대로 모든 여성들은 사무관직에 머물면서 책임자적 지위를 갖지 못했고, 3,825명의 여성 가운데 사무관이상까지 올라간 숫자는 20여명에 불과했다.

사례2 - 수미토모은행

수미토모은행은 16,669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076명이 여성이었으며, 노동자 1인당 경상이익은 1천5백9만4천원이었다.

균등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미토모은행은 여성들에 대한 결혼퇴직 관행은 계속되어 왔다. 1990년 12월 31일 한 여성사무직원이 상사에게 '결혼한 다음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듬해 초, 그 상사와 은행지점장은 그녀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우리 은행에는 결혼한 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여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당신이 일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회사정책상 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신은 매일 저녁 7시나 8시까지 근무가 가능한가? 즉시 사직하고 파트타이머로 다시 입사하라"고 말했다.

수미토모은행은 균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신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거의 모든 남성들을 종합직에, 그리고 거의 모든 여성들

을 일반사무직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직군에 의한 구분은 여성에 대한 차별 그 자체이며, 더욱이 일반사무직에 있는 기혼여성들은 승진마저 지연되어 이중의 차별을 당했다. 남성이 결혼으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승진과 임금인상에 대한 차별은 분명 남녀간의 성차별이다.

1989년 4월, 일반사무직에 있는 두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부당한 임금을 받게 되어, 이러한 차별을 없게 해달라고 노동조합에 요구했다.

두 여성은 동년배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월 7만 엔 혹은 년 1백50만 엔 가량을 덜 받고 있다. 두 여성은 부사무장까지 승진은 했지만 임금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한 여성은 25년간을 근무해 왔으나 직위는 가장 하위에 머물러 있고 업무의 내용이 승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연수와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의 응답은 없는 상태이다.

사례3 - 商工組合中央金庫

商工組合中央金庫(商工中金)는 1987년에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노동자들은 승진 소요기간이 가장 길긴 했지만, 지도적 위치에 올라갈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일반직의 여성노동자들은 그러한 지위를 누릴 수 없었다. 이즈음부터 파트타이머들이 증가해왔다.

신인사제도와 商工中金의 노동자에 관한 통계는 공표되지 않

〈표 3〉 商工中金의 성별 직군 분포

區分	女性	男性
종합직	50 ★(10)	4,000 ★(2,000)
일반직	2,000	소수
파트타이머	500	소수

★ 종합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았으나 개략적으로 이를 추정하면 〈표3〉과 같다.

신인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표준적인 남녀노동자가 업무에 대한 능력면에서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따라서 그들의 임금 혹은 급여는 동일했다.

그러나 신인사제도 도입 후 종합직과 일반직의 업무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임금차이는 벌어져갔다. 1992년의 경우, 25세로 동일한 종합직 남성노동자와 일반직 여성노동자간의 평균 월수입 격차는 1만3천5백엔이었고, 종합직 26세 남성노동자와 일반직 36세 여성노동자간의 평균 월수입 격차는 4만3천5백엔이었다. 결과적으로 회사측은 7백만엔만큼의 노동비용을 삭감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림 2〉에는 이 은행 노동자들의 상이한 신분 에 따른 표준적인 임금곡선이 나타나 있다.

〈표4〉 시중은행 남녀 사무직노동자 월평균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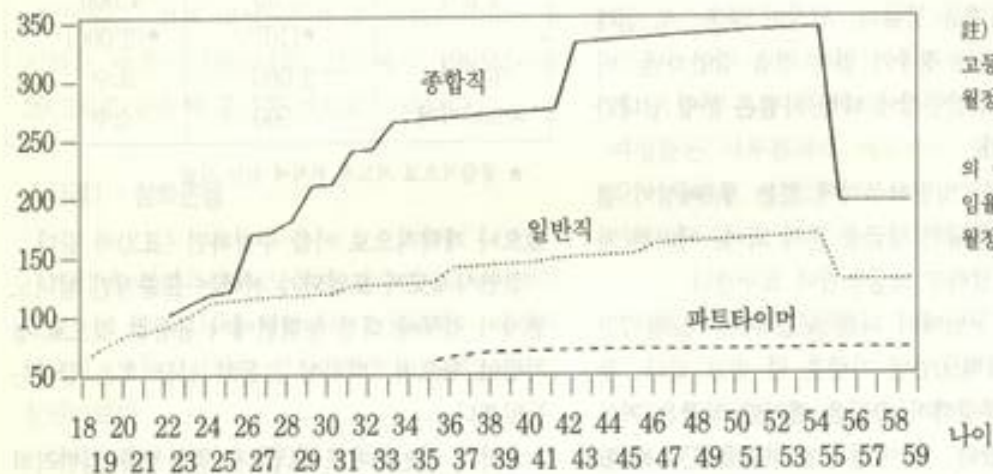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남성	467,491	480,499	507,025	507,025	534,606
여성	211,267	216,933	220,118	227,528	234,942
격차(%)	45.2	45.1	44.5	44.9	43.9

資料: 시중은행 재무제표

註) 1. 3월 31일 현재. 2.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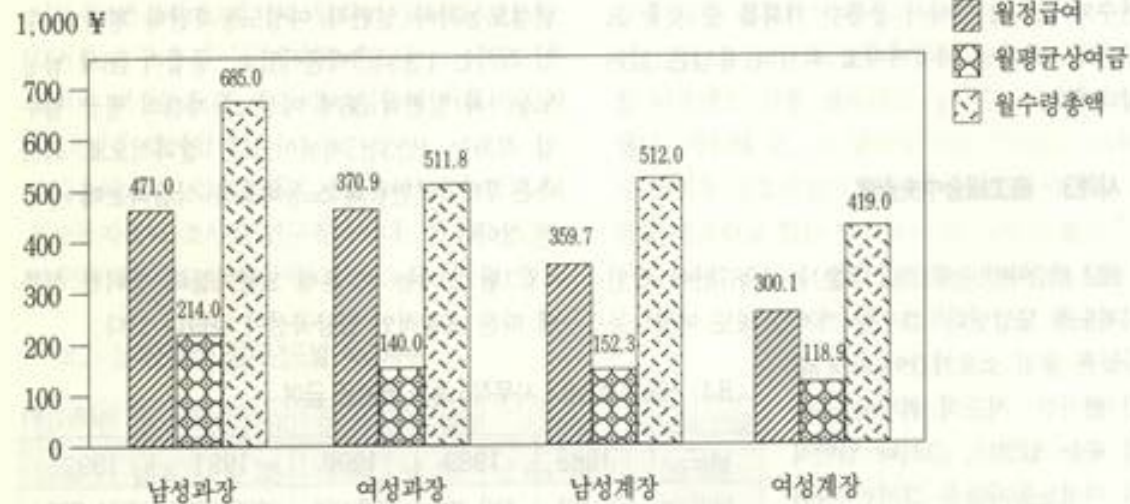
〈그림 2〉 商工中金 은행의 임금 차별곡선(1993)

지수(20세 남성노동자를 100으로 봄)



註) 1. 위의 도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월정급여 비교임.
2. 파트타이머
의 수입 = 시간당
임금 × 정규직원의
월정 노동시간

〈그림 3〉 종합직 월평균 급여의 성별비교(1991)



註) 1. 노동성의 임금구조 기초조사를 토대로 작성했음.
2. 도표의 수치는 100인 이상 전산업 기업들을 총계하여 나타낸 수치임.
3. 여기에서 경영층이라 함은 이사, 부사장 및 그룹회장만을 의미하며, 이사 대리, 부사장 대리 및 스태프위와 같은 중간직 위는 포함하지 않음.

신인사제도의 도입 이래로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표4〉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의 평균급여가 남성의 평균급여에 비해 1988년 45.2%에서 1992년 43.9%로 감소되었다.

또한 종합직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벌어졌는데, 1991년의 경우, 여성과장의 급여는 남성과장급여의 74.7%였고, 여성 계장은 남성계장의 81.8%였다. 더욱이 여성과장 급여는 남성 계장보다 적었다(〈그림3〉 참조).

임금상승률은 서로 상이하지만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해 왔다.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1969년에 여성은 남성의 60.0%를, 1991년에는 61.0%를 각각 지급받았다. 주목할 만한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 1969년에 여성 파트타이머가 전일제 남성노동자의 52.5%를, 1991년에는 43.9%를 각각 지급받았다. 그 격차가 증가되었다.

대부분의 파트타이머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총수입은 더욱 줄어든다. 총수입의 측면에서 1991년 여성 전일제 노동자는 남성 전일제 노동자의 58.0%를 지급받은 반면, 여성 파트타이머는 남성 전일제 노동자의 35.3%를 지급받았고, 또 여성 파트타이머는 여성 전일제 노동자의 60.8%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를 포함하여 남녀노동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인사제도에 대한 이와같은 문제점을 분석한 商工中金 평등권 쟁취회와 변호사 회라야마게이코는 UN의 여성차별철폐소위원회에 신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1993.12.12)했다.

평등권 쟁취회는 당 금고, 일반 시중은행 및 여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교수, 변호사를 포함하여 약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금고의 여성차별 철폐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례4 - 수미토모 상호생명보험회사

수미토모 상호생명보험회사(이하 수미토모생명)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할 당시 여성들에게 종합직의 배정을 허용하긴 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장애물을 설정해 놓았다. 즉 일반사무직의 감독자급 이상에 있는 자로서 선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사무직에 배정받은 남성은 현재 거의 없는 반면, 종합직에 여성노동자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표5〉는 여성에 대한 직급부여 현황으로 긴키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몇몇 기혼여성들이 조사한 자료이다. 도표에서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2명의 기혼여성만이 "부감독관"직 이상에 있으며, 그들 중 1명은 혼전에 그 직위로 승진한 경우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혼여성 38명의 여성 가운데 단 1명(2%)만이 "부감독관"직으로 승진한 셈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부감독관"직 이상으로 미혼여성이 승진한 경우는 전체 미혼여성 61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9명에 이른다. 기혼여성은 분명히 승진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1992년 2월 29일 수미토모생명에서 일하는 22명의 기혼여성들이 오사카의 여성 및 미성년자 노동담당국에 균등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를 신청했다. 그들은 기혼남성이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는데 반해, 기혼여

〈표5〉 수미토모생명 일반사무직 기·미혼여성 직급현황

○미혼여성 ○기혼여성

직급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감사				○				○												
부 감사				○	○			○							○					
감 독 관	○			○	○	○				○	○			○	○	○	○	○	○	○
부 감 독 관												○			○			○	○	○
4 급 ~ 1 급	○			○	○	○	○	○	○	○	○				○	○	○	○	○	○
입사년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성이 배제된 사실은 균등법에 반하는 승진상의 성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중재신청은 대중매체를 타고 널리 알려졌으나 정작 수미토모생명에서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동당당국은 1992년 11월 2일, 이 신청서에 대한 중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일반사무직 부문에는 남성들이 전혀 없어서 중재를 신청한 여성들의 여건과 비교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성차별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의 배경은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사직을 권고해 온 해묵은 관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미토모생명은 채용면접을 할 때 "결혼하면 사직을 해야 한다"고 강요함과 동시에 그들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사직을 권고했다. 권고사직에 따르지 않고 일을 계속하려 한다면, 그는 전근, 직무변경, 업무량 증대, 업무정지(대기발령), 혹은 다른 노동자들과의 격리 등의 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수미토모생명은 1971년 기능에 따른 임금책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혼여성은 '표준이하'로 일률적으로 등급이 매겨져, '일반 사무업무 1등급'으로 돌려진 반면, 미혼여성은 부서장급으로 승진

했다. 기혼여성에 대한 승진차별은 대략 이 당시에 시작되었다. 균등법이 통과된 후 회사는 그러한 권고사직을 계속해 왔다.

오사카의 여성 및 미성년자 노동당당국은 기혼여성들의 중재신청에 대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이 권고사직 문제에 대한 지침만을 내렸다. 대중매체가 이 중재신청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급시켰기 때문에 수미토모생명은 결혼에 대한 권고사직을 공개적으로 멈췄다. 그러나 수미토모생명은 노동당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순히 기혼여성의 승진상 차별에 대해 소폭의 조정(15명의 기혼여성을 한 등급 높게 승진시킴)만을 가했다.

사례5 -일본 상호생명보험회사

세계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인 일본생명보험(일본생명)도 균등법이 통과될 무렵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 남성들은 어떠한 시험도 거치지 않고 관리직으로 이동된 반면, 여성은 종합직으로의 이동에 커다란 방해로 받았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감독관에 의한 추천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등과 같은 대단히 가혹한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다. 종합직으로 배정을 받은 여성은 총 7천2백명 가운데 50명에 불과했다. 종합직과 일반사무직간에는 커다란 임금격차가 있으며, 회사는 임금수준이 낮은 일반사무직으로 여성들을 배치시킴으로써 그들을 차별했다.

일본생명은 종합직과 일반사무직에 더하여 '업무직(Business Track)'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직군을 도입하였다. 이 직군 도입목적은 "승진하

려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스템은 여성들을 선발시험을 통해 일반사무직에서 업무직으로 이동시키며, 일반사무직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버린다. 업무직으로 이동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연장근무와 같은 힘든 상황을 감수해야 하고 임금도 관리직급으로 승진되지 않는 한 일반사무직급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1991년 12월 7일, 일본생명에서 일하는 19명의 여성이 오사카의 여성 및 미성년자 노동당당국에 균등법 제15조에 의거한 중재를 신청하였고, 여기에서 그들은 업무직으로의 이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당당국은 1992년 3월 21일 이 신청에 대한 중재를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업무직의 도입이 일반사무직 노동자들, 즉 여성들에게 특별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결론은 회사가 관리범주를 변경하여 성에 의한 것을 직군에 의한 것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여성들을 기반적으로 차별하려 하는 부당한 의도에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일본생명은 자기계발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은 사비를 들여 업무연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근무일자가 아닌 개인적인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상사가 그들의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좋은 실든 이들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며, 출석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적자원 제일주의' 원칙은 고용상의 관습으로 사생활 속에 파고들어, 일벌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왜 신인사제도가 여성차별인가?

今野久子 변호사 동경법률사무소

신인사제도가 이미 심각한 여성노동문제의 현안이 된 일본에서,

1993년 11월 '남녀차별임금철폐연락회' 주최로

"코스별 인사제도를 고발한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다음에서는 심포지움에서 신인사제도가 왜 여성차별인지를

강변했던 변호사의 글을 요약해서 실는다.

〈편집자주〉

‘코스별 고용관리’라는 것은 노동자의 의욕, 능력, 적성 등에 의해 평가하고 대우하는 제도이지 성별에 의해 관리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기업은 말해 왔다. 정말 그런 것일까? 하지만 성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는 그 결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스별 관리제도를 도입한 兼松회사는 ‘이전의 남녀 성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용관리제도를 채택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 日本信託은행은 ‘행원의 의욕, 적성, 능력, 직업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경우에 한 가지 기준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높은 수준의 프로집단, 활력이 있는 기업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라고 신인사제도 도입이유를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제까지의 남녀차별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제도가 새롭게 차별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남녀평등의 성과를 빼앗아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동경의 日本信託은행노조는 12일간의 농성을 통해 남녀차별을 철폐했다. 예를 들면 여성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정한 직책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쟁취하고 인사고과에서 여성이 누락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신인사제도는 이러한 모든 투쟁의 성과를 빼앗아 버릴 우려가 있고 또, 그 위험이 닥쳐왔다.

제도의 좋고 나쁨은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인사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의 장래가 어떨까하는 등의 여러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손에 들어오는 임금, 배치된 자신의 일, 전보다 노동조건이 좋아졌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차별을 ‘성에 기초한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이 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모집 자체에서부터 제외되거나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차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은 인권, 기본적인 자유에 관해 ‘여성들이 인식하고 누리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고, 무효로 하는 효과, 또는 그러한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즉 여성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商工中金에서는 모집채용시에 응모자를 ABCD 네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A급은 채용할 사람, D급은 채용대상에서 제외할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여학생은 D급으로 취급하라는 지시를 채용실무자에게 내렸다. 이는 처음부터 여학생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여성을 차별할 목적이 있는 모집채용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차별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결국은 제도의 목적 자체가 여성차별에 있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에 기초한 제한임이 입증되면 차별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다면 신인사제도 도입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선 임금을 보면 兼松회사에서는 근속 20년이 되어도, 25년이 되어도, 일반적 여성은 26세나 27세의 종합직 남성의 임금을 상회할 수 없다.

또 商工中金, 兼松회사에서는 예전에는 남녀가 동일했지만 신인사제도 도입 이후 초임에서도 남녀차별이 생겼고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商工中金에서도 종래에는 25세까지 남녀 동일임금이었지만 결국 신인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남녀 임금격차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日本信託은행은 종합직과 일반직 구분에 따른 임금차별로 남녀차이가 1800만엔으로 되어버렸다. 결국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남녀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승진을 보면 兼松회사에서는 일반직인 한 관리직이 될 수 없다. 商工中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日本信託은행에서도 일반직에서는 주임이상은 될 수 없다.

코스별 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 승격자는 없었으나 적어도 최후까지 여성에게도 남자와 같이 승격의 코스는 있었다. 즉 신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승진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임금, 승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작업장의 분위기가 침울해졌다는 것과 노동 의욕, 능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적인 일만이 주어진다는, 보람없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왜 그렇게 임금이 낮고 승진이 안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래 납득할 수 없는 코스를 억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노동자측의 심리에서 보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의욕,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코스별 인사관리제도의 본래 도입목적과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왜 성차별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코스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직, 일반직은 외견상으로는 당사자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택당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결정했다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였던 코스, 혹은 확실히 나누어져 있던 남녀차별 코스, 예를 들면 兼松회사에서는 A체계, B체계라고 해왔던 남녀별 체계의 명칭을 바꾸었을 뿐, 종전에 있던 남녀 차별을 그대로 용인하는 형태의 코스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코스를 설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충분히 싸우지 않은 채, 혹은 싸워도 그것을 무시한 채 코스별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용자측은 일치된 행동을 취해왔지만 노동자측은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商社는 모두 도입되었다'든지 혹은 日本信託은행에서는 "다른 신탁은행에서 모두 코스별 인사관리가 도입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것은 여기뿐이고,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공격을 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의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기업이 내용을 결정해버렸던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은 없어질까? 전근이 가능한가, 전업이 가능한가 등 여성에게는 불가능한 조건, 불리한 조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선택을 강요했으므로 그러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은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는 선택한 뒤에도 '전환제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코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시험, 즉 면

접을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노동성이 지도하고 있는 유연한 코스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코스별이 도입되어 일의 내용이 변했는가이다. 일부에서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일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일의 성격이 더욱 엄격해졌다. 즉 종합직은 기간직 업무이고 일반직은 보조직, 정형적 업무라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자측에서 보면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가 납득할 수 없다. 일이 같다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남녀임금격차는 합리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차별이다

결국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보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차별'이므로 정부는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현실에 대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조치해야 한다.

균등법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자의 조화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도 가정, 직장, 거기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균형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일의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성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남녀평등을 직장에서 요구할 때 노조도 함께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코스가 다른 것은 단순한 구별이 아닌 차별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상담실은...

민우회 노동상담실은

직장여성들의 전반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편지, 방문상담을 통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부당인사, 임금 및 승진 등 각종 차별,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대우문제나 여성조직활동방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요.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여성임으로 인해 성적 대상으로 대우받거나,

성희롱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고

속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도

활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상담전용전화 : 274-5755

여의도의 산채비빔밥 전문점

마 음 뜰

김 성 미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식 육이 없는 복더위에 입맛 돋구는 점심을 찾아 여의도를 헤매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적당한 음식이 없어 고민하게 된다. 간단한 분식으로 허기를 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은 좀 특별한 무엇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고 식당가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지만 실패.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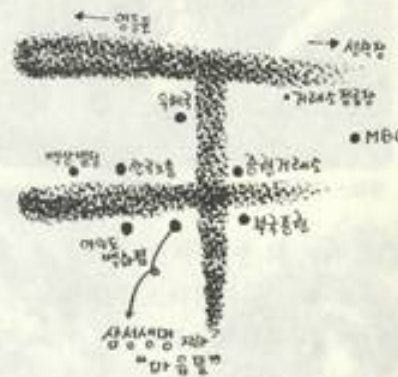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냈다. 여의도 한복판 거리에 버젓이 지키고
있는 커다란 간판 '마음뜰'

간판에서 느껴지는 편안하고 이늑한 분위기만큼 입구에 수십그루의 화분이 뿔뿔히 세워져 있어 숨쉬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삼성생명빌딩 지하 1번지. 이곳이 바로

내가 소개하려는 산채비빔밥의 원산지이다. 들어서는 순간 하얀색에 청록색의 띠를 두른 시원한 문들과 아담한 이태리풍의 실내장식, 넓은 정원을 연상케하는 '마음뜰'이라 불리우는 홀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마음뜰’ 점심의 주메뉴는 산채비빔밥과 냉면. 산채비빔밥은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나물인 버섯, 취나물, 깻잎, 호박, 도라지, 고구마줄기가 아주 맛깔스럽게 하얀 밥위에 장식된다. 깔끔한 주방과 깔끔한 아주머니들의 복장에서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그 맛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반찬이 매일 몇가지씩 바뀌어서 나온다
는 점과 여름에 입맛이 없을때 음식이 뜨겁지
않고 먹기에 아주 안정맞춤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치, 향토적이고 따스한 '어머니의 맛깔스러운 음식처럼' 실내분위기도 잔잔해서 점심 때 손님 접대하기에도 부담없고 편안한 곳이다. 그러니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다.

이 곳은 저녁에도 안성맞춤이다. 간단한 회식을 하기에, 친구들 서너명이 저녁을 조촐히 먹기에 부담이 없는 자리이며, 분위기가 색다른데다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는다.

저녁메뉴로는 곱창전골, 사배탕, 안심철판, 등심철판 등이 주메뉴인데 곱창전골 맛은 다른 어떤 곳보다 뛰어나다. 특이한 것은 곱창에 미리 양념이 배어들게 재어놓았다가 끓일 때 갖은 야채, 두부, 흰떡, 사리 등을 넣어주기 때문에 음식에 간이 알맞게 들어서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

을 가진 사람들도 감탄사를 금할 길이 없다. 알고보니 '마음똥'은 미식가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이곳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식사를 마치고 주방장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곱창전골을 만드는 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고나 할까?

가격은 음식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산채비빔밥 4,000원, 냉면 3,500원,
 등심·안심 10,000원, 곰창전골 6,500원,
 사뽕탕 10,000원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나? 잘 먹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살시다. ◆



버지니아 울프
Virginia Woolf

태해숙 요성여대 영문과 교수

우 리에게 울프는 주로 예술의 형식미만 추구하고 역사와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나약한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당대 남성 작가들 사이에서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의식을 형성하느라고 겪었던 울프의 고통과 어려움은 쉽사리 간과되고 만다. 하지만 울프의 삶과 작품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서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 반쪽짜리에도 못미치는 평가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선배 여성으로서 울프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문학인으로서 느꼈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독보적인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울프의 참모습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과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정서적 혼란기, 어린 시절

울프는 영국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확장하여 나가던 1882년에 레즐리 스티븐이라는 유명한 지식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레즐리 스티븐은 총 65권에 달하는 방대한 『영국전기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의 책임 편집장으로 유명하였지만 원래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심하였던 지 식구들의 감정과 욕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격분하는 등 심각한 정서 장애를 보이는 폭군적인 가장이었다.

한편 그는 지적인 면에서는 급진적인 회의주의자로서 영국국교회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 터에 캠브리지 대학교직에 있을 수 없다고 박차고 나온 용기있는 정직한 지성인이었다.



울프와 그녀의 아버지, 레즐리 스티븐

울프의 어머니 줄리아는 전처 소생 네 명의 자녀가 있는 50대의 레즐리 스티븐과 재혼하여 소비, 바네사, 버지니아, 아드리안이라는 네 명의 자식을 두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보다 가족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이웃에게까지 확대되어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병구완을 하느라고 늘 바빴으며, 결국 피로한 상태에서 병이 전염되어 울프가 13살 되던 1895년에 죽었다. 울프에게 어머니는 엄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전형적인 여성다운 삶을 살았던 울프의 어머니는 딸이 지식인이거나 작가로서 독립적인 자기 인생을 사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사춘기에 어머니를 잃은 울프의 충격은 몹시 컸다. 설상가상으로 2년 후에 울프에게 어머니와도 같았던 이복언니 스텔라가 죽었다. 울프는 어머니가 죽은 후, 1904년에 아버지가 죽기까지 10여년간 아버지의 감정적 동요를 모두 받아주어야 했으며 암에 걸린 아버지의 간호도 맡아야 했다.

이런 정서적 격동기에 울프는 이복 형제인 작은 오빠 조지에게서 짙은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울프는 일기에도 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딸의 삶에서 아버지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다. 그 이전에도 이복 큰 오빠 제랄드는 울프가 여섯살쯤 되었을 때부터 1895년까지 울프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 보거나 더듬는 행위를 하였다. 이복 오빠들의 성폭력으로 울프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몸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성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런 가정 환경에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로 인해 울프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병적일 정도로 꺼려하였으며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사춘기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흔히 울프를 정신 장애가 있는 '미친 여자'로 간주하는 계기는 바로 어린 시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프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은 그녀의 정체 의식에서 떼어 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울프는 캠브리지출신들인 오빠들과는 달리 대학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역사, 전기, 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아버지는 울프를 자신의 계승자로 여기고 독립적인 전문 작가의 경력을 쌓기를 바라면서도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울프는 아버지에게서 지적인 성실함이나 자연, 등반, 산책을 좋아하는 등 좋은 자질을 많이 물려받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작가로 성공했을 때 울프는 일기에도 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딸의 삶에서 아버지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여성작가로서의 길을 닦으며, 문인 수습기

1905년에 울프는 상당한 유산을 받게 되어 음침한 아버지의 저택을 벗어나 환하고 밝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울프는 이 블룸즈베리의 아파트에서 언니 바네사와 함께 살았다. 소비 오빠 친구들인 클리브 벨과 리톤 스트레치 등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이들이 여기를 드나들게 되면서 유명한 블룸즈베리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그룹은 특정 이념 없이 가족적인 유대와 정서로 모였으므로 그간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그룹이 울프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당시 부모를 모두 잃은 불안한 처지에 있던 울프에게 정신적인 어머니 역할까지 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화가의 길을 착실히 닦아나간 강한 기질의 언니, 애니 고모와 캐롤라인 고모가 있었다. 세 명 다 인습을 뛰어넘은 독립적인 여성으로 사회의 통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캐롤라인 고모는 여자가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꼭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이들 외에 울프보다 17세 연상인 바이올렛 디킨슨이라는 여성은 어머니처럼 울프를 돌보아주며 여행도 같이 다니고 울프가 신경증 증세를 보일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주선했던 하녀였다. 무엇보다도 디킨슨은 울프를 「가디언」지 여성부문 편집자에게 소개하여 문인으로서 수련 기회를 갖도록 해주었다.

이후 십 년동안 울프는 평론, 서평, 추모사, 여행기, 풍물기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여러 잡지에 쓰는 길고도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다. 울프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형식의 글을 쓰면서 글쓰는 기본을 배워 나갔으며 전기와 자서전, 단편소설도 습작하였다. 이 시기에 울프는 무명평론가로 돈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잡지를 기웃거리며 각 잡지사의 편집방침에 굴복해야 하는 힘없는 처지를 절감하였다.

이런 울프의 형편은 캠브리지 출신의 오빠와 그의 친구들과는 천지 차이였다. 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데서 자신감이 있었고 선배와 동창 문인들과 편집장들의 인맥이라는 확고한 발판과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어 있었다. 울프는 그들의 자족감, 자신감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블룸즈베리 그룹 사람들과 어울렸다.

1907년에 언니가 블룸즈베리 그룹의 일원이었던 부유한 클리브 벨과 결혼하여 다음 해에 아들 줄리안까지 낳자 울프는 질투와 부러움,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언니의 결혼생활을 보면서 울프는 독신 여성작가의 삶보다 결혼하여 아이도 가지며 작가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즈음에 울프는 외로움과 불안함을 잊고자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유럽여행을 많이 다녔으며 1908년에 장편 소설로 처녀작인 「항해」를 쓰기 시작하였다.

1910년을 기점으로 블룸즈베리 그룹은 포스터, 레오나드 울프, 로저 프라이 등이 새로 충원되고 확장되어 문화적, 지적 혁신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고 이에 울프도 가세하였다. 울프는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이 추구하는 인물, 플롯,

스토리 중심 전개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외면적인 눈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미세한 인상들, 기이한 삶의 형태들, 사라지기 쉬운 비전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써 형상화하려고 애썼다.

울프는 언니가 결혼한 후 1912년까지 모든 점에서 불확실한 젊은 시절의 막막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이 기간에 울프는 별볼일 없는 글들을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심함,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 불안정한 재정 형편,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사이가 나빠진 언니와의 관계 등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집요

버지니아 울프와 그의 남편 레오나드



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울프는 나름대로 착실한 수습기를 보냈다.

인습을 뛰어넘은 사랑과 결혼 삶과 문학의 절정기

성추행당한 비밀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 속에 안고 있던 울프에게 불륜즈베리 그룹의 일원인 레오나드가 청혼을 하였다. 성에 대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갖고 있고 작가의 길과 결혼을 병행하는 것이 모험임을 알고 있던 울프는 독특한 결혼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레오나드에게 아무런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에게서도 성적 만족을 구해서도 안되고 자기는 기필코 작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관계란 보통 결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

는 이례적인 것이다. 레오나드로서는 울프의 결혼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식민지 실론에서 쌓아온 공무원 경력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처음부터 다시 개척해야 함을 뜻했다. 그러나 레오나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때문에 남자쪽이 자기 기반을 포기한 보기 드문 예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자세한 결혼생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울프는 결혼생활이 주는 압력이나 처녀작 출간을 앞둔 두려움 때문에 심한 신경증 증세를 보이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울프는 처녀작을 출간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신감을 회복하여 사춘기 시절부터 겪어온 신경쇠약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기차고 즐거운 작가 생

활을 꾸려나갔으며 매년 다른 형식의 새로운 작품을 열심히 써 나갔다. 레오나드도 자전적인 소설을 간행하였고 정치평론가로서 또 잡지 편집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그들의 결혼생활은 자리를 점차 잡아갔다.

결혼생활 초기에 있었던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17년에 재미삼아 인쇄기를 사다가 거실에 놓고 짧은 글들을 소량으로 직접 인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프의 유명한 단편 「벽위의 표시」라는 작품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다. 울프는 인쇄, 제본, 배포와 같은 실질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글쓰기의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책의 생산 조건에 대한 생생한 현실감각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잡지사나 출판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싶지 않은 것을 써야 했으나, 이제는 자기 소유 출판사를 가짐으로써 마음놓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에는 출판사에 작품을 보내놓고 나서 비웃음받거나 거절당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울프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다. 이 출판사가 바로 현재 영국에서도 가장 명망있는 호가스사의 전신이다.

이후 울프는 1925년에 「델러웨이 부인」, 1927년에 「등대로」, 1928년에 「울란도」, 1929년에 「자기만의 방」을 발표함으로써 작품으로나 삶에서나 절정에 이르며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작가로 성공하여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되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캠브리지 대학 교육을 받은 오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명예를 누리고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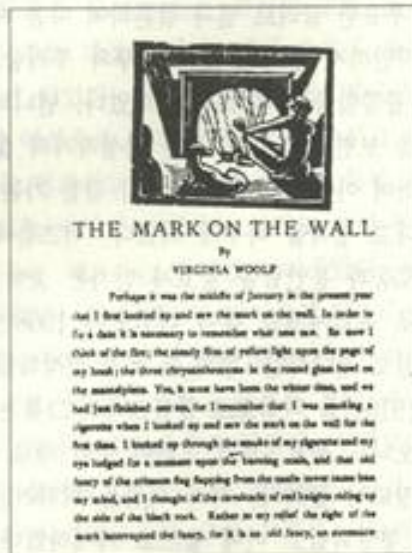
90년대 들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자기만의 방」은 울프 소설의 이론적 근거를 밝혀놓은 평론으로서 페미니스트 문학이론의 초석을 이룬다. 「자기만의 방」은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직접 터뜨리는 방식보다 아이러니와 풍자로 정제된 재현 방식과 편안한 대화체를 써서 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완곡한 방식은 결코 여성문인으로서 울프가 느낀 중이나 분노가 약해서가 아니다. 일차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내보이고 남성중심사회의 부당함을 일방적으로 항의해서는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예술이 아닌 선전, 설교로 기울어 예술의 아름다움과 힘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 울프는 남성중심사회를 향한 비판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성차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을 작품에 아름답게 담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여기는 작가였다.

예술과 정치의 와중에서, 생의 마지막 십년

울프의 생애 중 마지막 십년간을 휘몰아친 유럽 정치현실은 울프의 작품활동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울프는 남성중심사회의 비인간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철저한 국외자 작가였지만 정치적인 변혁 프로그램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작가는 아니었다. 1935년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평화주의나 파시즘, 전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 때 울프는 노동당 회의나 국가 평화화문위원회 등에 반전론자로서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틈틈히 써서 발표한 「세월」은 작가 자신이 많은 불만을 가졌던 작품인데, 의외로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울프부부의
작품을 직접 인쇄했던
작은 수동인쇄기



수동인쇄기로 처음 출판한 단편 「벽위의 자국」

비록 올프는 자신이 몸으로 겪은 바 있는 세상의 야만적인 불의에 맞서
직접 총을 들고 나가 싸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일부인 '글'로써 끝까지 싸운 성실한 지식인 여성이었다.

이후에 쓴 『3기니』는 1936년 스페인 내란 발발과 함께 참전론을 주장하는 젊은 세대에 속하는 조카 줄리안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할 필요를 느껴 집필하게 되었다. 올프는 『3기니』를 집필하는 중에 줄리안이 스페인에서 전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때쯤 피카소가 그림으로 독일이 점령한 게르니카의 참상을 고발하는 등 이전에 평화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던 지식인들 거의 모두가 참전론으로 돌아섰다. 올프의 남편도 참전에 찬성하는 가운데 올프처럼 반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 1938년에 출간된 『3기니』는 남성독자들의 반감과 혹평을 샀다. 그녀는 『3기니』를 통해 제국주의와 파시즘은 가부장제 사회에 그 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문화와 교육을 독점하고도 전쟁만 일삼는 남성중심사회의 야만성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소수자의 입장에 내몰리면서 올프는 자신의 생각과 작품이 발붙일 자리를 잃을까봐 늘 불안해 하였고 1940년 이래 런던의 자기 집까지 폭격을 받아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올프는 잠잠했던 신경증 증상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렵기도 했고 폭격을 받아 사지가 찢기는 최후를 맞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 견딜 수 없어 하였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시신이나마 온전히 보존하는 것으로 인간성을 지키고자 평소에 무척 좋아하던 강물에 뛰어들어 일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결국 올프의 반전론은 당대에는 빛을 보

지 못하다가 6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면서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계속되는 전쟁과 가공할 핵전쟁 위험 속에서 올프의 선구적인 성찰은 가슴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글로써 세상과 맞선 성실한 지식인 여성

올프가 처한 어려움은 사실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올프는 보통 여성이 인간다운 삶에서 물질(마음껏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일정한 수입으로 표상되는)이 갖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꿰뚫어보았다. 그녀는 흔히 평가받듯 부유한 영국 상층계급 여성으로서 보통 여성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역사에 무관심한 채 언어의 아름다움만 추구한 무책임한 여성작가가 아니었다. 올프만큼 기존 남성중심 역사를 배격하고 이름없는 보통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복원할 것을 일관성있게 역설한 작가도 드물다.

덧붙여 60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을 '나약하다'는 한마디로 평할 수 있을까? 올프는 남성중심사회가 길러낸 이복오빠들에게서 일찍부터 몹쓸 짓을 당하였고 많은 죽음들을 목격하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피해의식과 신경쇠약과 큰 슬픔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비록 올프는 자신이 몸으로 겪은 바 있는 세상의 야만적인 불의에 맞서 직접 총을 들고 나가 싸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일부인 '글'로써 끝까지 싸운 성실한 지식인 여성이었다.◆

문화마당

◆비디오관람석

한여름에 느끼는 홍콩영화의 매력

◆TV속의 광고

공익광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음악의 숨결을 찾아서

산조가락에 묻어나는 한국인의 멋과 흥

◆서평

성적 욕구의 발산인가, 지배력의 표현인가?

◆읽을거리

나를 가두는 또하나의 나

한여름에 느끼는 홍콩영화의 매력

김혜선, 구자진 한국여성민우회 <영화감상반> 회원

우리들은 영화를 통해 떠나 본 홍콩여행에서
그들의 정서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었다.
마음 속에 아니면 생각 속에
꼭 담혀있던 문 하나를 애정으로 활짝 연 셈이다.



원규 감독, 이연걸 주연의 「대도무문」의 한 장면

프롤로그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영화감상반>모임의 토론 속에서 정리된 것이다. 우리들은 홍콩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그들의 영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기 어려웠다.

영화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화보기가 아닐까?

우리들은 영화를 통해 떠나 본 홍콩여행에서 그들의 정서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공감할 수 있었다. 마음 속에 아니면 생각 속에 꼭 담혀있던 문 하나를 애정으로 활짝 연 셈이다. 헐리우드영화와 함께 영화에 관한 기억의 창고를 '분할점령' 해버린 홍콩영화 사이에서 우리 영화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과 홍콩영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영화는 현재 표류하는 홍콩인의 뿌리를 찾는 몸짓을 통해 "홍콩에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고 외치는 듯하다. 그리고 그 외침은 되돌아와 우

리에게 "그럼 우리나라의 영화는 어떠한가? 무엇을 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준다.

"난, 봤다하면 홍콩영화야"

"첫날, 이와나미홀을 방문하자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표가 매진되어, 단체예약은 가능하지만 좌석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 글은 「한국문화」 12월호 "1991년도 한국영화"에 실린 것으로 일본인 사토 구니오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갔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니, 우리 영화를 수출해?', '그것도 대성공!'

기쁘고 박수칠 일이지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현실 때문이다. 한국영화에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갖기에는 우리의 극장간 판은 온통 헐리우드영화와 홍콩영화 일색이기 때문이다. 흥행성으로 대표되는 미국영화의 UIP적배와 홍콩영화수입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새로운 영상물을 찾는 영화관객의 흥미를 돌리고 있지

만, 아직도 미국영화와 홍콩영화가 한국영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헐리우드영화만큼 한국의 영화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홍콩영화!

그런 이유로 '유치하다', '오락성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리는 홍콩영화를 무조건 외면하기 어렵다.

홍콩영화수입은 1965년 「방랑의 결투」를 시작으로 그 수가 날로 증가해 왔다. 65년부터 88년까지 수입된 홍콩영화 총 144편 중 1/4이 넘는 37편이 88년 한해동안 수입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홍콩영화는 비디오가게에서 차지하는 그 수적 비중에 비해 우리 관객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콩영화하면 일단 경시하는 사람이나, 봤다 하면 홍콩영화만 보는 사람 모두 홍콩영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인지 혹시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아니었는지, 홍콩의 영화현실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편견없이 이해해 보도록 하자.

홍콩인, 그들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

홍콩은 현 중화인민공화국 남부에 자리잡은 항구도시로 1898년 청조말기에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할양되어 아시아에서는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식민지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을 지녔었다. 구룡반도와 몇 개의 섬이 청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래 홍콩은 항상 두 개의 대립항 사이에서 부유하는 곳이 되었다. 그곳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국가이고, 유럽의 식민지이면서 또 한 중국인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1934년 상해의 영화제작소가 사회주의권을 벗어나기 위해 남하하다 홍콩에 자리잡았다. 당시 식민지 홍콩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메이드인 홍콩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은 영화밖에 없었다. 현재 홍콩인 30%가 영화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영화시장의 80%를 자국의 영화로 채우고 있다고 한다.

50-60년대 홍콩영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1,2차 산업 없이 곧바로 3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도시문제, 여성문제, 매춘문제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해어진 가족해체 문

「영웅본색」, 「침혈쌍웅」 등에서 잘 나타나듯 현실은 가장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주인공인 영웅들도 개인주의, 적자생존으로 고립되어 있어 영화 속에서조차 영웅들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귀신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제, 중국인도 대만인도 아닌 정체성 상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지향적이며 현실도피적이고 영웅주의를 통한 남성권위의 회복, 본토에의 향수가 그 특징을 이룬다.

그러나 1984년 영-중 조약체결에 따라 1997년 중국에 반환될 운명에 놓인 홍콩. 홍콩반환을 앞두고 1989년 6월 북경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홍콩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집단적 위기의식은 영화에도 나타나 허무와 패배주의가 팽배한 홍콩노와르를 탄생시켰다.

「영웅본색」, 「침혈쌍웅」 등에서 잘 나타나듯 현실은 가장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주인공인 영웅들도 개인주의, 적자생존으로 고립되어 있어 영화 속에서조차 영웅들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귀신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1997년 홍콩반환으로

불안감을 예감하고 있는 그들에겐 귀신들의 세계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와 똑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고통과 회노예락으로 빈민하는 유령들을 그려낼 수 밖에 없는 듯싶다. 그래서 홍콩인, 그들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

뉴 웨이브 세대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대부분의 영화도 홍콩노와르 계열과 무협영화들이다. 홍콩영화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 관객들도 아마 위의 두 종류의 영화만 편식한 셈일 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콩영화를 오락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홍콩영화들 중에서 우리의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좋은 영화들이 조금씩 눈에 띈다. 80년대 들어 부유하는 홍콩영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인 뉴 웨이브 세대의 등장이 그것이

다.

그들은 현실도피적인 상업영화가 판을 치는 현실과 과거에 안주하려 하고 새로운 것에 무관심한 기성세대에 대해 영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또한 관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데 성공했다. 뉴 웨이브 작가들은 본토에서 남하한 이민세대가 아닌 4,50년대 홍콩출생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에 성장했다. 그들은 또한 서구의 학문을 공부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연출수업을 쌓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작품성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와 광둥어와 북경어의 혼재 속에서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적 세계관에 도전하고 적용하면서 홍콩의 문화적 특성을 자신들의 감수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의 특색은 현실성을 강력히 추구한다는 것과 실험적인 기술 및 효과, 세밀하고 정선된 시각적 요소 등을 꼽을 수 있다.

97년 홍콩반환을 몇년 앞둔 시점에서 홍콩인들은 홍콩에 남을지, 떠날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홍콩영화가 포기하고, 회피하고, 무시했던 홍콩의 참

모습, 광둥어의 독특한 억양, 뒷골목의 번잡함과 어려움, 네온사인 휘황한 허깨비의 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홍콩인의 집단 무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홍콩영화이다. 홍콩 뉴 웨이브를 통해 나타난 작가주의(허안화, 왕가위, 서기...) 예술영화들에는 공통적으로 진짜와 가짜 사이의 혼란이나 사라지는 홍콩에 관한 문제제기, 서구적 문제의식 속에서 알아야 하는 아시아의 문제의식이 짙게 배어있다.

홍콩영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홍콩영화 새로보기'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우선은 뉴 웨이브 감독의 작품을 권하고 싶다.

1. 왕가위 감독

◆ 열혈남아(1988)

- 주연: 유덕화, 장만옥, 장학우

목표없이 살아가는 뒷골목의 '쓰레기 인생' 유덕화, 그리고 앞뒤 못가리는 고향 후배이자 부하인 장학우, 도회를 건디지 못하는 시골여인 장만옥, 허세



중지위 감독의 「열대야」, 임청하가 열연하는 모습

와 비열함이 주무기인 라이벌 캉패두목 만자랑, 이들 모두 어딘가 모자라고 삐그덕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작품은 영웅적인 인생과 사랑을 갈구하다 실패하고 마는 홍콩인들의 허무와 패배를 그리고 있다. 무모한 복수를 일삼는 극중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정의에 대한 희망을 잃은 홍콩인의 삶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의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 죽은 줄만 알았던 유덕화는 식물인간이 된 채 교도소에 들어와 있고 면회온 장만옥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덕화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홍콩관객은 유덕화의 살아남음과 장만옥의 기

다름에서 무엇을 읽을까?

◆ 아비정전(1989)

- 주연: 장국영, 장만옥, 유덕화

계모살하에서 자란 음울한 분위기의 남자가 친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무자비한 폭력이나 황당한 웃음을 거부한다. 빠른 쇼트나 느린 동작을 쓴 과장 수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카메라를 고정시켜 후덥지근한 아열대 기후로 땀이 축축하게 배인 인물들의 고독과 상실을 이야기한다.

냉정함 속에서도 서정을 잃지 않는 연출에 영화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왕가위감독은 이 작품에서

97년 홍콩반환을 몇년 앞둔 시점에서 홍콩인들은
홍콩에 남을지, 떠날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홍콩영화가
포기하고, 회피하고, 무시했던 홍콩의 참모습, 광둥어의 독특한 억양,
뒷골목의 번잡함과 어려움, 네온사인 휘황한 허깨비의 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홍콩인의 집단 무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홍콩영화이다.

"세기말의 도시에도 희망은 있
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2. 허안화 감독

◆ 호월적고사(1981)

- 주연: 주윤발, 나철

전쟁의 와중에서 겪은 갈등과
아픔을 그린 영화로 장소와 인
물을 베트남으로 대체시켜 홍콩
인의 미래를 묻고 있다. 마땅히
머무를 곳도 없고 미래가 불투
명한 홍콩인의 현실이 더욱 강
한 집단적 공포심으로 영화에
표현되어 있는 듯하다.

◆ 투분노해(1982, 비디오 제 목은 「망향」)

- 주연: 임자상, 마사진, 유
석화

일본인 사진작가가 통일 베트
남의 어두운 모습을 취재하면서
생긴 이야기다. 허안화 감독을

특정짓는 기본 모티브는 '뿌리
없음'과 '탈출'이라 할 수 있
다.

같은 운명에 처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파
멸할 위험에 처한 혹은 파멸하
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지'
등장인물들의 불행이 개인적 동
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이 너
리를 떠나지 않는다.

◆ 객도추한(1990)

중일 전쟁 때의 인연으로 중
국인 장교와 결혼한 일본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
이 주인공이다. 중국문화에 적
응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싫어하
는 딸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의 조국 일본을 방문한다.

조국과 가족의 이야기를 섬세

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허안화의
대표작이며 훌륭한 작품으로 평
가받고 있다. 일본인을 어머니
로 중국인을 아버지로 두고 홍
콩에서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의 허안화 작품: 서검은
구름, 향향공주(1990)

3. 관금봉 감독

◆ 지하정(1986)

90년대 홍콩영화계를 이끄는
관금봉 감독은 60년대 홍콩 젊
은이들의 허무와 사랑을 다크블
루톤으로 채색하면서 감상자로
하여금 그들의 질식할 듯한 청
춘에 공감하도록 한다. 등장인
물들의 허무와 상실이 화면 가
득 배어나오는 영화이다.

◆ 인지구(1987)

- 주연: 장국영, 매염방

진정한 인간의 드라마를 느끼
게 하는 영화. 아름답고 신비로
울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생의
의미까지 반추해 보게 하는 영
화이다. 다소 황당무계한 사랑
얘기인듯 보이나 감독은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점점 왜소해지
는 개인의 의미와 산업사회의
비인간적인 단면들을 지적한다.

◆ 원령옥(1991)

- 주연: 장만옥, 양가휘

1930년대 중국 영화계의 프
리마돈나로 섬광처럼 뜨겁게 살
다간 영화배우 원령옥의 일대기
를 특이한 구성과 신선한 기법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감독의 치열한 역사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4. 구정평 감독

◆ 하일군재래

- 주연: 양가휘, 매염방

중국(1941년 11월 상해)을
배경으로 그 시대를 찍었지만
결말을 가족이라는 주제에 결합
시키는 모습에서 홍콩영화 특성
을 느낄 수 있다. 주인공의 마
지막 대사 "우리엔겐 선택할 기
회조차 없었다"가 지금 홍콩인
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은 아
닌지...

5. 서기감독

◆ 노랑구소(1986)

- 주연: 엄덕한, 후 샤오시엔
경찰관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 인근에서 일어난 살인사
건에 말려들면서 이야기가 전개
된다. 독특한 카메라기법을 느
낄 수 있다. 뛰어난 화면구성과
중간중간 보이는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줄거리 중심의 감상보다는 세
로운 영상훈련을 경험하고픈 관
객에게 권하고 싶다.◆

허안화 감독의
기본 모티브는
'뿌리없음'과 '탈출'

홍콩 뉴 웨이브의 산봉인
명절 여성감독 허안화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반추해 보게 하는 영화

몽환적 러브스토리
'인지구'의 한정연



중국 영화계의 프리마돈나
원령옥의 일대기

장만옥이 베를린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원령옥'



공익광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명준 노동자뉴스단 대표



공익광고의 등장

어느 사이엔가 우리 생활 깊숙히까지 침투해 들어온 갖가지 광고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펼쳐든 신문에서부터, 저녁식사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즐기 위한 TV시청시간까지 비집

고 들어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달아나 버린다. 이러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꽤 쓸만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광고'의 역할은 단지 상품에 대한 정보만을 늘어놓는 도구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바로 그 예가 공익광고가 아닐까?

최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공익광고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아마도 '공익을 위한 광고'쯤이 될 것이다.

여기서 공익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을 뜻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들은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공익광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무척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광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광고의 실상을 진단해보도록 하자.

저렇게 일하다간 다 죽겠다!

90년대 초반부터 여러가지 공익광고들이 TV에 자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공익광고들 중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익광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화면 가득히 스페너가 바닥에 떨어지며 나직한 목소리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일하기보다 놀기를 좋아하고, 야근고 저축하기보다는 생각없이 쓰는..."

결국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음에 살펴볼 광고에 비하면 양반인 셈이다.

심각한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화면에는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들이 과격하게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한 노동자는 '공휴일 근무시 수당 300% 지급하라!' 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있고, 다섯명의 노동자들이 허겁지겁 뛰어오며, '물가'라는 이름이 적혀진 풍선을 붙잡기 위해 애쓴다. 곧이어,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같은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에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임금이 뛰면 물가도 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속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화사한 음악과 함께 굵은 글씨의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임금안정, 경제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항상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

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노동통제정책도 바뀌고, 노동통제정책이 바뀌면 공익광고도 달라진다. 사실 문민정부가 그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려면 이러한 공익광고들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무척 빠른 박자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온갖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일새없이 화면이 바뀌고 마지막 순간 한 노동자가 얼굴의 땀을 훔쳐낼 때 길다란 자막이 화면 중앙을 가로지른다.

"신경제, 그 일하는 손이 아릅답다"

이 광고를 본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일하다간 다 죽겠다."

94년에 접어들어 노동문제를 다루는 광고의 주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모아진다. '국제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강조하는 논리라는 점이 야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광고들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들에게 일상적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광고들의 목적

은 노동자를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동운동을 다른 사회계층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데 있는 셈이다. 이 광고들이 집중적으로 방영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광고들의 정치적 성격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임금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4, 5월경에 이러한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정부와 자본이 영상매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들이 얼마나 공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공익광고들은 없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만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국민을 열등민족으로 만드는 환경공익광고

노동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공익광고들은 널려있다. 그 한가지 예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들을 살펴보자.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자, 공익광

고에서도 환경문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공익광고들은 얼핏 보면 그저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례 한가지를 살펴보자. 하얗게 탈색되어 있는 배경화면 위로 한 젊은 가정주부가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다. 화면의 아래쪽에서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자막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있다. '1인 쓰레기 배출량 세계 1위' 그리고 계속해서 화면이 바뀌면서, "종이류를 아껴쓰면 쓰레기가 절약되고..." 등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물품 절약한 한 번 이야기할 때마다 쓰레기봉투와 함께 주부의 몸은 점점 날씬해지고, 마침내 조그만 봉지가 되어버린 비닐봉투를 들고 젊은 주부는 춤을 추듯 한 바퀴를 돈다.

우선 궁금한 점 한가지. 세계 1위라는 통계는 사실일까? 그렇다. 통계 그 자체는 사실이다. 그렇다면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물건을 가장 헐프게 쓰는 민족일까?'에 대한 대답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

이다. 이 통계에는 연탄재 등을 비롯해서 난방에 쓰이는 각종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활용을 위한 정책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우리 실정에서 이 통계만으로 국민을 낭비벽이 심한 열등민족으로 묘사하는 것은 편향된 해석이다.

이 광고의 결론을 압축해본다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책임이 개인들의 낭비에 있고, 개인들의 절약을 통해서 쓰레기가 줄어들면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럴까?

물론,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물자를 아껴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폐놀사태나 얼마 전에 있었던 낙동강 오염사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원인제공자는 주로 이윤획득에 눈이 먼 기업들, 그리고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언제나 사후 약방문 만들기에 급급한 정부에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문제를 다루는 공익광고들 중 절대다수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광고들 중 상당수를 협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광고에 협찬할 돈이 있다면 오염방지 시설에 투자를 해야죠" 어느 환경운동가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기업 이미지도 신경써야죠' -평먹고 알먹는 협찬광고

그런 공익광고는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공익광고들을 만드는 주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공보처가 있다.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의 손이 나오면서 '신경제,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바로 공보처에서 만든 것이다. 공보처는 정부기관인 만큼 이곳에서 만드는 광고들은 당연히 정부정책을, 그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 다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드는 광고들이 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흥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만든 광고들이 노동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복을 치는 장면으

로 시작되는 광고의 경우, 복을 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러 노동자들의 땀흘리는 모습이 리듬감있게 스쳐지나간다. 그리고 "이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있다"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노동에 대한 찬사가 TV광고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인데, '노동'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불순세력으로 몰리던 시대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이니까.

이러한 두 기관의 광고들은 광고 내용에 있어서 언제나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세련된 공익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거나 어린이들의 꿈을 다루는 등, 기존에 보았던 광고들과는 내용과 완성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끝부분에 언제나 '누구누구 협찬입니다'라는 말들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 광고

협찬광고들은 공익광고라기 보다는 기업 이미지광고와 비슷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껍데기를 쓰고 기업을 선전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들을 흔히 협찬광고라고 부른다. 이 협찬광고들은 공익광고라기 보다는 기업 이미지광고와 비슷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껍데기를 쓰고 기업을 선전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협찬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찬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돈을 대는 협찬기업이고 이들이 공익광고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공익광고 내용에서 기업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협찬광고들은 상업주의의 또다른 얼굴인 셈이다.

공익광고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사실, 우리사회에서 공익성의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거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공익광고가 특정계층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지금의 공익광고는 그 내용이나 제작주체, 제작과정에서 그러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익광고가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려면, 공익광고를 만드는 구조 속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공통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라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그 내용과 소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라면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거나 사회계층간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상존하는 소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공익이란, 말 그대로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의 가능한 많은 사회계층의 공통된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조가락에 묻어나는 한국인의 멋과 흥

김태균 음악평론가

“

조선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봉건사회의 해체와 이와 맞물리는 민중의 진출은
바로 음악에도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초들이 이룩해 놓은 민중악(民樂)이 대거 조선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이즈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국악과 민요
그리고 판소리를 바탕으로
산조가 활짝 꽃피었기 때문이다
(본문 중)

”

저무는 역사에도 민중의 물줄기는 흐르고

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왔고 낙수소리와 함께
세상은 곧 어두워졌다.

근대를 향한 개화의 몸부림도
이렇게 어둠으로 변하고 있었
다. 김옥균이 죽고 대원군마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 전
봉준까지 목이 잘려 저자거리에
내걸려졌을 때 우금치 마루에
조선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다.
조선은 통곡하고 우금치로 간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
며 조선의 운명도 그렇게 흘러
갔다. 오얏나무(李)아래서 오백
년동안 피어난 조선의 꽃은 이
렇게 낙화하고 있었다.

갈수록 왜놈들의 기세는 등등
해졌다. 남산에 본정을 차리고
저자거리를 계다짜으로 짓밟으
며 다녔다. 거리에는 교회당이
생기고 왜놈들의 신사가 만들어
졌다. 조선인이면 모두 탄압을
받아야 했으니 왜놈에게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근대를 향한 민중의
각성은 우금치에서 꺾이지 않았
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무
너지면서 봉건의 낡은 각질은
깨졌으며, 무엄하게 밀려오는
외세에 맞서 척양척왜의 기치를

모두 죽어나간 땅,
그러나 민중들은 어머니와 같은
조선의 산하를 버릴 수는 없었다.
현실을 억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되치고 나오는 힘이
강한 법이다. 이는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후기의 음악상황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든 민중항쟁이 도도한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근대음악 - 산조

근대정신의 요체는 리얼리즘
이다.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
을 바탕으로 민중들의 각성된
예술적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것이 리얼리즘이라 한다면 한국
의 근대정신은 바로 그 민중들
의 자각 그리고 진출과 긴밀하
게 맞닿아 있다. 그런 면에서
격동의 구한말을 배경으로 서서
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산조는
민중들의 사상을 밀거름으로 발
전하기 시작하는 근대음악의 효
시일 수 있다.

모두 죽어나간 땅, 그러나 민
중들은 어머니와 같은 조선의
산하를 버릴 수 없었다. 현실을
억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되치고 나오는 힘이 강
한 법이다. 이는 예술에서도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의 음악상황은 이를 잘 반
영하고 있다.

흔히 궁중에서 발달한 음악을
아악(雅樂) 혹은 정악(正樂)이
라 한다. 이른바 우아하고 바른
음악이란 뜻이다. 반대로 민중
들의 음악은 속악(俗樂), 혹은
잡악(雜樂)이라 불리었는데, 문
자 그대로는 속되고 잡스런 음
악이란 뜻이지만 민중 속에서
깊이 뿌리박고 자라난 만큼 인
간적인 감정이 진하게 배어있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런 가치기준은 우리 전래의 철
학관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 그것과는 달리
우리 조상들은 음악을 추상적인
음의 놀음이나 인간을 벗어난
형이상학적인 놀음으로 생각하
지 않았다. 수신과 치국의 원리
로, 예(禮)를 올바로 세우는 중
요한 정신수양의 도(道)로서 악
(樂)을 규정지었던 것이다. 그
러므로 누가 향유했냐에 따라
바로고 속되다는 가치설정은 다



분히 봉건적인 통치이데올로기가 조작해 놓은 왜곡된 음악관이다.

조선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봉건사회의 해체와 이와 맞물리는 민중의 진출은 바로 음악에도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중들이 이룩해 놓은 민중악(民樂)이 조선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대거 등극한 것이 바로 이즈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굿과 민요 그리고 판소리를 바탕으로 산조가 활짝 꽃피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맛과 흥의 발산

산조를 키운 것은 굿판에서 피어난 시나위 그리고 판소리라고 한다. 곧 산조는 시나위에서

잉태되어 판소리를 통해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나위는 신창(갯당)에서 자란 음악으로 최근 일본이 사물놀이에서 이어 또다시 판권을 사간 기악곡인데, 피리, 대금, 가야금, 아쟁의가락이 거침없는 물질을 이루어, 때론 조화롭게, 때론 서로 충돌하며 흐르는 음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시나위야말로 한국인의 흥과 멋, 신명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음악이다. 이런 음악이 일본에 의해 제작, 보급되고 있으니 지하에 묻힌 조상이 자다가도 통탄할 일이다. 굿을 없애기 위해 일제가 벌였던 그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버틴 결과

결국 '죽 썰서 개준 풀'이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한눈을 판 사이 멀리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 음악의 가치를 미리 알고 판권을 하나하나 사가고 있는 형편이다.

하여튼 합주형태의 시나위를 모태로 독주곡인 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합주는 아무래도 여러 악기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의 독특한 음악적 표현을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감이 있었다. 시나위판이나 굿판에서 익힌 악기솜씨를 충분히 펼쳐낼 또 다른 그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용의 발달은 형식의 발달을, 그리고 형식은 다시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음악양식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음악적인 체험 중에 판굿은 각 악기가 표현해 낼 수 있는 최대치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흔히 악을 치는 솜씨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장고잡이, 북잡이, 징잡이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바탕으로 한껏 뽐내는 풍물판은 말 그대로 천지를 뒤흔들며 버린다. 그런데 이러한 판굿과 같은 민중들의 예술경험이 산조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가야

금이면 가야금, 거문고면 거문고를 다루는 솜씨가 한껏 경지에 올라야 산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조는 바로 이런 민중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에 예술을 배운 산조

판소리는 산조의 아버지와 같다. 시나위라는 모태에서 자라기 시작한 산조를 예술가의 모습으로 키워낸 것이 판소리로 산조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판소리가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붙이는 것과 같이 산조는 장고장단에 맞추어 기악선율을 붙여나간다. 그리고 판소리가 우조 혹은 계면조를 바탕으로 선율을 구성해 나갔듯이 산조 또한 판소리의 이런 선율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판소리꾼이 소리에 더듬을 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소리해석을 집어 넣어 독특한 경지 즉, 각종 유파를 만들어 냈듯이 산조 또한 더듬을 하여 많은 유파를 탄생시켜 나갔다.

이렇게 산조는 민중들의 예술적 체험인 판굿과 악기들의 판굿인 시나위를 바탕으로 판소리에 예술하는 법을 배워 자란 기악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느린 진양에서
사람의 애간장을 슬슬
녹이기 시작하다가도
중중모리, 그리고 휘모리에 이르면
소리가 하도 빨라
곡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이른바 정중동(精中動)의
경지인 것이다.

나 판소리에 비해 산조는 장단의 체계가 잡혀있어 진양이라는 아주 느린 장단에서 휘몰이라는 아주 빠른 장단까지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서 타나가는 장단놀음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精中動

산조의 길을 처음 열어 나간 것은 가야금이다. 조선이 낙화하던 시기에 태어난 김창조라는 가야금주자가 산조를 처음 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창조가 가야금산조를 탈 즈음 이미 산조 형태의 악기연주가 전국을 돌 정도로 유행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가야금 12줄에서 부리는 오묘

한 소리의 조화가 산조를 통해 이루어지면 못사람들의 애간장은 슬슬 녹는다. 또, 느린 진양에서 사람의 애간장을 슬슬 녹이기 시작하다가도 중중모리, 그리고 휘모리에 이르면 소리가 하도 빨라 곡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이른바 정중동(精中動)의 경지인 것이다. 김창조가 열기 시작한 가야금산조에 수많은 악사들이 참가하여 독특한 해석의 경지가 펼쳐진다. 이른바 판소리의 더듬과 같이 산조의 유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 김죽파류와 최옥산류가 불만하다.

최옥산은 농부의 아들이었다. 낮에는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돌아와 흙배인 몸을 정갈하게 씻고 가야금을 탔다. 농사일로 알뜰겨진 살내음 그대로의 몸짓으로 가야금을 탔다. 먼산의 폭포소리였을까, 아니면 깊은 산 속에 홀로 울다 지친 두견소리였을까!

그러나 최옥산은 민중의 아들이었기에 격동하는 역사의 현장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서 지워졌다.

최옥산류는 아주 격동적이고 힘이 넘친다. 그래서 여타의 가

야금산조와 곡태가 틀리다. 그의 삶 자체가 대하적인 역사의 숨결을 안고 있기에 장강과도 같이 도도한 소리를 냈을 것이다.

가야금에서 시작된 산조는 이후 거문고산조, 통소산조, 대금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 아쟁산조 등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거문고산조를 처음 만든 것은 백낙준이다. 거문고는 당시만 해도 선비들이 즐겨 타던 품위있는 악기였다. 그래서 거문고를 백악지장(百樂之將)이라 했다. 즉 모든 음악을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다. 그런 장군이 산조 같은 저속스런 음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시나위판에서 거문고를 타던 백낙준은 이런 통설을 과감히 깨고 거문고산조를 만들었다. 백낙준이 만든 거문고산조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박석기와 김종기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한갑득, 신쾌동, 김윤덕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달 밝은 밤, 만경평야에서 울리던 신쾌동의 거문고산조는 도끼 메고 산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낙이 부른 도이가의 노랫

가락과 같다. 대개의 산조가 시나위 혹은 구음시나위 가락을 산조가 락에 얹어 놓았다면 신쾌동의 거문고산조는 신쾌동이 자란 전북 익산의 민요 가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바로 익산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애환이 풀어져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드넓은 만경평야. 그것은 풍요라기보다는 수탈의 대상이었다. 드넓은 평야에는 한숨만 넘쳤다. 저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을 모두 왜놈이 착취해 가니 남은 것은 죽창이밖에 없었다. 기름진 땅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하는 농민들의 삶은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래서 만경평야 달 밝은 밤에 울려 퍼지는 신쾌동의 거문고산조는 노래가 아니라 절규이기도 하다.

박종기는 젖대를 하도 목이 메이게 붙어 피를 토하고 죽었다. 대금을 흔히 젖대라고 한다. 젖대 소리를 아는가? 칼바람 소리가 나는가 하면 대나무 소리가 나고 또, 청상과부 신음 소리인 듯하는 젖대소리에 휘말리다 보면 마치 달빛을 가르며 음율이 춤을 추는 것 같다. 박종기가 붙은 피를 한웅큼 쏟아내고 죽은 그 자리에 젖대산조가 피기 시작한다. 박종기의 젖대산조는 한주환 그리고 한범수로 이어지고 다시 서용석, 김영동 그리고 이생강으로 이어진다.

해금은 묘한 악기이다. 양중

맞은 애첩이 양탈을 부리는 애교넘친 소리 같기도 하고, 거지들의 동냥소리같이 처량하기도 하며, 굿판에선 신바람이 붙은 소리 같기도 하다. 해금은 아주 섬세한 표현과 해학적인 표현, 그리고 신명난 표현에 다 능한 악기이다. 그래서 지영회는 경기지방의 굿가락을 근간으로 독특한 지영회류 해금산조를 만들었고, 한범수는 전라지방의 굿가락을 근간으로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만들었다. 이들 해금산조는 굿청에서 신명을 내는 무당의 춤바람만큼이나 신에 겨운 가락이다.

이외에도 아쟁, 통소 그리고 단소산조 등이 있는데 아쟁산조 외에 통소산조나 단소산조는 안타깝게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길을 낼 수 있다. 이들 악기가 가고자한 소리의 길을 알면 산조로 위어내는 것은 그리 문제가 아니다.

민중의 음악역사는 꽃을 피우리라
조선 후기에 민중들의 진출과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한 산조는 모든 국악기에 통용되며 산조의 길을 열어왔다. 그러므로 근대 음악사는 산조로부터 시작되고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고 말할

수많은 악사들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산조의 길을 더욱 넓혀오고 있다. 그래서 전통이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져 있음을 전율할 정도로 체감하게 한다.

수 있다. 수많은 악사들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산조의 길을 더욱 넓혀 오고 있다. 그래서 전통이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져 있음을 전율할 정도로 체감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 역사에 면면하게 흐르는 민중의 역사가 산조를 개화의 꽃처럼 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민중의 역사는

삶이 있는 한 불멸의 꽃으로 활짝 필 것이다. 산조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날이 전통이 무참하게 짓밟힌 시대라 하지만 전통은 해와 같은 것이라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도 긴장마라 해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알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단지 먹구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전통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 말이다.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민중적 토대에서 굳건하게 자라고 있다면, 최옥산이 피우고 박종기가 피를 토하고 신쾌동이 처절하게 울었던 민중의 음악역사는 반드시 불멸의 꽃을 만대에 피울 것이다. 산조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음반

「신쾌동 거문고산조」 아세아 레코드

「가야금, 거문고, 아쟁, 산조모음」, 신세계

「기악, 농악, 가야금, 거문고산조」, 아세아

「가야금산조의 명인들(김해선, 심상건, 정남희, 안거옥, 김종기)」,

서울음반 SRCO-1101

「시나위, 아쟁산조, 해금산조」, 서울음반

「서용석 대금산조」, 현대음반

「김영동 대금연주집」, 서울음반

「성금연 가야금산조」, 성음



성적 욕구의 발산인가, 지배력의 표현인가?

강 소 향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성희롱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의 특성이 채용, 지속적 고용, 직장내에서의 승진, 혹은 업무상 특혜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인종, 연령, 문화적 배경 등의 차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근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우영은조교의 번역

서 『이것이 성희롱이다』에서 다루는 중요한 메시지다.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의 혼돈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희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모르고 있다. 그냥 막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성희롱은 이성에 관심이 유달리(?) 많은 남성이 요염하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농담이나 접촉이며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제1호 직장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우조교는 조엘 프리드만 등 3인이 쓴 책의 번역을 맡았고, 그 답은 이 책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로서의 성희롱 이론의 발달과 배경, 제소방법의 선택과 가능한 조치들, 왜 성희롱이 일어나는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지각, 표현, 의사소통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남성은 태어나면 서부터 '투쟁을 통한 승리'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내면화하면서 자란다. 따라서 독립성과 자부심을 지니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감정적

인 친밀함에 기초를 둔 개인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성취적, 투쟁적, 세력과시적 속성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교육받으며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대결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을 통해 공감과 토론을 시도하고, 거리낌없이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희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의 친절, 협조를 성적 친밀감의 표시로 오해하기 쉽고, 여성의 외모와 치장을 칭찬해주는 것을 친절,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며 여성의 매력, 편리함, 복종심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조교 성희롱재판 승소 사건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할 무렵 TV토론의 한 출연자(명문대학의 교수)가 한 말은 이러한 남성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성희롱을 당하는 여자는 다

“성희롱 당하는 여자는 다 예쁜 여자들입니다. 솔직히 못생긴 여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보았나요?”

우조교사건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할 무렵 남성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들이 무성했다.

예쁜 여자들입니다. 솔직히 못생긴 여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보았나요?”

하지만, 성희롱의 피해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하더라도 남성들의 지나친 관심을 대하는 여성들의 마음은 남성들의 생각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낮은 지위와 역할로 인하여 남성들의 성희롱에 불쾌한 내색을 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자아상실감 경험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클레어'의 사례를 보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호사 지망생조차 두려움과 상심에 싸여 맞대응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과 야망을 버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고 만다.

실제로 성희롱의 가장 큰 피해는 육체적 질병, 직장을 잃거나 옮기는 경제적 손실보다는

'자아를 상실하는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야심만만하던 여성일수록 정신적인 피해는 더욱 커서 자기비하와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성희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남성들의 우월한 권력의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취급돼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대가로 불쾌한 성적 접근쯤은 수용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적 요구의 수용 여부가 고용의 조건 혹은 고용상의 결정이나 개인적인 이해에 영향을 주는 '보복형 성희롱'에만 그나마 조금의 호기심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성적인 의도를 지닌 접근에 의해 '반복적으로' 근무환경을 방해하는 '환경형 성희롱'의 문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적 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 지배력을 휘두르려는 욕구의 표현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성희롱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여성도 우월한 권력을 지닌 상사로서 부하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단순한 성적 욕구의 발산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자와 지니지 못한 자 간의 관계로 보게 되면 문제는 명확해진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힘 없고 권력없는 약자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사용자의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사실 성희롱 문제는 역사 이래 계속 존재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인 절차(미국의 경우 공민권법 제7조 1에 의해 보장)를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제야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성희롱은 이제 그만!

한편 이 책에서는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남성들과의 대립을 줄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접촉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명확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가해자의 원하지 않는 행동유형, 빈도, 불쾌한 정도, 가해자의 이름, 다른 관련자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록해 두는 일이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면 주변 인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비공식적인 항의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의서 등을 제출, 공식적인 항의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 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용기가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과 주변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에서 정리한 '성희롱을 당하기 쉬운 경우'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많은 남성의 유형'을 발췌해 본다.

▶성희롱을 당하기 쉬운 경우

- 20대로 미혼, 이혼녀,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
-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직업으로 인식된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 약해 보이고, 겁먹기 잘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피로와 짜증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쉽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유형의 사람

- 여성을 불평등, 종속적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
- 여성을 경멸하는 말을 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는 사람
-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
- 부정과 감정의 억제가 지나친 사람
- 스트레스를 받으면 뿔뿔해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록에 실린 일본 판례와 미국 성희롱 가이드라인, 미국판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꼭 읽어보아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나를 가두는 또 하나의 나

이 제 진 「새내기를 위한 여성관련 도서목록」 공동저자

여성의 심리를 다룬 책은 84년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번역되어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은 이후 잠잠하다가 90년대 들어 부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의 번역서들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 남녀관계 등 일상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심리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책들은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에서 활발히 출판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제도적인 성차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보다는 가정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여성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일이나 남녀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보다 적극적

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 내면화된 어떤 성향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책들은 성차별적 사회를 이루는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여성의 심리와 의식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여성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가 여성문제 해결의 첩경임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와

『일곱가지 남성 콤플렉스』가 출판되어 우리사회에서도 여성 혹은 남성의 내면에 깔린 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문제에 관한 이와 같은 심리적 접근은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이 버티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자칫 여성 개인의 몫으로 문제를 떠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 역시 태어날 때부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디까지가 차별

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그렇게 사는 것' 인 줄로 생각하거나 혹은 차별인 줄 알면서도 그에 적응함으로써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차별적 현실에 기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들은 흔히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없어하며, 당하는 데 익숙해 있음으로써 원하는 바를 요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때가 많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성향이나 심리를 파악하고, 그러한 심리 속에 녹아 있는 여성으로서의 규정을 읽어내는 일은 여성문제 인식의 첫 단계이자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성심리를 다룬 책

들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흔히 가지기 쉬운 다양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성향을 유형화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는 책.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우울한 당신에게』,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되고』, 『우리속에 있는 여신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의존심리나 자기비하심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추구하는 책.

『신데렐라 콤플렉스』, 『착한 여자 콤플렉스』, 『난 어쩔 결혼 안할지도 몰라』, 『여성이여 이렇게 자립하라』, 『24세의 여성철학』, 『깨어있는 당신을 위한 여성의 큰 목소리』

▶기존의 남녀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유

를 여성과 남성 속에 내면화된 독특한 성향이라고 명명하고 그 원인을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

『왜 여자는 남자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다』, 『첫사랑이 마침표를 찍을때』

▶보다 완벽한 여성으로 평가받기 위한 강박관념을 가진 여성들, 확고한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남성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심리와 갈등을 추적한 책.

『퍼펙트 우먼』, 『하버드의 여자들』

▶남녀의 성향과 역할 차이를 전제하면서 상호간의 차이를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조화로운 남녀관계를 추구하려는 책.

『언어탄 벤츠보다 자전거가 낫다』,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의 비밀, 남자가 알아야 할 여자의 비밀』, 『살은 모두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들 책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우려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마치 개인적 차원의 처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섯번째 유형의 책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남녀간의 의견충돌, 여성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남성의 표현이나 행동방식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등이 남녀간의 성향과 행동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점을 포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차이의 발생원인을 짚어보지 않고, 남녀의 차이 자체를 전제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나 성향을 수용하는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니기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 미처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을 꼬집어 보여주는 책들을 소개하려 한다. 아래의 책들은 책 제목에서 자칫 거부감을 갖거나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깊숙히 각인된 무의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책을 펼쳐보자.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현암사
1992/252쪽/4,800원

우리사회의 여성문제를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 콤플렉스란 전체 성격 속에 있는,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작은 성격을 말하며,

이러한 집착은 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성상, 즉 착하고 순결하고 순종적일 것 등을 추구하고 그에 집착함으로써 행

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저자들은 이를 '여성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이 책은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만의 여성콤플렉스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현대 한국 여성들은 착한여자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성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말 콤플렉스, 수퍼우먼 콤플렉스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한 콤플렉스는 우리가 자신을 중

심으로 주체적 삶을 선택하려는 순간순간마다 걸림돌이 된다.

이 책은 여성들이 각각의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원인과 그것이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측면들을 성차별 사회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와 사례를 통해 여성들이 각각의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비율과 정도를 파악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 모든 콤플렉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져 씁쓸하지만 각 콤플렉스와 연관하여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 좋다.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수진 포워드/이지수역/심지/1993/344쪽/5,800원

그가 당신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중요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는 고향을 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화난 얼굴로 침묵을 지키며 당신을 무시합니까?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할 내용을 미리 연습한 다음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다정하게 굴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서, 당신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낍니까?

뭔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는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나요?

위의 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과 사는

사람이다.

이 책은 결혼생활에서 여성에게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과 그러한 상황을 견디며 함께 사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자신과 내담자 그리고 무고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과 '그 남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여성'의 전형적인 삶의 양식들을 서술하면서 왜곡된 남성지배문화를 포착해 낸다.

1부에서는 지배-종속의 남녀관계가 지속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연애 초기부터 신혼의 시작과 끝, 최초의 폭력,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스런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뜨거운 사랑 뒤에 숨겨진 실상과 애초에 존재하고 있었던 위협의 여지를 파헤친다. 그리고 남성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과 여성들이 그런 학대를 감수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2부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힘을 가진 후에야 대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홀로서기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왜 여자는 남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파넬로프 러쉬노프/원재길역/황제/1994/269쪽/5,000원

심리학자인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많은 여성들의 임상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남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여성 내부의 속삭임을 꼽고 있다. 이러한 속삭임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없이는 공허하다는 느낌, 즉 필사적인 의존심을 지니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 여기에 저자는 '필사적인 의존심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필사적인 의존심리는 늘 남자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그에 맞추는 것으로 남자를 생각하며 태도, 말 등을 연기하는 것, 복수를 준비하는 것, 아침을 하는 것 등으로 표출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의존심리를 가진 여성들이 그들의 불행한 상황을 운명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활방식이 점차 굳어지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의존심리로 인해 여성들이 스스로

로 삶을 구축하는 방식과 원인을 분석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빠지기 쉬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로 혼자 갖는 법, 동성과 이성 친구간의 관계 조절하기, 돈과 경력에 대한 확고한 인식 등을 잊지 말 것을 덧붙인다.



『사랑이 지나치면 상처도 깊다』

로빈 노우드/김유동역/문학사상사/1992/321쪽/4,800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에 몰두하지만 결국 상처만 입고 고통 속에 빠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 모두 사랑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환상은 '사랑'을 '희생', '열정' 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우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치게

사랑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고통을 동반할 때, 다정한 친구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그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그이」의 감정이 어떻게, 저렇고 하며, 말끝마다 「그이는...」하거나 「남자란...」하고 말의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이거나 애인이 등장하는 상태.

사랑하는 남성이 침울해지거나 자주 자신에게 불쾌감을 나타내거나 무관심 또는 혹평을 하게 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여성들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그의 성격이 괴팍하지는 않은지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자의 부정적인 성격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그

남자의 일그러진 성격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나선다면 그녀는 확실히 '지나친 사랑'에 중독되어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그의 기질이나 가치관, 행동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신경을 곤두서게 할 경우에도 자신이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면, 그의 성격이나 태도가 고쳐지리라고 낙관하면서 참고 견디 나가는 것 역시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이 우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 집착하는 '사랑이 지나친 여성들'의 특징은 나라와 문화를 떠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자기없는 사랑'이 아닐런지를 생각해 보도록!

호랑이 굴에서 정신차리기

권영임 「미스김, 시집이나 가지?」 저자

순영이는 키가 조금 작을뿐이지만 얼굴은 귀염성이 있어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형이다. 꼭 외모 덕분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취업걱정을 할 때, 순영은 운 좋게 취업이 되었다.

순영은 경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것이 걱정은 되었어도 온근한 자부심도 있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보니 관리부장과 영업부장이 따로 있었지만 순영이는 두 부장을 다 모시는 입장이었다. 순영은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을 하고 바쁠 때는 출퇴근 시간마저 잊었다.

거래처에 접대할 일이 있으면 영업부장은 굳이 순영이를 앞세우고 갔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쁘게 따라갔는데, 세번째 참석하게 되었을 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기를 좋아하는 순영이었던만큼 친구들과 어울려 디스코텍에서 놀던 기분하고 거래처 접대의 자리를 혼동했는지 모른다. 경리담당인 순영이가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손님접대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는 김새를 알게 되자 그 때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미스리, 김사장님 한 잔 따라 드리지않고 뭐하고 있어?”

하는 부장의 재촉소리라도 들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은 더욱 두드러졌다.

“미스리, 오늘은 우리 둘이만 디스코텍에 갈까?” 라는 추근거림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경리업무는 부수적인 일이고 손님 옆에 앉아서 술시중드는 것이 본업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제는 핑계를 만들어 도망가기에 급급해졌다.

“남자친구하고 데이트가 있는거야? 그런 거래면 내일 만나면 되잖아?”

“오늘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해”

순영은 부장의 어조가 강압적인 것에 숨이 막혔다. 부장님 자리에 전화벨이 울리고 누구와 약속하는 소리만 들리면 갑자기 손에서 힘이 쑥 빠졌다. 한 번, 두 번 계속 핑계를 만들기도 힘들고 부장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까지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순영은 직장을 바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방팔방에 부탁한 덕분에 친척아저씨의 추천으로 제법 큰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순영은 서둘러 서류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찾아갔다. 최종적



으로 합격을 한 사람은 순영이었다. 아직 취직 못한 친구들도 많은데 순영이는 취업에 있어서만은 운이 좋았다. 조그만 회사와는 달리 조직이 매우 짜임새가 있었다. 자금부는 부장님, 과장님, 대리, 4급사원, 미스김언니(이름이 있는데도 모두들 그렇게 불렀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수준도 있어 보였다. 순영이가 지금껏 고민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야말로 일만 하면 된다고 안심했다.

순영이가 입사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부장님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동안 내가 좀 바빠서 미스리 환영회를 못해 주었는데, 오늘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환영회를 해줄 생각이야”

하면서 김대리를 보고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회람을 돌리라는 것이었다. 회람이 끝나자 남자사원들은 미스김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만 골라서 순영이가 들으라는 듯이 한 마디씩 툭툭 던졌다.

“오늘은 웬일로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하는 거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스리 환영회데 그것도 명색이 언니라는 사람이 참석을 안한다면 사람도 아니지”

순영은 평소에도 미스김언니가 좀 힘들었다. 아무말 않고 있으면 찬바람이 ‘췌’ 하고 불만큼 표정도 쌀쌀했다. 물론 순영이와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부터 가까이 갈 생각을 못했었다.

순영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입사하자마자 알게 모르게 미스김언니에 대하여 선입견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 미스김언니가 자리만 비우면 남자사원들이 미스김언니를 좋지 않게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스김언니는 남자 사원들과 말도 잘 하지 않고 농담은 더더욱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순영의 환영회를 근사한 곳에 가서 해준다는 말과는 달리 막상 도착한 곳은 숯불갈비집이었다. 남자사원들만 십 여명이 되는 곳에서 여자는 순영과 미스김언니 둘 뿐이었다. 순영은 당연히 미스김언니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러자 김과장은 "오늘은 미스리 환영회이니까, 특별히 부장님 옆으로 모셔주는 거야. 미스리는 부장님 옆으로 가서 앉아" 하며 순영을 부장님 옆으로 가게 했다. 순영은 순순히 일어나 부장님 옆으로 가서 앉았다. 기분이 좋아진 김과장은 맥주가 나오자 맥주병을 순영이에게 주더니

"미스리 뭐하는 거야? 부장님께 한 잔 따라 드리지 않고?"

순영은 회사의 어른인데 맥주 한 잔 따르다고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오늘은 특별히 자신을 위한 환영회란 생각에서 분위기를 살리고 싶었다. 문제는 부장님의 잔이 빌 때마다 김과장은 순영이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순영은 술그머니 일어나 미스김언니 곁으로 피해 앉았다. 그러자 김과장은

"미스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데, 왜 자꾸 구석으로만 가는거야?"

하며 순영에게 다시 부장님 옆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미스김언니가 한마디 거들었다.

"김과장님, 이순영씨가 곁에 없으면 부장님께서 맥주를 못드시니까?"

과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그렇다기보다는 분위기가 미스리가 부장님 곁에 있으면 풍경도 좋고, 뭐, 그렇다는 것이지..." 김과장의 말꼬리가 흐려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자, 다시 한 번 미스리의 환영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라며 누군가 큰소리로 분위기를 바꿨다. 미스김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저녁을 끝내자.

"먼저 가게 되서 죄송합니다"란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미스김언니의 그림자도 사라지기 전에 남자사원들은 모두들 한 마디씩 던졌다.

"도대체 분위기 파악은 전혀 안하는 여자야"
"조직에서 일을 하려면 조직의 기본적인 생리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 그러니 여지껏 저 나이 먹을 때까지 시집도 못갔지"

"여기가 어디 저 혼자 사는 곳이야? 조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돼먹질 않은 여자야"

그러면서 순영에게도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

"미스리는 앞으로 저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미스리는 설마 그러지 않겠지?"

남자사원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탓으로 농담이 해퍼졌다.

"오늘은 디스코텍에 가서 멋지게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가야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 그러니 여지껏 저 나이 먹을 때까지 시집도 못갔지”

“여기가 어디 저 혼자 사는 곳이야?”

조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돼먹질 않은 여자야

“당연하지, 미스리 노는 실력도 봐야되고 말이야”

순영의 의견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모두들 식당 옆의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몰려갔다. 순영은 엉겁결에 떠밀려 그 곳까지 가게 되었다. 현관 조명은 순영을 들뜨게 했다. 자꾸 권한 맥주를 사양하지 않고 마신 것이 순영이를 더욱 들뜨게 했는지도 모른다. 순영은 남자사원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았다. 평소 엄하게만 보였던 부장님도 밖에 나와서 대하니까 전혀 딴 분 같았다. 부르스타임이 되자

“이봐, 미스리! 부장님께 부르스 한번 추어드려”

하면서 김과장이 아부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 싫어요”

순영의 ‘싫어요’ 소리는 순식간에 소음 속으로 사라지고 부장님의 손에 끌려 순영은 음악 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갔다.

싫다는 생각도 잠시 부장의 한 쪽 손이 어깨와 허리에 감겼다. 순영은 뒤로 물러서려고 엉덩이를 자꾸만 빼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순영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부장님은

“미스리는 가만히 내가 하는대로만 있으면 돼”

하면서 허리를 감은 손에 힘을 주었다.

스텝이라고 해야 호느적거리는 것 뿐이지만 순영은 답답했다.

순영은 부장님하고의 부르스도 부르스지만 임

대리가 마음에 걸렸다. 순영이에게 살갑게 대하는 임대리의 호의를 은연중에 느껴온 터에 부장님 가슴에 매달려 부르스를 춘다는 것이 왠지 썩 썩했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남자사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장의 시선이 다른 날과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순영은 자신의 환영회를 핑계삼아 너무 난하게 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얼굴을 붉혔다. 남자사원들은 미스김언니가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순영이가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역시 새사람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틀리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2차를 가도 2차에 가는 맛이 다르잖아?”

“부장님도 기분 좋게 꼭 쓰시고...”

순영은 얼굴이 달아올라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순영이의 환영회가 끝나고 부서회식이 있다는 회람이 돌아 미스김언니는

“네 환영회라고 해서 그때는 내가 별 말을 안했단만 2차 갈 때는 알아서 가도록 해”라며 충고를 했다. 말이 없는 순영을 보자 다시

“내가 이런 말해서 너한테도 물들었다고 할 테니까 내가 이려고 저려고 할 입장은 못된다. 하지만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잘 알아서 처신 하도록 해”

“만약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조직생활의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고 욕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분위기는 여사원의 몫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차선의 방법이야”

“알아서 할게요”라고 대답은 했는데 순영은 회식에 안갈 수는 없었다.

회식이 거듭되면서 순영은 묘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은 미스김언니처럼 남자사원들의 노골적인 불만을 받아 넘길 자신이 없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미스김언니가 없다보니 당연히 부장님 옆에서 맥주를 따르게 되고 그 날의 ‘꽃’이 되었다.

“미스리가 진짜 우리 회사에 오는건데 그랬어”

“역시 여사원들은 적당한 시기에 회사를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노계가 떡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이젠 뭐, 분위기 망쳐 일할 맛 안나, 여러가지로 민폐 끼치는 거지”

순영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직장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조금 있으면 2차를 간다고 모두들 또 ‘우’ 물려 갈 것이다.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갈까? 디스코텍에 갈까? 의견이 분분한 사이 부장님이 전화를 받고 먼저 가셨다. 남자사원들은 스트레스 해소는 디스코텍이 최고라며 뒤로 자꾸만 빠지려는 순영을 앞세우고 디스코텍으로 직행했다. 처음에는 모두 디스코를 췄다. 순영은 부장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이 홀가분했는데 디스코타임이 끝나자 김과장이 갑자기 손을 잡아 당겼다. 순영은 불쾌한 감정을 누르고 한 곡만 추고 나오리라 생각을 했다. 김과

장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화장실을 핑계대고 자리로 도망쳐 나왔다. 순영은 먼저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핸드백을 집어 들었다. 그러자 이대리가 눈치를 채고 순영의 핸드백을 뺏아서 뒤로 돌리며 순영의 손을 끌어당겼다.

“과장님만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나, 이대리 하고도 한 번 추어주어야 되는거 아니냐?”

회식 때마다 순영에게 추근거리던 이대리는 부장님이 안계시자 노골적인 행동을 했다. 음악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자 소리 소리 고향을 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순영을 못가게 가로 막았다. 순영은 희롱당한 기분 때문에 너무나 불쾌하여 더이상 자신을 지탱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순영은 임대리에게 구원의 눈길을 주었으나 임대리는 맥주잔만 비우고 있었다.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리자 그제서야 김과장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이대리를 뒤로 밀치고 순영의 앞을 비켜 주었다.

다음날 순영은 항의를 했다. 남자사원들은 하나같이 그쯤은 분위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다.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은 순영이 뿐이었다. 이제 순영은 미스김언니가 왜 ‘못됐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전에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할 때 느꼈던 갈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남자사원들의 부당한 취급에서 일종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호랑이굴을 피해왔는데 다시 호랑이굴로 들어온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이상 직장을 그만둘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차리고 호랑이굴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기로 했다. ◆

독자의 소리

얼마 전 처음으로 계간 「사무직여성」 불호를 사서 흥미있게 읽었다. 특히 김종원 경희대 노조부위원장을 다룬 ‘멋있는 동지’라는 글이 인상적이었다. 간부라는 역할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체험하는 요즘에 자기역할을 잘 해내는 간부의 솔직한 얘기와 경험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라밖 동향’ 코너는 일본 직장여성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주의깊게 읽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오랜 역사와 활동에 비해서 할애된 지면이 작았고, 특히나 생생한 현장의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외에도 환경이나 문화코너에서 다루는 내용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주제들이어서 신선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사무직여성」을 읽기를 미뤘었던 것은 아마 그 이름이 주는 딱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무직여성」은 바로 나인데, 나에게 사무직여성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 좀더 친근한 이름으로 다가온다면 그 안의 내용과 더불어 더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송현미 27세, 생용컴퓨터 근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계간 「사무직여성」은 독자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직장의 생생한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시, 수필, 만화, 사진 그리고 독자비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곳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층
한국여성민우회 계간 「사무직여성」 편집실 앞
전화 269-5763-5, 팩스 269-5766

광고문의도 편집실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우회로 오십시오!

한국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창립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땅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여성차별과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반민주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인 사무직여성들과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입니다.

그동안 직장내폭력추방운동, 남녀고용평등법개정운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신인사제도, 여성고용불안정문제 등 직장과 사회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무직여성들의 이러한 활동과 함께 주부들은 지난 89년부터는 생활협동운동을 하며 삶의 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교육활동

강의와 토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 이땅에 사는 여성이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식과 자세를 확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를 위한 성·사랑·삶의 배움마당, 여성간부교실, 특강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주부들을 위한 민우여성학교도 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원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상담활동

전화 또는 편지, 방문상담을 통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겪는 여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드립니다.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등 노동자로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대우, 여직원회나 노조 여성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할 때 저희 상담창구(☎ 274-5755)를 이용해 주세요.

조사연구활동

직업병, 신인사제도, 임시고용문제 등 여성노동관련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를 하여 여성노동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전활동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저해하는 제반 문제들을 조사 연구하여 자료집 발간, 공청회, 설명회, 연대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 나갑니다.

연대활동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정신대문제대책 등의 인권운동과 노동관련 사안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조합연맹 등과 연대활동을 벌입니다.

계간 「사무직여성」 발간

사무직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접근, 분석해보는 전문잡지로 1년에 4번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부활동

서울지역의 5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운동, 생활협동운동, 여성인권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모니터 활동, 풍물교실, 주부를 위한 교육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참여하시려면

- 한국여성민우회는 사무직여성 여러분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를 원하시는 사무직여성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되시면 영화·비디오감상반, 신노동정책연구반, 노래반 등 각종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우회의 모든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생기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